

건축사

8

KAA JOURNAL 1970



대한건축사협회지

뛰어난 断熱効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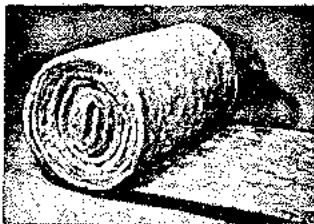
h한일 화이버그라스

◆ 先進各國에서 화이버그라스는 断熱材의 대명사로 되어있습니다.

화이버그라스는 발명 특허에 빛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섬유입니다.

「뛰어난 保温, 保冷材」 「가볍고 시공이 간단한」 「타지않는 건축자재」로서 국내 최대의 납품실적을 자랑하는 **한일 화이버그라스**———

어느 断熱材보다 우수한 성능으로 국제수준을 능가한 한일 화이버그라스는 그 「우수한 품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최대의 만족을 드릴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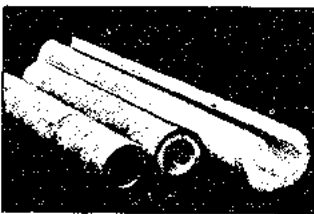
인슈레이션 매트

특성

- ① 단열성이 우수하다.
- ② 吸音, 防音
- ③ 불에타지 않는다.
- ④ 가볍고 탄력성이크다.
- ⑤ 시공이 간단하다

용도

- ① 건축물에
- ② 공장건설에
- ③ 선박에
- ④ 자동차, 철도차량에
- ⑤ 전기냉장고에



파이프 카바-

설비용 pipe의 保温, 保冷用으로 단열 효과가 우수하고 시공이 간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어느 保温材보다도 熱伝導率이 적어서 연료의 절약, 원가의 절감으로 매우 경제적이다.



한일유리섬유공업주식회사

HANIL FIBER GLASS INDUSTRY CO., LTD.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 2가269-11, 중앙사서함95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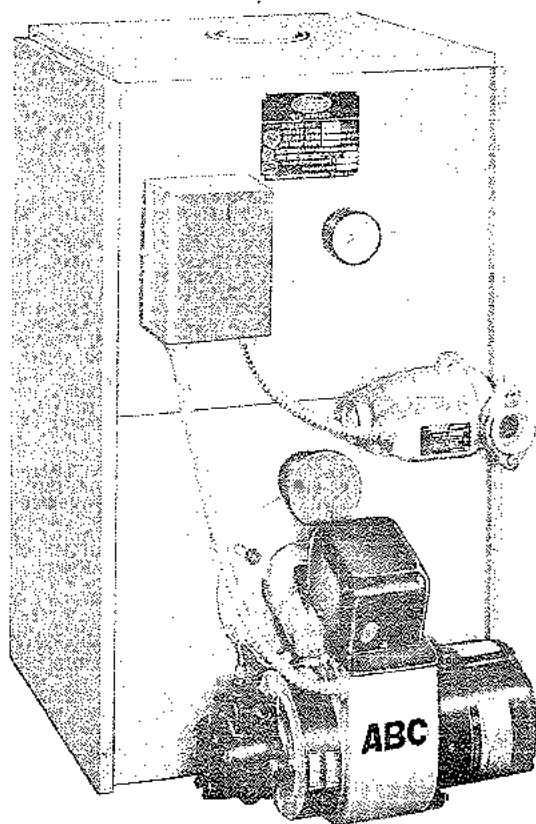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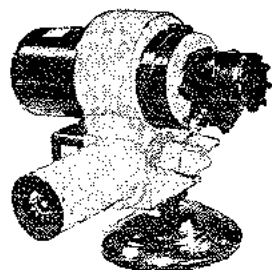
Tel : 53-5479, 53-2555, 23-4088, 23-4089

※ 써보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文化住宅 · 빌딩 · 工場의
熱管理는 어떠신지요?

美國 ABC 오일바-나

《完製輸入品》



● ABC바-나의 特徵 ●

- ① 完全自動임으로 便利하다.
- ② 完全燃燒로 燃料費를 節約
- ③ 五重安全裝置로 事故全無
- ④ 短時間에 設置 · 婦女子도 取扱할 수 있음.
- ⑤ 責任設置 · 애프터 · 서비스保障

● 用 途 ●

- ① 暖房用 溫水보일러
- ② 各種스팀 · 보일러
- ③ 호텔 · 빌딩 · 沐浴湯用 보일러
- ④ 工業用보일러 · 工業爐 · 乾燥爐用

其他 取扱種目



유티카 · 보일러

暖房과 溫水を 1 台로 同時에
完全 解決한 美國 輸入完製品

- 各種自動펌프 ● 各種暖房器具
- 로타리 바-나 ● 各種自動裝置

美國의 有名한 오일바-나와 暖房器具
韓國總代理店

三成設備工業株式會社

서울 · 中區乙支路 2 街163號 5 (동양빌딩 601號)

TEL. (23) 9696 · 9697 · 9698



* 상세한 카달록 및 문헌은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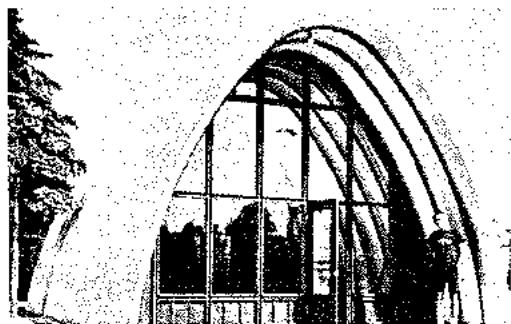
* 購入問議는 弊社 및 代理店에서.

* 無鉄骨

最新型組立式建築

(美国 MODULAR 会社製)

I. WONDER 式



◎ Wonder 式の 特徴

1. 無鉄骨建物이며 견고하다.
2. 價格이 저렴하다.
(完工費坪당 3 萬원 内外)
3. 移動이 가능하다.
4. 施工時間이 짧다.
5. 内部에 기둥같은 장애물이 없다.
6. 여러가지 形態로 美麗하게 꾸밀 수 있다.
7. 넓이는 300ft, 높이는 15m 까지 길이는 無制限.

用 途

* 大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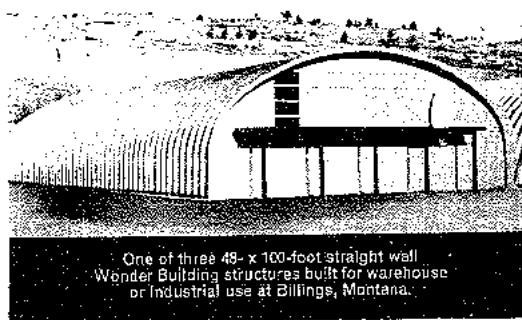
工場, 倉庫, 体育館,
教会, 비행기격납고

* 中形

軍막사, 畜舍, 양곡
창고 学校校舍,

* 小形

觀光사업용 방가로
簡易주택 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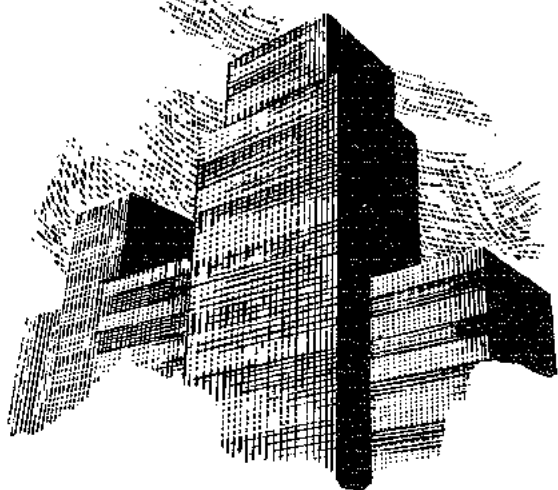
One of three 48- x 100-foot straight wall Wonder Building structures built for warehouse or industrial use at Billings, Montana.



韓國總代理店 豐成交易株式会社

서울 鍾路区 都染洞 115 (三六빌딩407号) I.P.O BOX 2945

TEL. ⑦4 8987



現代建築 內裝의 3 大 課題—
방음·방습·보온을 完全 해결한

三榮 하-드보-드

무늬보드

立体的이어 아름답고 濕氣와 소음을 防止하며
취가 棲息치 못하는 가장 새로운 建築 內裝材.

프린트 보드

하-드보-드 表面에 優雅하게 塗裝된 國內最初
의 新製品으로 우수한 高級內裝材.

吸音板

木材 纖維로 製造된 國內唯一의 断熱吸音 材로서
防音이 完全하며 절대휘거나 뒤틀리지 않는 天井
用 內裝材.



三榮하-드보-드工業株式會社

■ 서울사무소 : ☎ 26-3201~5 ■ 서울總販 ☎ 52-3006~7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 3 街296



도시허가 제374호
5C-650백열기
윤시허가 제420호
관이음쇠



기술의 상징
KANGWON BRAND

강원 라지에타
콘 벡 타
관이음쇠

- 5C-650 RADIATOR
- 5C-500 RADIATOR
- WALL RADIATOR W.78
($5\text{kg}/\text{cm}^2$ 水压試驗合格品)
- CONVECTOR
- PIPE FITTINGS
($10\text{kg}/\text{cm}^2$ 水压試驗合格品)

暖房·配管用生産品種



國內 最大規模의 量産体制로서
여러분께 奉仕하고 있습니다.

【兼營業種】

江原製作所・江原炭礦・三票煉炭
三票石油・三票骨材・三江運輸

江原産業株式会社

本社 서울特別市鍾路区新門路二街6 營業部(直) 73-5514

TEL. 75-2381~5

KAA JOURNAL

건축사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S

197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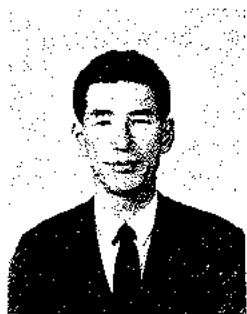
국전과 건축	6	엄 덕문
현대건축의 이해	7	정 인국
70년대의 작가	10	편찬위원회
최근의 루이스·카안	11	
슬프 생물학 연구소	18	
인도 경영 연구소	24	
몽파키스탄 수도계획	30	
회원작품	36	
C 씨집	37	원 정수
전설공제 조합	40	장 석용
K 사장 데	44	
김씨집	47	최 준
순회 건축강좌	50	
강 명구		
정 인국		
김 희춘		
특집 경제주택	52	편찬위원회
경제주택의 개념		
몇가지 단어의 정의	53	
아이젠 하우스	54	
밀러 하우스	56	
윈즈 하우스	58	
툼슨 하우스	60	
커너 하우스	62	
거장들의 이야기	64	편찬위원회
L-C의 초상	65	로 우환
새로운 건축에 대해서	68	L-C
한국 건축의 특색에 대하여	77	강 봉진
협회기사·회원동정	80	

분 류 번 호	建 築 士 誌
도 서 번 호	등록 제 24 호
구 입 년 월 일	1970. 8. 1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소지부	

편찬위원장
편집 위원

한창진
이정석, 최창규, 라상진, 한정섭, 이해성, 유경철, 박고석, 정인국, 강명구, 김석철

國展과 建築



쟁이는 元來 고달픈 것. 그러기에 고달픈 생이 만으로는 發展하기 힘이 들것기에 國家에서 밀어주고 育成하여 주는 意味에서 國展이라는 名目으로 舉國의 잔치를 해보자는때에 그 根本 意義가 있었던 것이다. 個人展도 있을 수 있고 同人展도 가질 수 있으나, 누구나 다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大廣場에서의 合同으로는 거의 不可能한 일. 그것도 各種의 部門別이 綜合된다는 것은 國展 아니면 엄두조차 못할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問題가 생겼다. 純粹美術만이 모여서 하겠단다. 알아 본 즉 建築과 工藝, 그리고 寫眞은 좀 빠져달라는 이야기다.

理由로는 建築과 工藝는 實利의인 面이 美術의인 面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實利性 云云도 精神的인 面까지 따지자면 實利性 아닌게 없다.可笑로운 일이다. 따지고 보면 藝術性을 忘却한 美術性은 存在할 수 없게 된다. 邇來에와서 모-른 造型 美術에 抽象乃至는 非具象이 前衛美術로서 登場하였다.

鐵부스러기와 용수철의 混合彫刻像 심지어는 세멘트에 나무 토막이 붙은 그림을 비롯하여 캠퍼스에 먼도칼로 치른 흔적, 그러나 이들의 母體는 藝術이라는 盤石위에서 創作 되었기에 美術로서 認定 받게 되는게 아닌가? 이러한 論理로서 建築도 工藝도 寫眞도 當당한 造型美術로서 存在한다. 要是 藝術性이라는 根本의인 焦點만 喪失치 않는다면 嚴然한 美術이다. 이제 우리는 亞細亞의 韓國이 아니라 世界의 韓國으로 登場하여 가고 있다. 去年 1959年 11月 오지리의 뤼엔나市에서 UN ESCO 主催로 世界造型藝術聯盟의 모임에 우리나라 代表中 建築分野에 姜明求, 鄭寅國 兩氏가 參席한 바 있었다. (繪畵에는 金仁承氏 彫刻에 金貞淑氏) 그 當時의 案件으로서 彫刻이나 繪畵가 本

來의 建築을 移脫하여 (타락)하고 있으니 本然의 姿勢인 建築으로 돌아가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具體的으로는 建築時에는 工事費의 20%를 繪畵, 彫刻 費用으로 加算編入하여 豫算 設定토록 하는 決議를 通過시키여 UN 參加國을 爲始하여 其他 各國政府에 通報한 바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國際的인 情勢와 潮流를 無視하여 送流하는 處事를 한다는 것은 美術史에 汚點이 될까 두렵다.

더욱이 우리나라 實情으로 보아 專門家 以外의 人士는 美術에 觀心이 없다. 그러기에 한자리에서 美術의 큰 자리를 가져보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建築展을 보러와서 그림과 彫刻을 自然히 보게 되고 그림이나 彫刻을 보러왔던 김에 工藝나 建築을 보게 되니 觀覽人에게 見識을 높여주게 되는 一石二鳥의 셈이된다. 오늘날의 美術界는 一般과의 呼應이 不足한 過度的인 現況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相互 아끼고 協助해야 할 時機가 아니겠는가. 그림쟁이나 조각쟁이라하여 唯我獨存格이나 我田引水格인 思考와 判斷은 危險하다. 또 이러한 點을 卽, 分裂과 獨走를 避하고 補充하여 키우자는 데에 本來의 國展의 意義와 그 趣旨가 있는것이다. 그런데 우리 建築人 自身은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反省해야 할 時點이 왔다고 본다. 果然 그네들 制度委員단의 잘못으로만 돌려야 하겠는가. 特히 既成作家라고 自稱하는 쟁이들이 一般의 國展問題에 있어 어떻게 물의를하고 어떻게 生覺하는가. 果然 他部問과 같은 誠意가 우리에게 있었던가. 實은 이점이 制度委員이나 文公當局에서 의아하게 生覺하는 問題點이었고 除外한다는 結論까지 이르렀던 主動機가 되었던 것이다. 하기에 우리만의 애로가 許多히있다. 그것도 그네들에게는 說明해 주었다. 그러나 國展이라는 全體의 모임에서 볼 때에는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네들의 解釋이다.

나는 當局에 強堅한 呼訴를 提起하였고 그對策을 마련하였다. 國立大建築展이 出現하는 것이다. 現在까지의 國展費用은 全額 900萬원이었다고 하는데 建築展은 그보다는 약간 적은 額數라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이야기는 推進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차제에 建築쟁이로서의 긍지와 自負心으로 明春부터 施行될 大建築展에 臨할 態勢를 갖추어야 하겠다.

建築家協會 會長 嚴德紋

현대 건축을 이해하는 길과

그 의의에 관해서

정인국

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한 단적인 예로 필자가 1968년초 영국의 R. I. B. A를 방문하였을때 가장 흥미를 가지고 알고 싶었던 ARCHIGRAM에 대해서 그곳 사무총장에게 (그들의 영국에서의 평가 여하)라는 질문을 한바 그는 입을 담은 채 어깨를 웃속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여준 것으로 미루어 잡지를 통하여 본 평가와 현지에서의 실지 상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을 알았다. 또한 스키손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미국의 평가는 극히 보잘것 없는 아전인수격이론과 작품으로 부루타리즘이라는 미명아래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현지 런던에서는 그 건물이 극히 보편적인 건물형이 될만큼 그의 건축 이론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흔히 우리들이 가장 쉽게 외국잡지를 훑어 보는 가운데서 얻어진 현대건축에 대한 파악이 어느정도 정확한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잡지 등 속에서 얻어 볼 수 있는 저명한 건축가의 작품은 물론 그것이 수록된 그 순간에 있어서 그때를 지도할만큼 대표적인 의의있는 작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 작품이 나오게 된 이면의 여러가지 사항들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사항들이란 다음과같이 지적할 수 있다.

1. 그 작품과 작가의 역사적배경
2. 그 작품평가의 철학적 근거
3. 그 작품을 평한 평가론의 사상경향과 위치
4. 그 작품의 세계건축사의 좌표
5. 그 작품의 한정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의의
6. 그 작품이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견.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뒷면에 돌려논재 잡지가 떠고 있는 협소한 저널리시틱한 면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조간신문에 살인사건이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식의 자극밖에 줄 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현대건축을 진실로 이해하려면 단편적으로 산견되는 이러한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며 어떤 체계 밑에 정리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수가 있다.

필자는 금번(근대건축론)의 계속으로 <현대건축론>을 짜내게되었는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와 논조를 취하였다. 즉

첫째, 건축발전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맨 첫번째 시도는 비교론적인 방법을

요사이같이 건축에 관한 정보교환이 빠르게 또 넓게 행해지고 있는 때는 없다. 우리들이 국내에 앉아서 입수할 수 있는 외국잡지만 하더라도 20여 종에 달하며, 또 국내서 출판되는 각 기관지와 건축지도 벌써 5, 6종을 헤아리고 있다.

한국건축가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외국 건축의 동향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한국 건축제를 선봉에서 이끌고 나아갈 만한 혁신적이며 타당한 지도 이론이 없기때문에 그 길을 직접 외국건축가들에게서 얻을려는 노력의 발로이며, 둘째로는 현저하여진 세대교체의 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사회에 크로즈업시켜야 하는데 그 길로는 외국건축가들의 작품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겠다는 절실한 욕구, 셋째로는 시시각각으로 변천하는 건축사회의 정세에 대해서 뒤떨어 저서는 자기의 건축가로서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초조감등이다.

그런데 과연 외국이나 국내의 잡지를 통해서 참된 현대건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들의 건축활동의 어떤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택한 프렛차의 방법이 널리 알려지고 있고 또 최근에 탁월한 미술평론가인 기태온은 그의 스승의 뒤를 이어 사회의 의식구조와 문화형태가 모든 예술현상의 근원——벨푸린이 〈Sehform〉이라고 한 것——이라고 보아 이것으로 모든 예술현상을 이해할려는 방법등이 특출하다. 벨푸린은 또 매우 암시적인말로 「건축사에서 형식발전의 주기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서구의 어떠한 건축양식도 그 크라식시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바로크시대를 가지고 있다. 단지 그것이 완전한 발전을 이루려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한다」라고 한 바 있는데, 그간 건축의 발전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면 기태온의 사회의식구조를 근원으로 하는 주기성을 파헤쳐 가면 훌륭한 방법이 창안될 것이 예견되었기 때문에 우선 이 방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즉 「사회적 의식구조의 근간으로 〈Logos〉적인 것과 〈Pathos〉적인 것의 둘을 설정하고 이 둘이 시간의 장단은 달리하나 항상 주기적으로 쇄퇴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택하면 최근의 상황은 여태까지의 마스터 빌더들의 이론이나 작품태도는 사회의 의식구조와는 배치되기 때문에 폐퇴하여 지고 그대신 그와 반대되는 양상이 상당한 시간의 과도기를 거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론이나 원리는 없다」는 태도와 「사회의 발전이 항상 쉼사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건축의 양상도 부단이 성장 발전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

(필자 저 〈현대건축론〉 제2장 참조)

둘째 한 시대 또는 한 보편적인 건축의 형이 진행되는 시기의 전반적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그것은 다음 변천하는 시기와 비교하며 그 변질된 내용을 알기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흔히 우리들은 단편적인 건축만을 취급하여 전반적인 공통된 특질을 잇기 쉽다. 가령 최근에 전위적 작품의 작가로 소개되어 있는 로버트 벤츄리(Venturi, 건축사 1970년 1호 게재)와 미국의 저명한 일본2세 작가 미노루 야마자키사이에는 얼핏보면 하동 연관이 없는듯하다. 고전적이고 섬세한 이론가인 야마자키는 미스의 후계자로서의 제2세대적인 존재인 반면에 벤츄리는 제3세대를 자처하면서 하나는 현실증명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적인 현실 부정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만이 다르고 건축표현의 근거는 동일하다. 그 근거는 인간존중과 절

충주의이다. 야마자키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즐거움과 쾌락의 경지를 조형으로 추구하였고, 벤츄리는 인간이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모순성과 모호함을 솔직하게 긍정하며 둘 모두 과거 시대적 양식으로 합일하고만 작가들이다.

또 벅민스터 플러와 영국의 아키그램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듯이 느껴지나 실제로 이 둘사이에는 매우 가까운 연결이 맺어지고 있다. 즉 무한대의 공간,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 우주시대의 사회가 요구하는 공간처리를 이루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환점을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점에서 그치며 시작한 전반적 상황과 공통된 성질을 꼬집어 내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세째, 개별적작가들에 대해서 그 시대, 그 나라, 어떤 위치를 찾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한다.

여기에 참고로 〈건축사〉의 월별 70년대 작가의 이름을 들어 보면

1970년 1월호 (Robert Venturi)

2월호 (Candilis 팀)

3월호 (Hans Hollein)

4월호 (Paul Rudolf)

5월호 (John Wilson)

6월호 (James Stirling)

잡지의 성질상 작가들에 대한 사회적평가의 열이나, 현대적의의면으로 따진 선후문제를 순차로 배열해달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작가 모두가 70년대작가라고 같은 계열로 나열하기에는 너무나 성질이 다른 작가들이 현대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들고 있는 것이다.

로울 루돌푸는 70년대 작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래에대한 예견이 없는 작가이고 윌슨이나 스타링도 어디까지나 고전에 밀착하고 있는 작가이며 칸디리스 팀 역시 다른 특출한 몇사람의 도시계획가와 비교할때는 너무 고전적이며, 겨우 여기서는 벤츄리나 홀라인이 우리들의 인상으로는 현대의 첨단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잡지를 통하여 입수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여 작가의 건축창작에 양식으로 삼을려고 하면 이에대한 반추소화작용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넓은 시야에서 총괄적으로 현대작가를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즉 근대여명기에서 있었던 모진 진통이 무엇때문에 생기었는지?

그 전통 끝에 찬란하게 빛을 보이게 된 근대건축
성숙기의 성질은 어떤 것이며, 그때 형성된 사회의
식구조와 조형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맺어지고 있
는가?

성숙기에서 다음 전환기로 옮겨지는때는 어떤
힘이 작용하였고 또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파악하는데서 작가의 이
론과 작품에 대한 참된 의의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작가를 단편적으로 아는데 그치는 결
과로 조배하는 부작용은 크다. 건축발전의 순로와
는 역행할 수도 있고, 무국적 무개성의 작품세계
로 타락하기도 쉽고, 우왕좌왕 건축의 본질자체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고 말수도 있다. 더우기 지
금 현대 건축의 상황은 백귀야행(百鬼夜行)이라고
누가 표현한것같이 혼돈하고 것잡을 수 없는 양상
이기때문에 건축의 발전이나 작가의 작품을 총괄
적으로 연속적으로 명확한 주전을 발판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필자 저<현대건축론> 제1장참조)

네째, 현대건축을 정확히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한국건축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중국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건축가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
지를 알기 위한 작업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한
국 건축이 지내온 길을 찾아 보고, 현재 한국건축
이 세계건축의 어느 위치에 처하여 있는지 알아야
하며, 다른나라들이 거저온바를 훑터 보면서 우리
들이 걸걸을 찾아야 한다.

최근 국내 건축지의 대부분은 외국의 전위작가
의 소개나 지난 거장들의 추도호나 외국의 문헌소
개로 일관하고 있다. 건축지가 맡은 과업의 하나
는 한국건축의 지도적이념을 발표하여 이에대한
비판과 순화작용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명확한 지
침을 마련하여 주는 일이다.

물론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지도적건축가들이 너무 밀폐된 한계속
에서 자위적 건축활동을 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사실,
둘째로는 건축평론이 아직 수립되지 못한 상황,
셋째로는 건축가들의 수준이 균일되지 못한 현실
네째로 가장 큰 이유로는 한국건축이 심한 혼란기
인데 이것을 극복할 아무런 포텐셜에너지로 갖
지못한채 담보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들로 해서 정
보제공이라는 저급한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음
은 매우 유감된 일이다. 앞으로는 서서히 어느나
라든지 초기에는 꼭 한번 겪고 지나는 격렬한 논

쟁의 시기를 거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
야한다. 이러한 논쟁의 예로는 1930년대 백시코의
예술혁명론, 1953년대 일본의 전통논쟁, 1945년대
이탈리의 사실주의 표현논쟁, 등을 들수 있으며,
이 나라들이 현재 세계 최고위의 건축문화를 형성
한 나라임을 상기할때 고도의 고유한 건축문화수
립을 위하여서는 의식적으로라도 이 논쟁을 불러
일으켜야한다. 그간 한국건축계에도 많은 건축논
쟁이 있었다. 부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경주
박물관등의 전통건축에 대한 문제, 건축설계를 들
려싸고 외주문제와 현상설계의 부당성시비, 적들
적인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시정안논의, 한국전
축가의 사회적 직분에 관한 여러문제 토의 등으로
소연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하나도 명확하고 수
공이 갈만한 결론을 얻은 적이 없다. 각기 제멋대
로의 해석과 안이한 처리방안으로 얼버무려 끝을
맺고 만다. 한국건축계의 큰 병폐의 하나로 이것
을 제거하는 노력이 우선 앞서야 한다. (필자 저
<현대건축론> 제 3 장 참조) 끝으로 위에서 지적한
세계현대건축이론의 이해와 한국건축가들의 현실
문제추궁이라든가, 세계 여러나라의 건축동향이나
건축가들의 작품의 분류 분석같은 일은 건축창조
행위와는 하등 직접적 관련이 없음들 강조할 필요
가있다. 왜그러나하면 너무 이론이나 분석 분류가
건축창조행위보다 앞설때는 자유스런 활동이 저해
되기 때문이다. 그로피우스가 일찍이 건축활동의
7개의 교훈으로 든바 하나로서 「어떤 이즘, 어떤
분류행위는 건축사가 건축평론가들의 작업으로 그
치며, 건축창조 활동에는 해로울지언정 도움은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듯이 위에서 적은 일련의 작
업은 건축가의 기본소양으로 필요할뿐이고 여기에
속박받아서서는 안된다. 건축은 다른 예술부면 같이
어떤 작가의 내면에서의 우발적 충동이 더 앞서는
행위이기보다는 좀 더 깊은 철학적 사고의 뒷바침
이 절실한 행위이다. 그래서 언제나 생각하며, 연
구하며, 인간이나 사회와의 대결에서 타결점을 구
하는 필사적인 노력의 과정에서 좋은 결과는 얻어
지게 마련이다.

현재 한국건축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심한 불균형, 새로운 사대성의 노출, 관능적 피상
으로의 질주, 건축과 도시의 유리등으로 발하고
있다. 이것들을 극복하는 길은 올바른 현대건축사
조의 파악과 그 길로 우리들을 적응시키는 길밖에
없다.



최근의 루이스·카와

70년대의작가

⑧

루이스 · 카안

비교적 최근의 루이스 카안을 알아 보려는 것이 이번 달의 목적이다. 예일 아트 갤러리, 리처즈 메디칼 리서치 빌딩, 유니타리안 처치등을 만든 당시의 그는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최근 상당히 변모된 그의 사고는 어느 의미로는 리처즈 메디칼 빌딩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사유와 대립 또는 모순된다고 해석된다. 그의 내면적 변화의 근거와 그 발전적인 단층을 통해서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카안의 한 측면을 소개함으로써 현대건축에 한 전환의 계기를 가능케 하였던 이 건축가를 이해해 보려는 것이다.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동파키스탄의 Dacca의 의사당들을 비롯한 일련의 근작들은 사고의 크로스퍼즐 같기도 하고 주술 같기도 하다.

그 형태의 아름다움, 순수한 원들, 삼각, 절단된 재형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철저한 힘, 완벽한 단순함, 기이한 명확성, 이상한 풍부함-이런 모든 것들의 조화를 통해서 카안은 그가 말하는 FORM과 건축적 표현을 새로운 전체상-하나의 세계를 구현하고있다.

그것은 칸이 말하는 FORM-DESIGN의 명확한 언명을 넘어서 정통 현대건축의 공간적 흐름과 대조되는 에펠드 보잘의 방법-조작난 공간의 조작을 통한 독특한 구성의 일러스트레이션-과 그 고도로 복합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와 원칙적의 미의 고유적 필연에서 이룩해진 기하학적이고 지리학적이 리지드웨이프로 전개되고 변모된 카안의 모습이다.

유크리트 기하학의 잔재와 같기도한 칸의 방법과 형태는 카안 자신은 그것은 watter of fact라고 부르지만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 그 방법과 소위 FORM도 이상하지만 그 DESIGN 역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아니다.

카안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 우리나라에 널리 소개된(현대 건축 8월호) 로발도 지울콜라의 말을 인용해 보자. '카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건축의 방법만이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떻게 건축을 통해서 사건의 원리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

그것은 지울콜라가 지적한 것 처럼 반 고전적이면서도 (Palladio's가 그런 것 처럼) 빈센트 스칼리가 본 것 처럼 더 정확히는 프랑스 아카데미(에펠드 보잘)의 방법 즉 개별기능에 따른 개별공간에의 중점과 그에 따라 환기되는 정서로 이끄는 것으로 고전적인 것이기도 하다.

지울콜라를 또 인용하자 '최근의 카안의 건축은 이상하게도 난해하다. 그러면서도 더 이상한 것은 그 법에도 불구하고 그 집들이 강하고 분명한 정서를 환기하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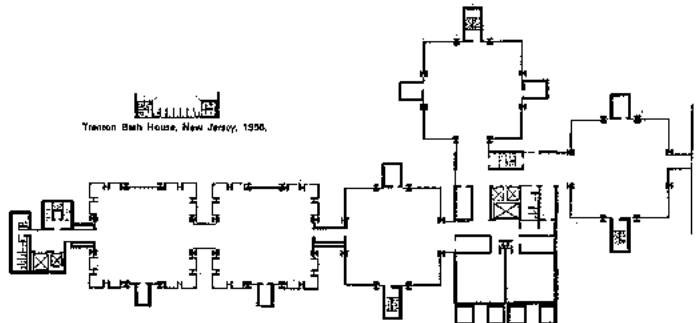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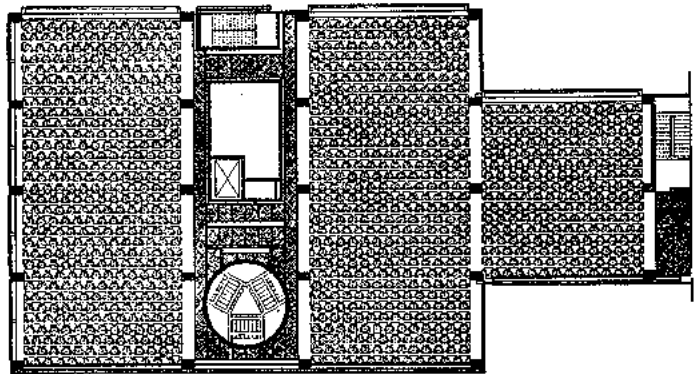
카안은 건축의 과정을 FORM에서 DESIGN으로 이르는 두 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카안 말을 빌리면 'DESIGN은 條件과 狀況속에서의 行爲'이며 'FORM은 條件이나 狀況과 상관없이 人間の 어떤 行爲를 前提한 空間의 造作'이다. 그러므로 FORM과 DESIGN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건축의 쟁 수 있는 관점과 건축의 한계와 그 실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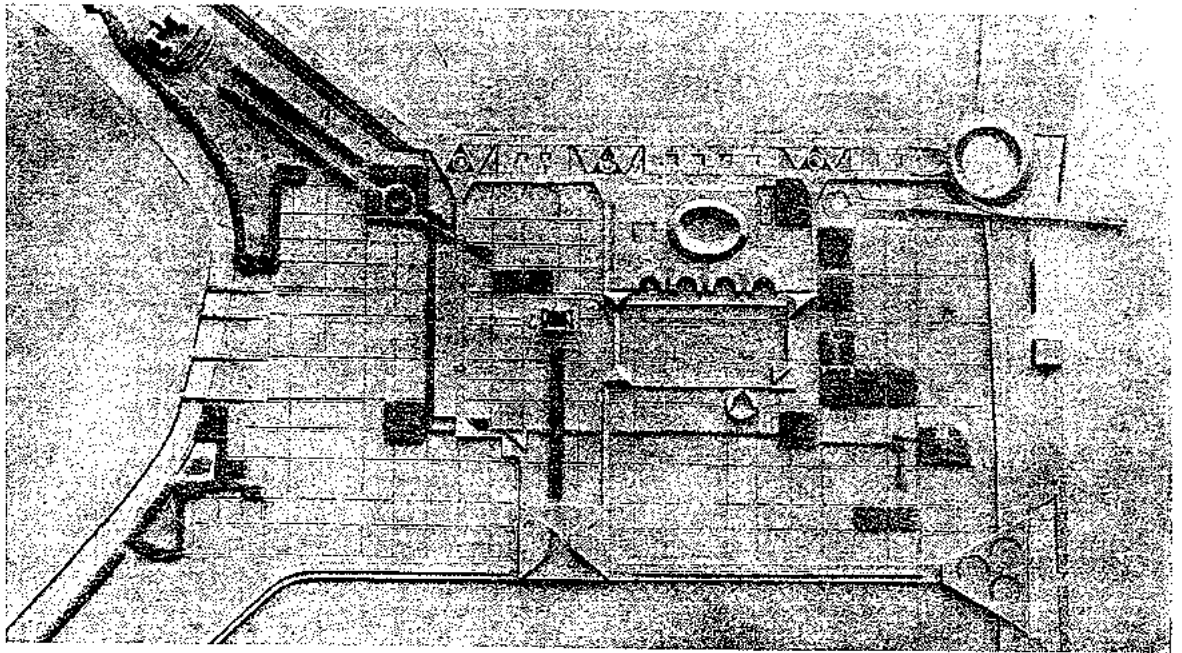
60년대 이후의 현대건축의 움직임과 루이스 카안의 이름은 극히 최근까지 서로 배일 수 없는 것이 되어 있다. 오늘날 현대건축을 논하는 사람은 카안을 스칠 수가 없다. 특히 최근의 미국건축의 발전은 카안의 사고와 방법론의 통합과 그 영향을 압축한 역사에 의해서 대변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카안의 첫(?) 작품인 에일아트 젤러리는 미-스의 언어가 갖는 추상성이 그 자신의 고유한 언어인 FORM와 DESIGN의 구현을 통해서 다양한 도시내외적(대확팩터스 외 성격은 이런 투로 말해지는 것이 적절할 듯 하다) 성격과 많은 계층을 가진 독특한 부지(이 부지는 신역사주의에 둘러싸인 절충적환경을 이루고 있었다)의 정황에 창조의 모습으로 respond되어 있다.

아마도 1960년대의 현대 건축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많은 추종을 불러일으켰던 리처드 메디칼 리서치 빌딩은 기능적 공간적 그리고 구조적 순수성에 있어서 엄격한 독립된 타워그림을 고도로 만 전통적이며 거의 우연적인 線狀群으로 통합하면서 20세기의 어바니즘의 독특한 방법인 street-defining building으로서 완성된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그 강인하고 전후가 분명한 이미지는 바록 실자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요하는 과학자들의 요구를 잘 주의 깊게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보뉴엔탈하고 장엄하고 일으켜진 기능주의를 암시한다.





카안의 도시에 대한 태도는 에콜드 보잘의 물락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도시의 건축화라는 정통적인 방법론의 추구하는 것이다. 그의 필라델피아 중심부의 교통 계획과 그 지역의 design plan은 그의 greenway system과 함께 도시 문제의 본질을 깊이 통찰한 사람만이 갖을 수 있는 관점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조화, 모든 것이 고려되어 있다. 지역과 부분의 영컴, 상업과 시빅의 상반된 발전, 자동차와 인간의 새로운 도시적 스케일의 모색·카안의 기존 도시에 대한 재설계의 어프로치는 소위 도시 계획과는 달리 삼차원형식에서의 토지 이용 계획을 20세기의 문제로서의 스케일로 다루고 있으므로 neighborhood의 환경이 정의되고

단독 건물의 계획이나 설계보다 더 큰 아이디어와 필요를 반영하도록 하기위한 도로, 건물, 어반코코스, 어반스페이스의 연계등 다양한 모는 관점에서의 컨트롤을 포함한다. 카안 대학동료이며 그의 도시 디자인의 어프로치를 살지에 더 전진시킨 데이비드 크레인도 '도시계획이란 도시문제를 다루는 산업이며 그 산업에는 포함되어야 할 다른 많은 직업이 있다. 그리고 건축은 여기서 디자인 이상의 더 많고 큰 스케일로 다루어야 한다.'

카안의 이러한 도시적 어프로치는 位階와 location과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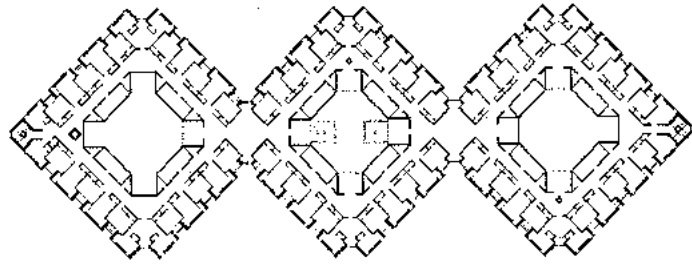
커뮤니티의 가치를 물리적으로 질서화하고 구조적인 어프로치를 통해 형상화한다. 그레함재단의 재정적인보조로 이루어진 카안의 필라

델피아 중심부 계획은 도시가 일반적으로 지니는 필요의 입장에서선 물론 도시 자신의 고유한 도시적요구에 대한 자신의 언명이다. '자동차는 도시의 form을 완전히 뒤집었다. 나는 자동차를 위한 고가건축과 사람의 활동을 위한 건축사이의 구별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돌 사이의 구별은 성장의 논리와 투자의 배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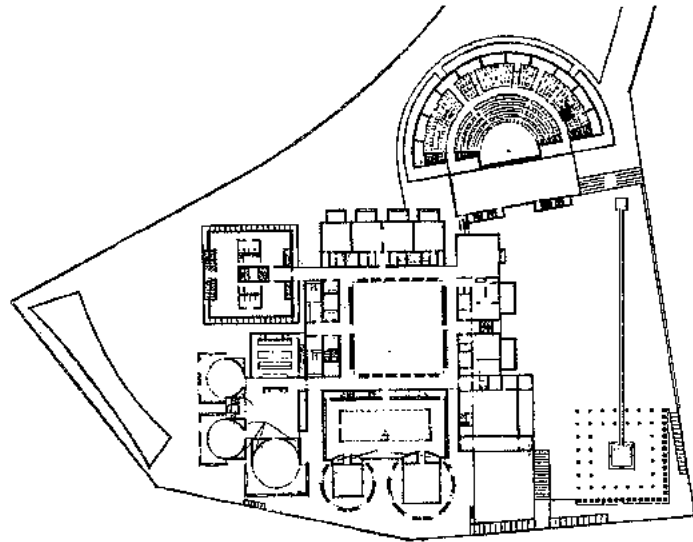
카안은 center-city 계획은 FORM diagram으로 남아있다.

그것의 DESIGN으로서의translation은 가능성이 없다. 하이웨이는 칸이 제안한 그런 장소에 거의 있느냐 고가건축이 함께 되어있지 않다. 대신 거기에는 마구 베어낸 수목을 벌채한 것 같은 design policy의 실현만이 있다.

최근 그려진 것으로 완성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브윈 마우르 대학의 엘리노어 도넬리 에드먼 기숙사와 캘리포니아 라폴라의 솔크 생물학 연구소다. 엘리노어 도넬리 에드먼 기숙사는 리처즈 메디칼 리서치 빌딩과 같이 독립된 일련의 요소들이 벽을 이루며 하나로 부각되어있다. 코너에서 겹쳐지는 새 정방형 플랜은 구름을 스치며 대각으로 연속한다. 얇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트림 사이의 갭빛 슬레이트판은 1870 년대의 휴네스로부터 1920 년대의 조지 후에에 이르는 필라델피아 의 주택들을 특징지은 강인한 방언을 상기시킨다. 내부공간은 그 빈모습이 마술적이다. 그러면서도 우연적으로 조합된 밝은 가구들과 사람들이 끌뒤희의 구세군외관에서처럼 추방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휴먼 스케일을 강조하던 끌뒤희재의 작품에 인간과 인간의 악세사리들이 소외되고 오히려 반언간적인 추상성을 추구해온 카안의 작품에서 인간이 한 분명한 의미를 띄게 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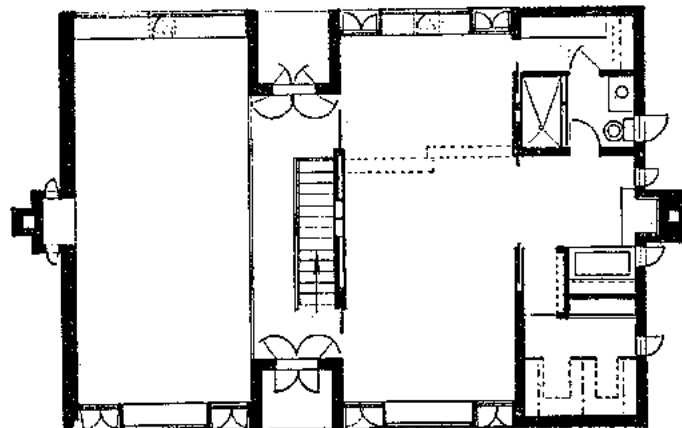


Eleanor Donnelly Edman Hall, Bryn Mawr College, Pennsylvania, 1960.



솔크연구소는 배평양을 바라보는 아카데미한 마을에 있다.

모든 것이 완성되면 스태프들의 주거와 커뮤니티가 포함될 것이다. 최근 완성된 실험동에서 구조와 설비는 구조와 설비체제는 FORM 과정에서 분리되고 독립된 주중공간의 완벽하고 적정한 비례로 조합되어 있다. 실험실 공간(room)은 크고 밝고 가동이 없고 사람 키 높이의 파이프 탁트층에 의해서 아무데서도 서비스된다. 리처즈 메디칼 리서치 빌딩에서처럼 지정된 장소에서 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테크놀로지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라보라토리를 가로지르면서 오픈세미나 스페이스로 연결되는 계단과 브릿지가 개별 연구실로 접속된다. 콘크리트는 최고도로 세련되어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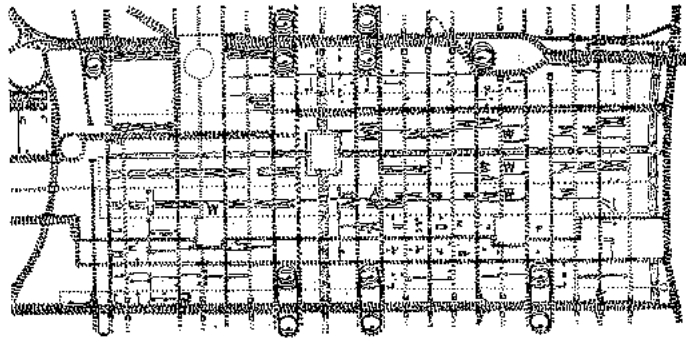


밀도, 색깔 그리고 정교하게 계산된 접합부는 팔목할 만하다. 그 접합부는 형틀 사이에 익스텐션을 허용하도록 틱판올 넣은 결과며 그것을 설계와 연결된 시공의 탄탄한 예를 보여 준다. 처음 솔크 박사는 10,000스퀘아피트의 실험실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의 요구에는 피카소를 거기에 초청 할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을 모든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실험실이 그 통상의 기능에 반대되는 만남의 장소,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의 중심이기도 해야겠다는 솔크박사의 제안은 과학자들의 학문의 도구가 되는 것을 해방시키고자 한 의지였다. 이 건물의 설계에 관한 카안 자신의 말을 길지만 인용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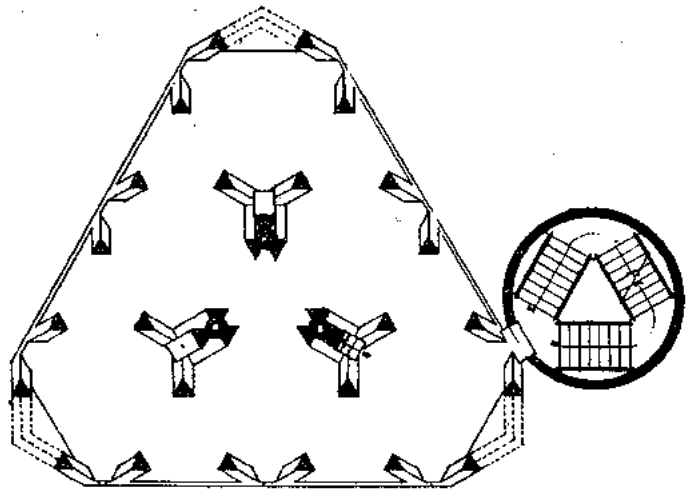
“나는 최근 캘리포니아의 샌디아고에 약간 독특한 연구소를 설계하고 있다.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솔크박사는 핏치버그에서 있었던 나의 강연을 듣고 내가 설계한 리처즈 메디칼 리서치 빌딩을 보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 왔다. 비가 오는날 우리는 그 집을 보러 나섰다. 솔크박사는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건물입니다. 고층건물이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다. 109,000 스퀘아피트라고 내가 말하자 그는 자기도 그만한 넓이의 연구소 건물을 지을 작정이라고 했다. 이것이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의 요구는 좀더 다양한 것이었고 나중에 이 프로젝트의 모든 문제들을 풀수 있는 열쇠라고 할 만한 것을 내포한 것이었다. 그는 리처즈 메디칼 리서치 빌딩을 평하면서 메디칼 리서치 빌딩은 의학과 인체과학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한 것이라야 할 것이라는 그의

전해를 말하였다. 그는 인간이나 학문에 또는 다른 분야라도 그것에 심취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발전이나 창조에 도달할 활동을 위하여는 정신적 혹은 정서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는 이미 있었던 모든 조건에 제한됨이 없이 이같이 참신한 환경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솔크박사는 환경이 갖는 정신적 영향력의 참뜻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존재의지라는 것과 나의 공간이 의도하는 FORM에서의 존재의지의 현실화를 직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기꺼이 그 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이 연구소에 관한 기초적 조건이 나왔고 그 시설은 회랑으로 둘러싸인 정원, 그 위에 위치하는 연구실군, 집회나 휴게에 쓰이는 공간, 충실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마련되는 이름없는 공간들 등으로 발전하여갔다. 이 실험실군의 전측의지는 맑은 공기와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인용이 길었지만 그것은 FORM에 대한 말이다. DESIGN과정에서 카안은 서로 다르지만 분리될 수는 없는 세 기본요소를 표현했다. 커먼룸은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의 중심으로서 파이프와 기계창치가 세워진 실험실군과 진정한 동일체로서 나타난다. 평화와 종이의 연필, 그리고 파이프들만이 허용되는 작은 오피스들과 식사와 휴게를 위한 곳곳의 라운지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한 창조와 발견의 세계를 이룩하고 있다. 재료는 콘크리트, 나무, 유리, 대리석 그리고 물이다. 콘크리트는 형틀자국이 남아있다. 틱판과 유리가 오피스와 커먼룸벽에 방패처럼 세워지고 돌과 대리석이 깔린 마당은 캘리포니아의 태양아래 샘처럼 치솟는 개울이 빠져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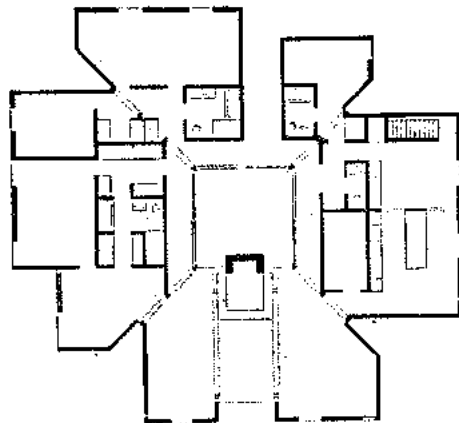
인도 아메다바드의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에서 카안은 모든 건축적 구성을 도시적 스케일과 커뮤니티스케일로 실현시키고 있다. 정원으로 서로 엮거리면서 단속되는 강렬한 기하학은 개별적인 기숙사 분들을 통해서 서서히 기록진 부지를 따라 교육 건물로 크라우닝 된다. 기숙사와 교수 주택들은 그 스케일에 있어서 팔복할 만 하며 (도시스케일로는) 일단 대담하면서 (주거유닛로서는) 친화적이다.



아메다바드의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에서 우리는 새로운 광경을 본다. 나무아래서의 가르침. 선생은 자기가 선생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학생인 것을 잊은 사람들과 그의 이론을 토론한다. 이러한 교육의 원초적인 만남이 여기서 실현되어 있다. 이것은 카안의 놀라운 영감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행위가 공간의 묘사와 형태의 조작에 의해서 설명되어 있다. 모든 집들은 카안의 말처럼 "집속의 집, 한 쪽으로는 하늘을 향하고 다른 한 쪽은 생활을 향한" 그러한 정속과 단속을 이루고 있다. 붉은 벽돌은 벽의 압축적 강도를 표현하고 있고 바르레스와 아치로 이루어진 콩크리트 인더라인은 열은 회색윤곽을 그리고 있다. 벽돌의 풍부함과 소면콩크리트의 타프한 스트랭스는 인도고유의 영원한 현재를 반향한다.



안의 viaduct 소위 고가건축의 초기모습은 Cormolngan 성벽에 있는 원형 삼각형의 구멍에 유래한다. 그러나 Dacca에서 그러한 모양은 바뀌기 시작했다. 카안은 스스로의 건물들 사이에 구멍-간격을 연결시킨다. 국화 위의 모스크탑들은 법위의 종교를 상징하며 건축적 표현으로 상기한 효과를 점철한다. 의원과 사무원들의 주거가 메인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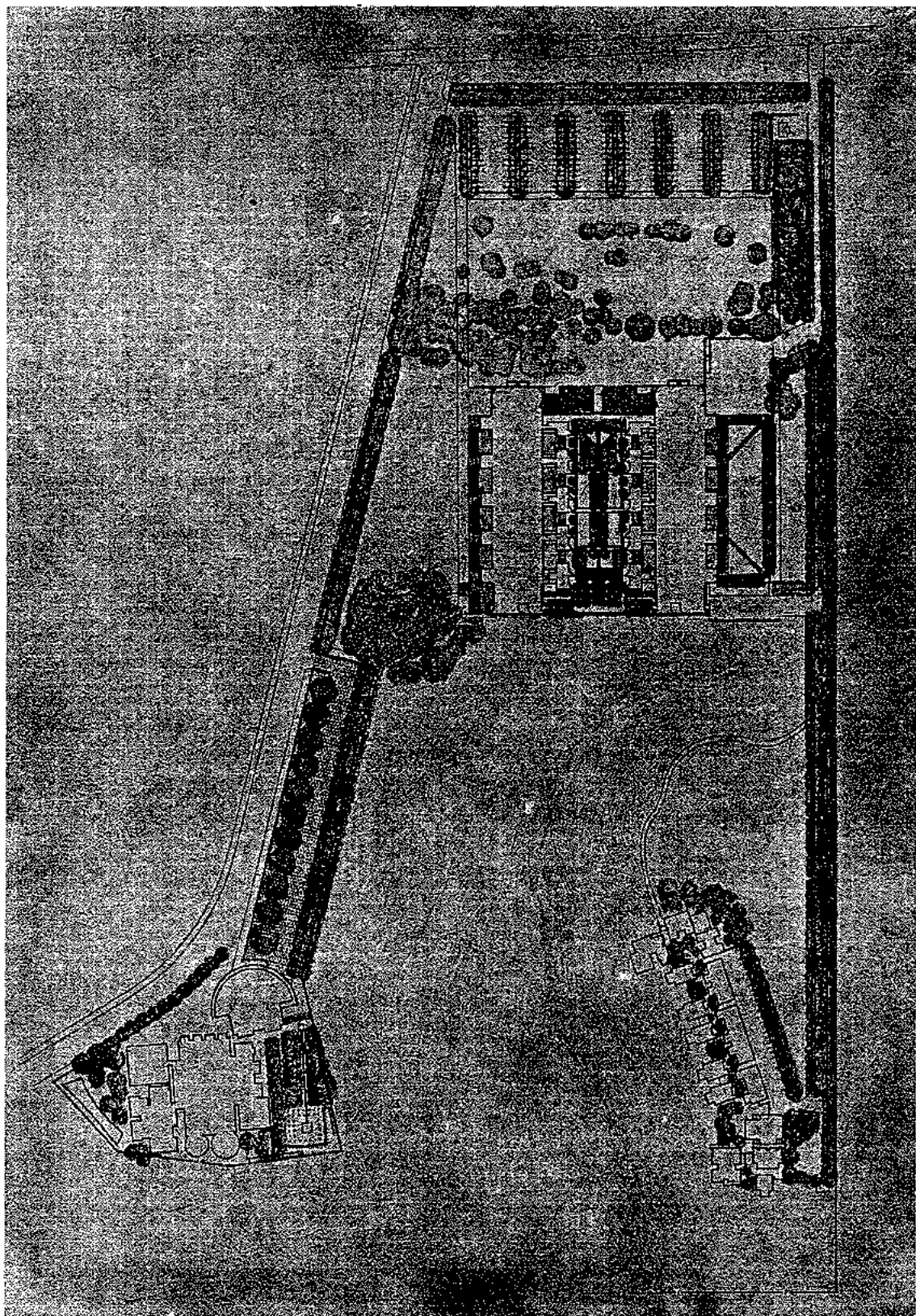
에 날개처럼 달리고 대법원이 모스
고 맞은편에 군으로 선다. 정부청
사가 있는 쪽에 의회와 법정이 모
스고 주위에 접속 그리고 단속되면
서 연속한다. 이러한 요소 주위에
두개의 대각선상에 주거와 두개의
궁정식 관사가 전개되어 있다. 길
넘어에는 경기장 육장 학교들이 있
고 이것들은 너머의 발전을 암시한
다. 아래쪽에는 병원, 윗쪽에는 비
행장이 있다.

동 파키스탄 Dacca의 파키스탄
제 2수도는 더욱 다채하다. 이 정
부청사는 우리가 여태 생각하던 것
과는 다르다 우리 주위의 건축은
결작들의 카리카추어다. 그것들에
는 형태의 발전과 순수성이 결여되
어있다. 환경은 인간에게 깊은 영
향을 끼친다. 인간은 자연에 짐을
짓는다. 참다운 건축가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 무갈제국의 결작
들의 요소들(도움, 아치, 보울트
등)은 회교건축과 유사하다. 건축
의 모티브들은 기호만이 아니라 사
고와 행동의 순수한 요소들이다. 그
러나 그 표현의 질은 본질적으로
회교적이다. 물론 회교 건축은 도
움, 아치 그리고 보울트 등에 한정
된 것은 아니다. 카안은 우리가 재
료의 혁명속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재료의 혁
명으로 이루어 놓은 것은 공허한
모티브의 반복이나 표현이었다. 파
키스탄에서 카안의 그 형태와 기능의
순수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호로서
그것을 쓰고 있다. 극히 최근의 재
료들이 고유의 표현을 위해 쓰여진
다. 콘크리트와 대리석. 카안에서
대리석은 여성이며 콘크리트는 힘
참이다. 하나는 힘을 다른 것은 아
름다움 칼라 그리고 창조를 준다.
창은 광선과 공기의 균형을 위해
선택된다. 한 인간이 자연을 완전
히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
열하는 태양아래 카안은 어떤 관점
은 자연에게 맡기고 있다.

개인으로서 카안은 그가 알고 있
는 형태에 대해서 시작단계에 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카안에게
있어서도 지식이 전혀 애기치 않던
결과를 야기한다. Rome과 Piranesi
에 관한 연구, 유럽의 정원에 관한
서적의 탐독은 유명하지만 그가 좋
아하는 Scottish정벽에 있는 구멍들
로부터 그의 정신을 일깨우는 창조
적 마음의 독특한 신비는 열린다.

지난 수년동안 카안의 건축은 지
배력에 있어서 성장하였으며 이전
의 어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
부해졌다. 그의 말처럼 그의 건축
은 “살더미같은 것과 악인과 선인,
그리고 어른과 아이를 함께 머무르
게 한다”. 엄격한 기하학적·구조적
·회화적 훈련, 타고난 소박한 힘,
끊임없는 영혼의 울림, 고품을 기
억하는 시정들은 지금 화려하게 바
뀌었으며 광활하고 고요한 모습으
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가 당황하
는 것은 그가 쉽고 당당하기 때문
이다. 그간의 카안의 노력은 전력
을 다하여 몸 전체로 부딪혀온 고
뇌와 모험을 통해 이제 미국건축의
품위를 보이는 것이 되어있다. 그
것은 장년기에 있는 건축가의 변모
며, 위대한 몇 해였다. 카안의 말을
다시 들어보자. “자연은 예술을 만
들지 않는다. 환경의 법칙을 따를
뿐이다. 인간이 예술을 이룬다. 선
택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필
요보다 작은 출입구를 두거나 맑은
하늘이 암흑을 통하여 보이도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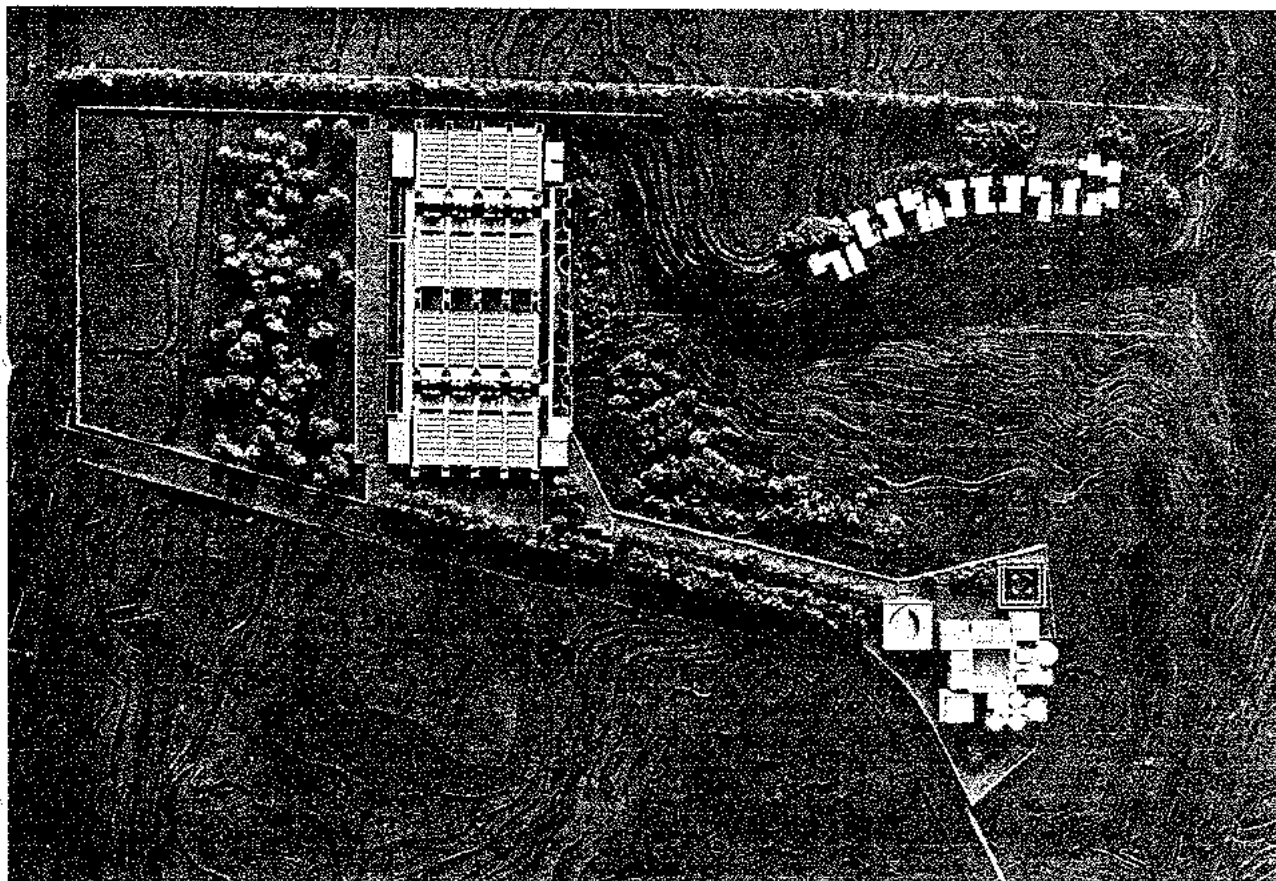
“개인적인 감정이 종교라는 형태로
변하고 사고가 철학이 될 때 우리
마음은 현실화하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이건 공간에 대한 어느 특성의
건축적 이미지의 존재의지는 실현
된다. 건축은 모든 상태의 조화며
질서의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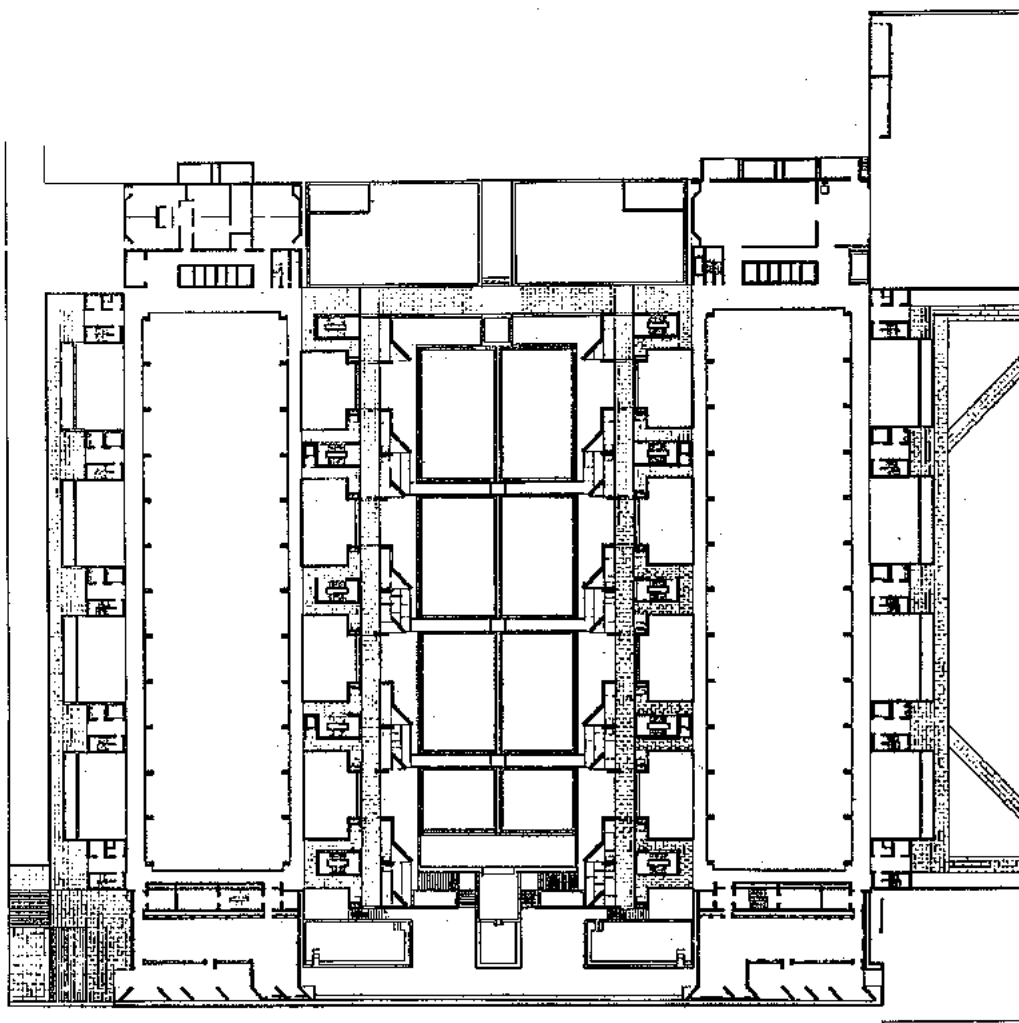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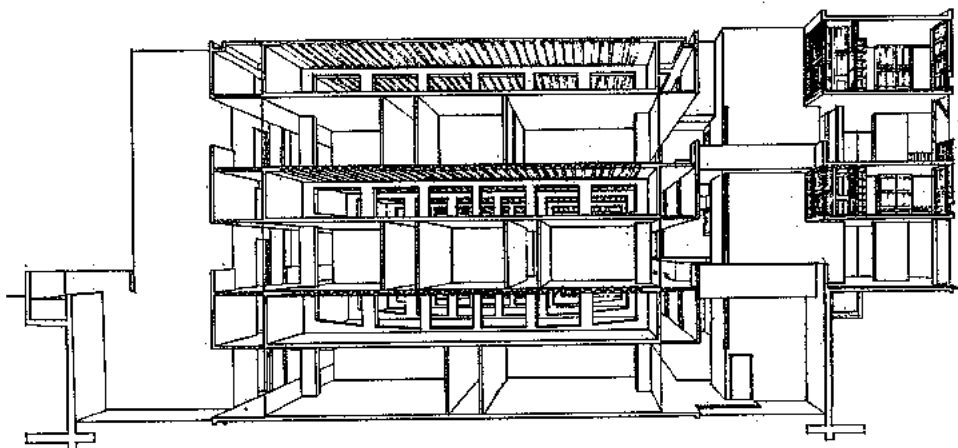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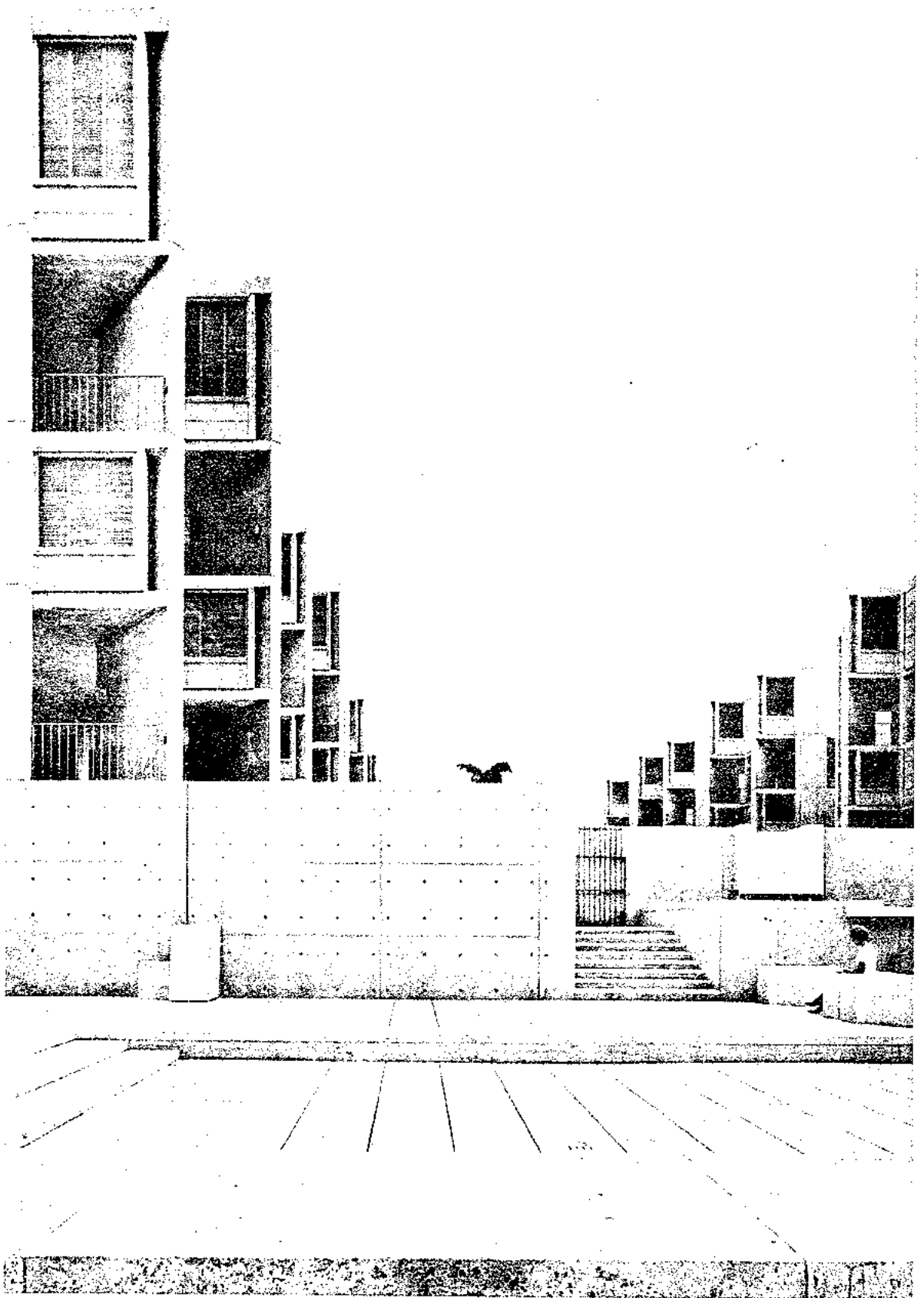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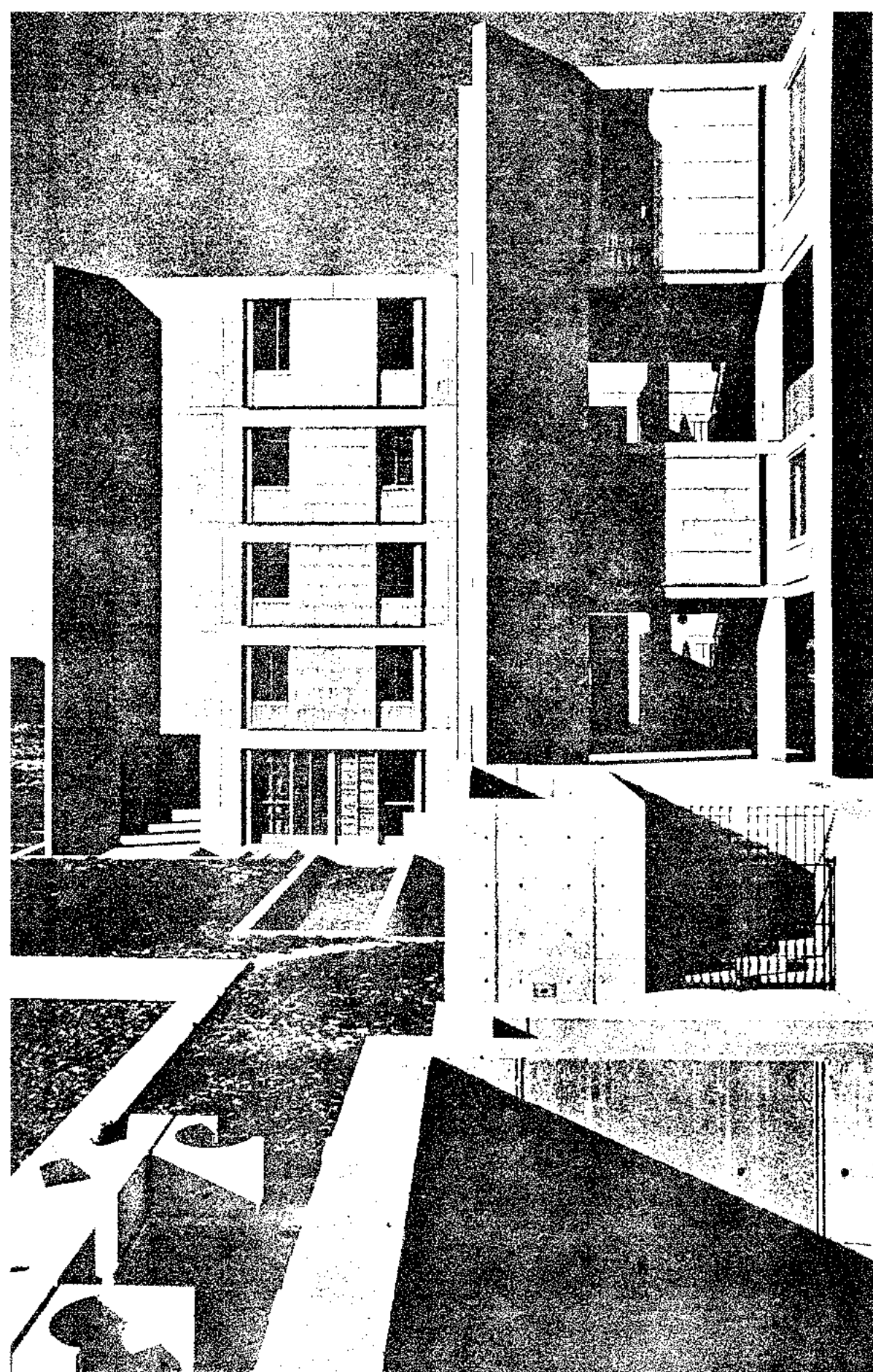
G-1
G-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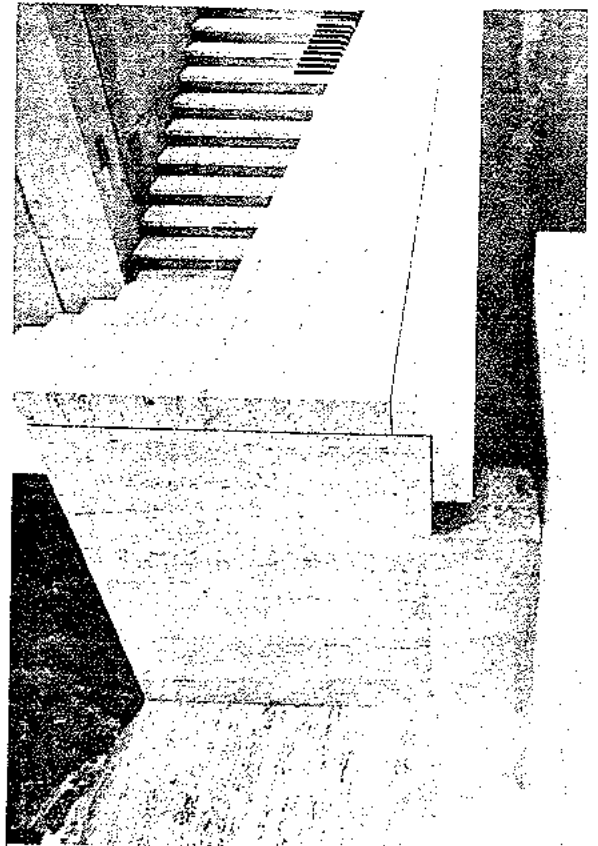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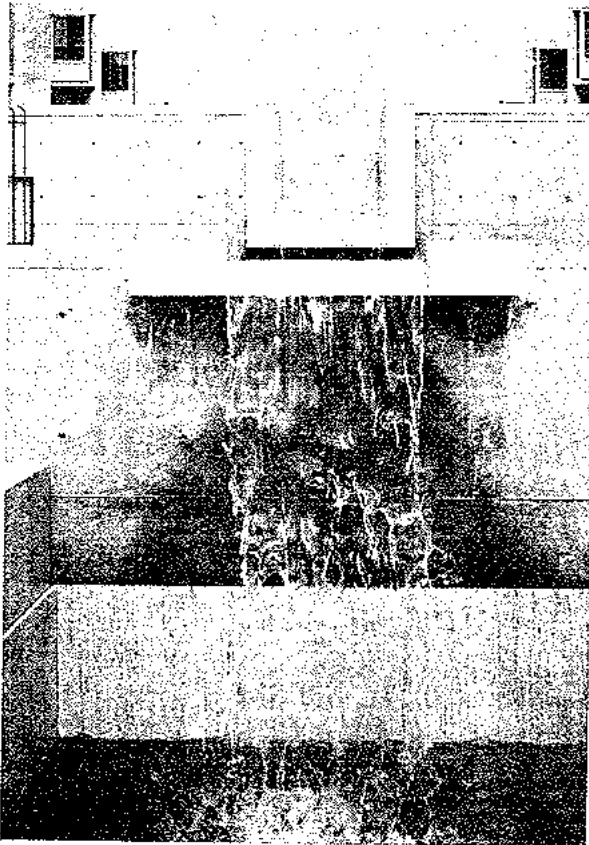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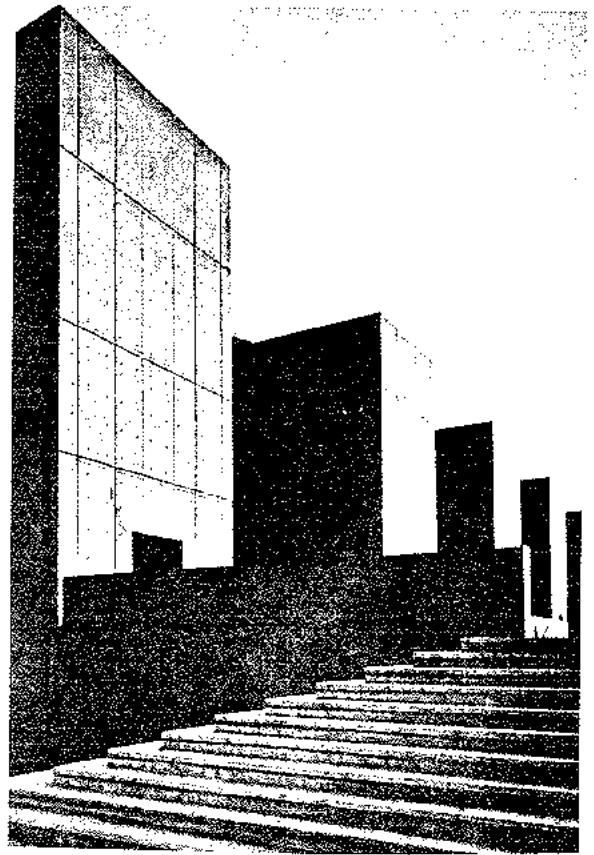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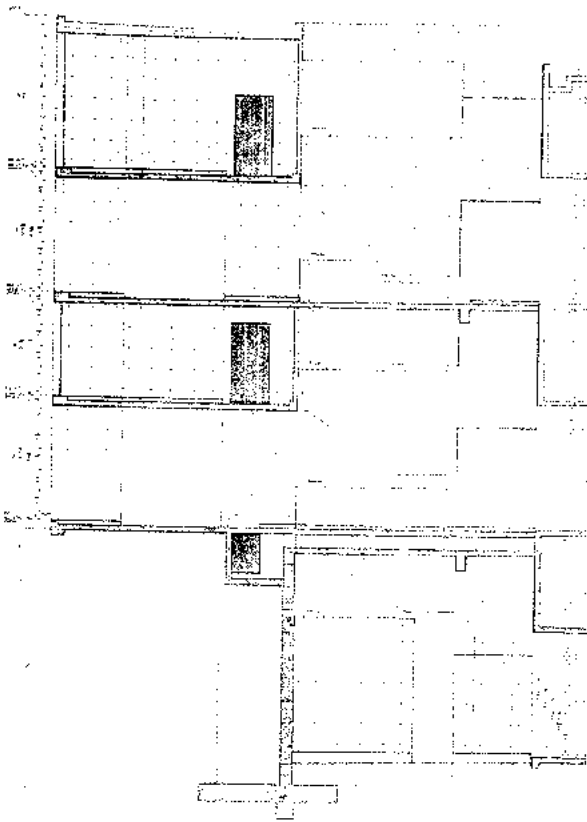
George Pold
George P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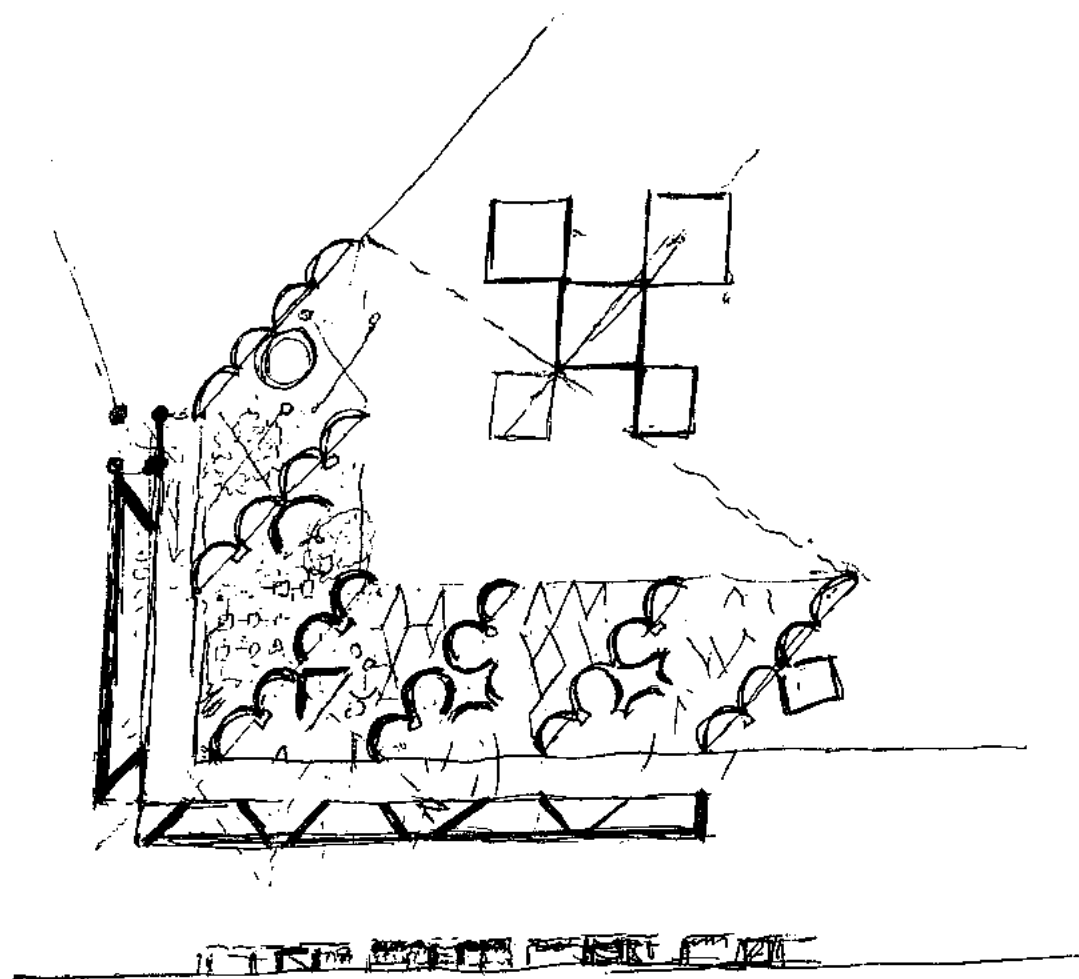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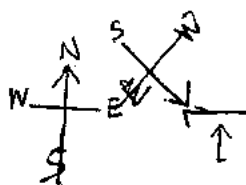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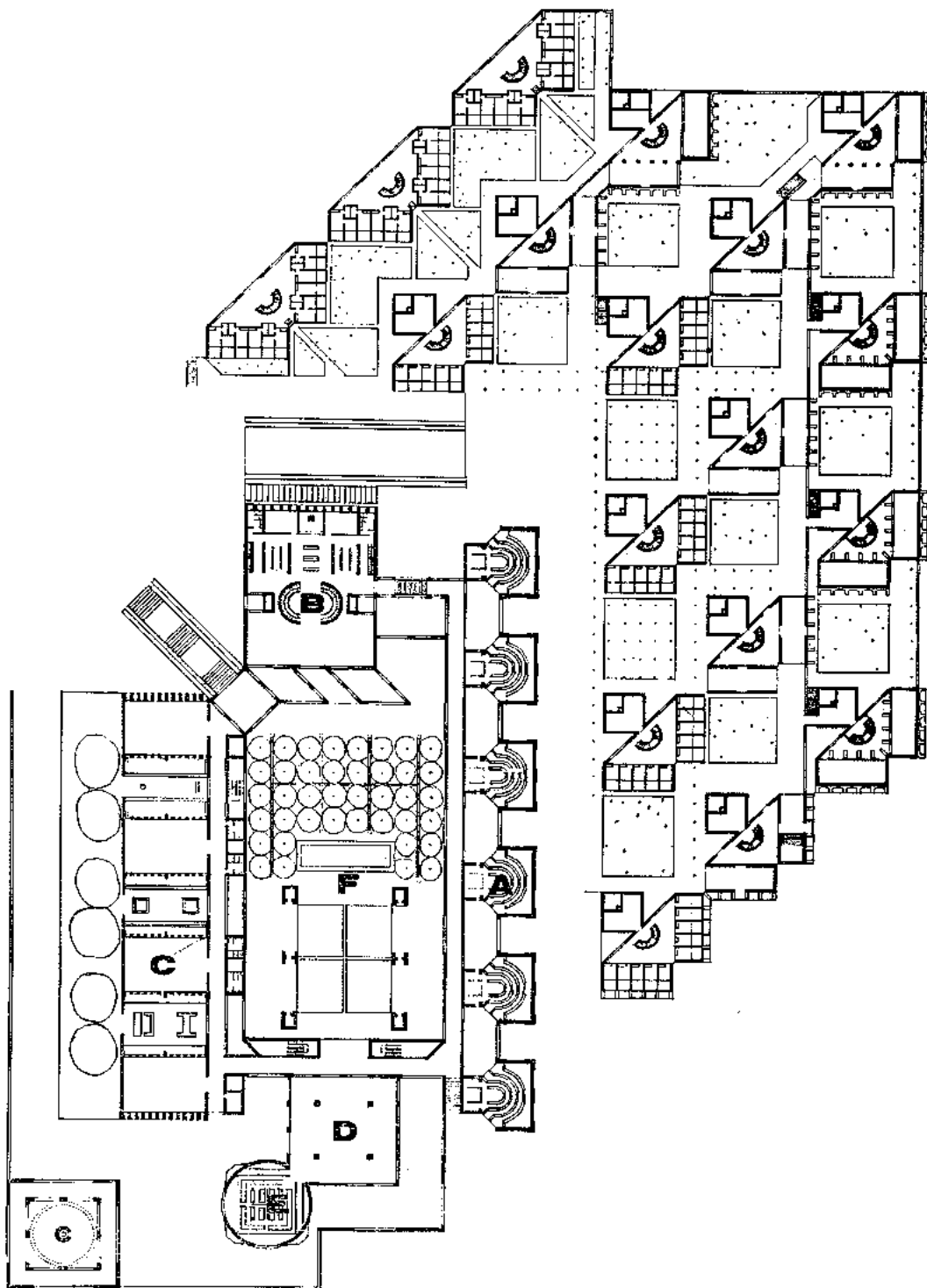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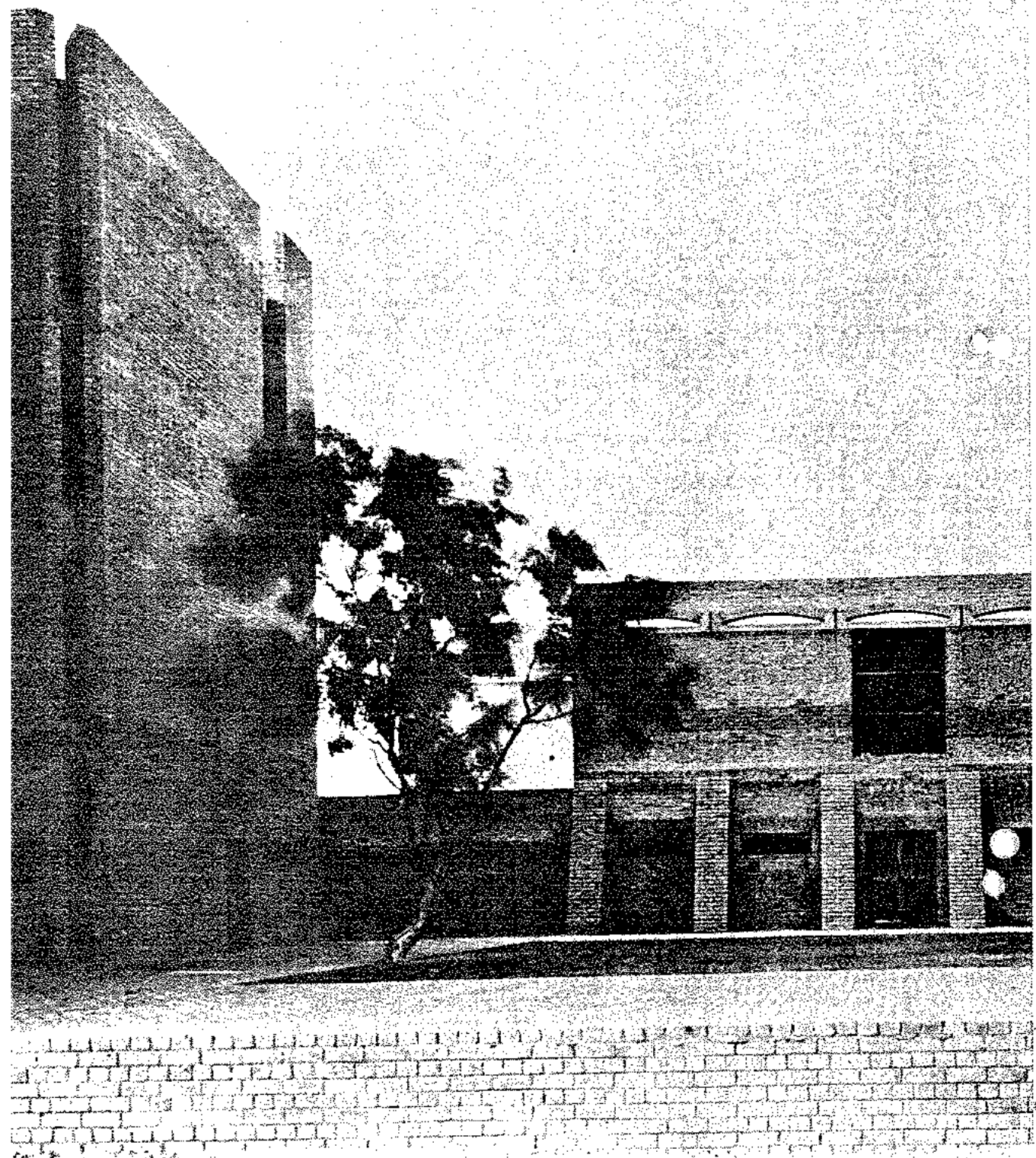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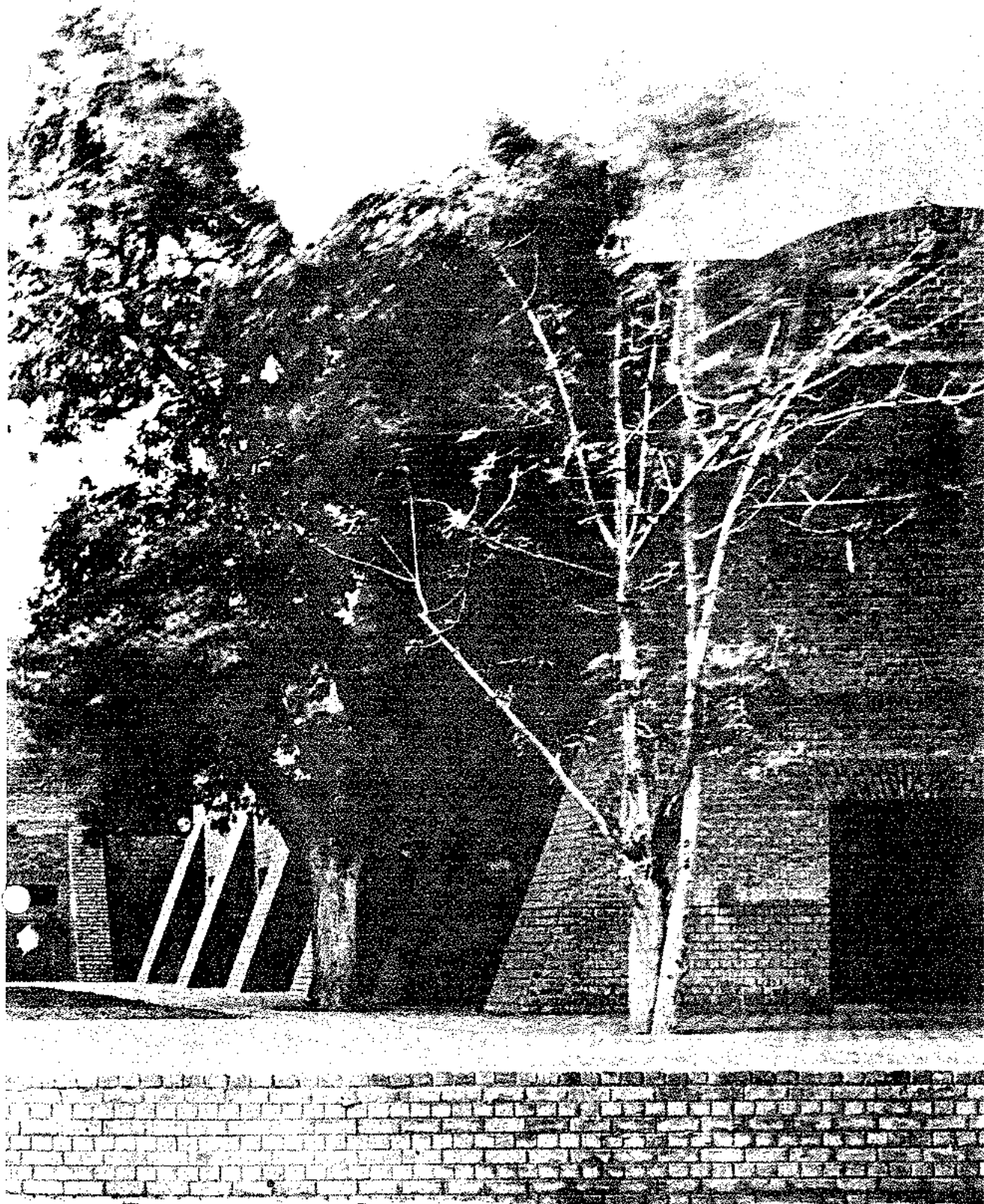
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Indi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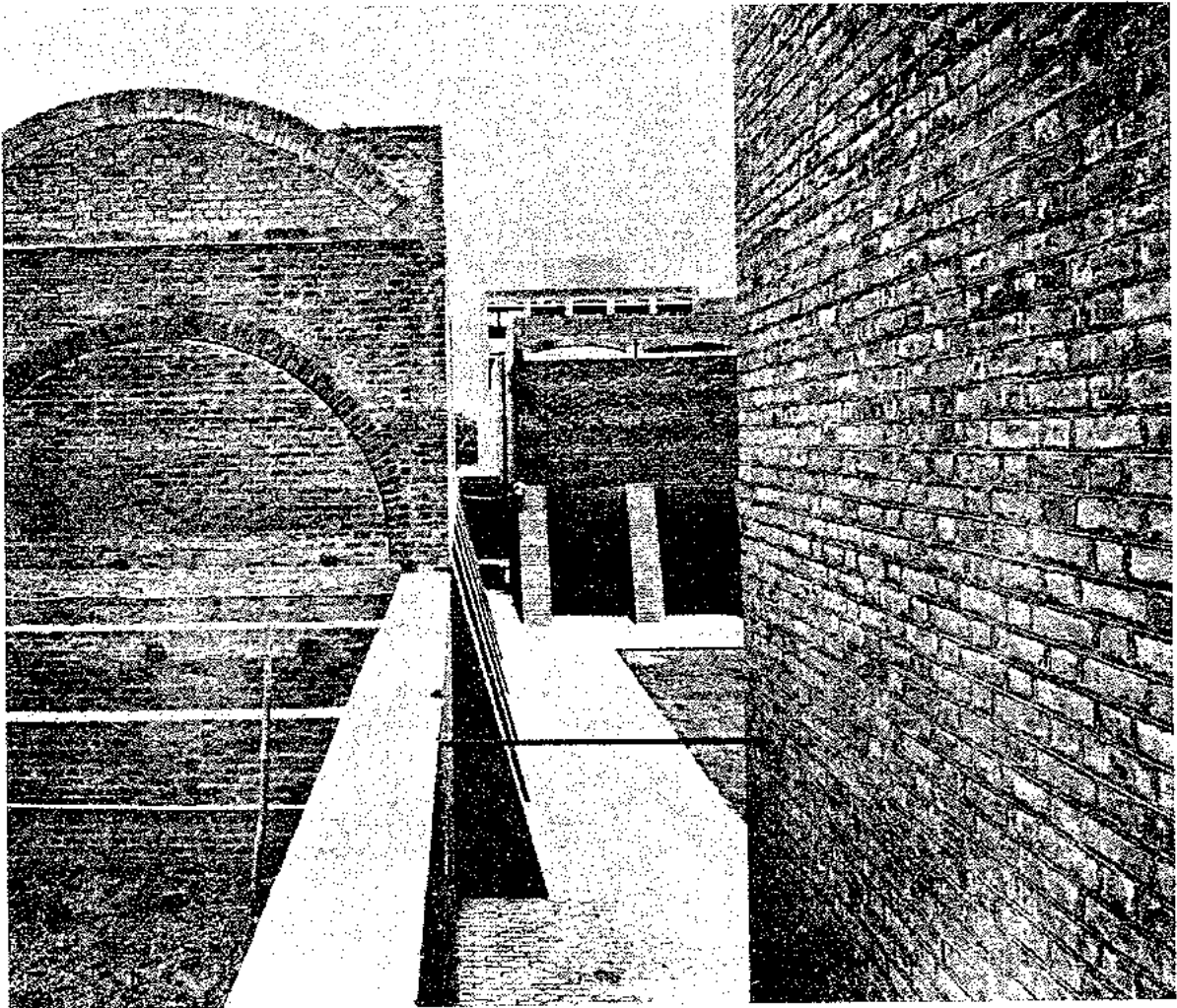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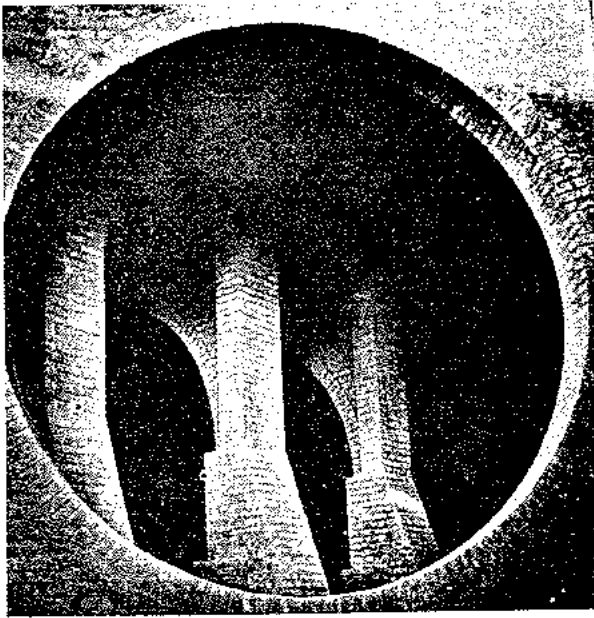
Scheme as indicated by
Victor Sarabh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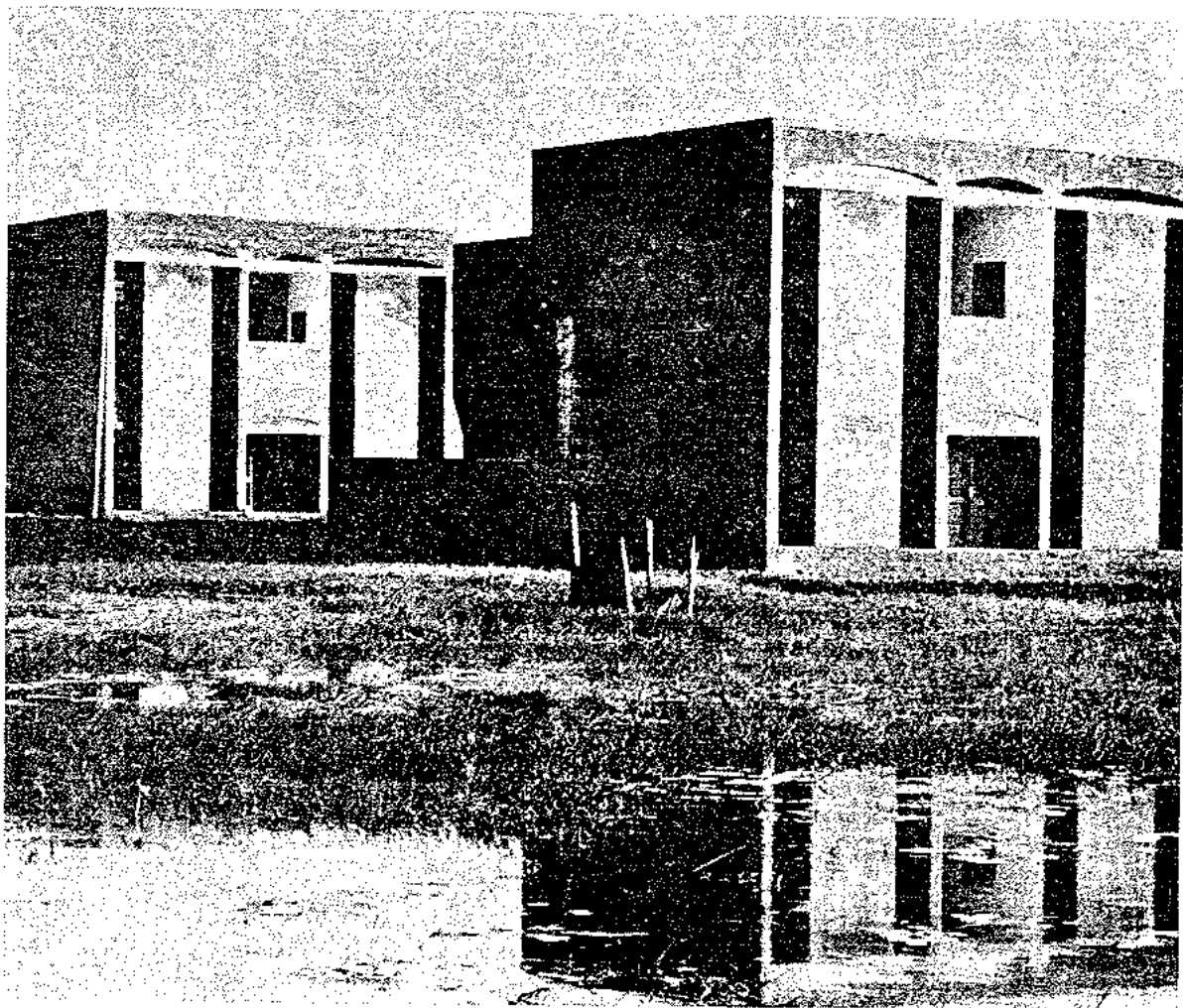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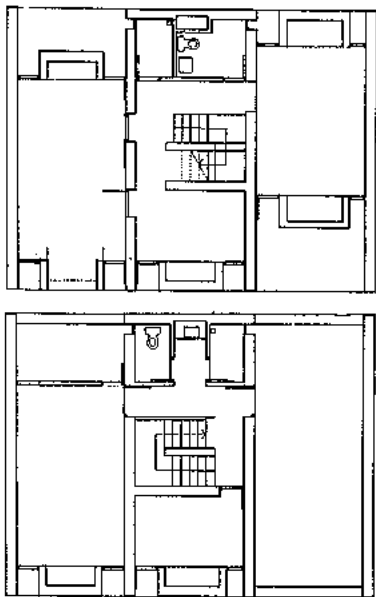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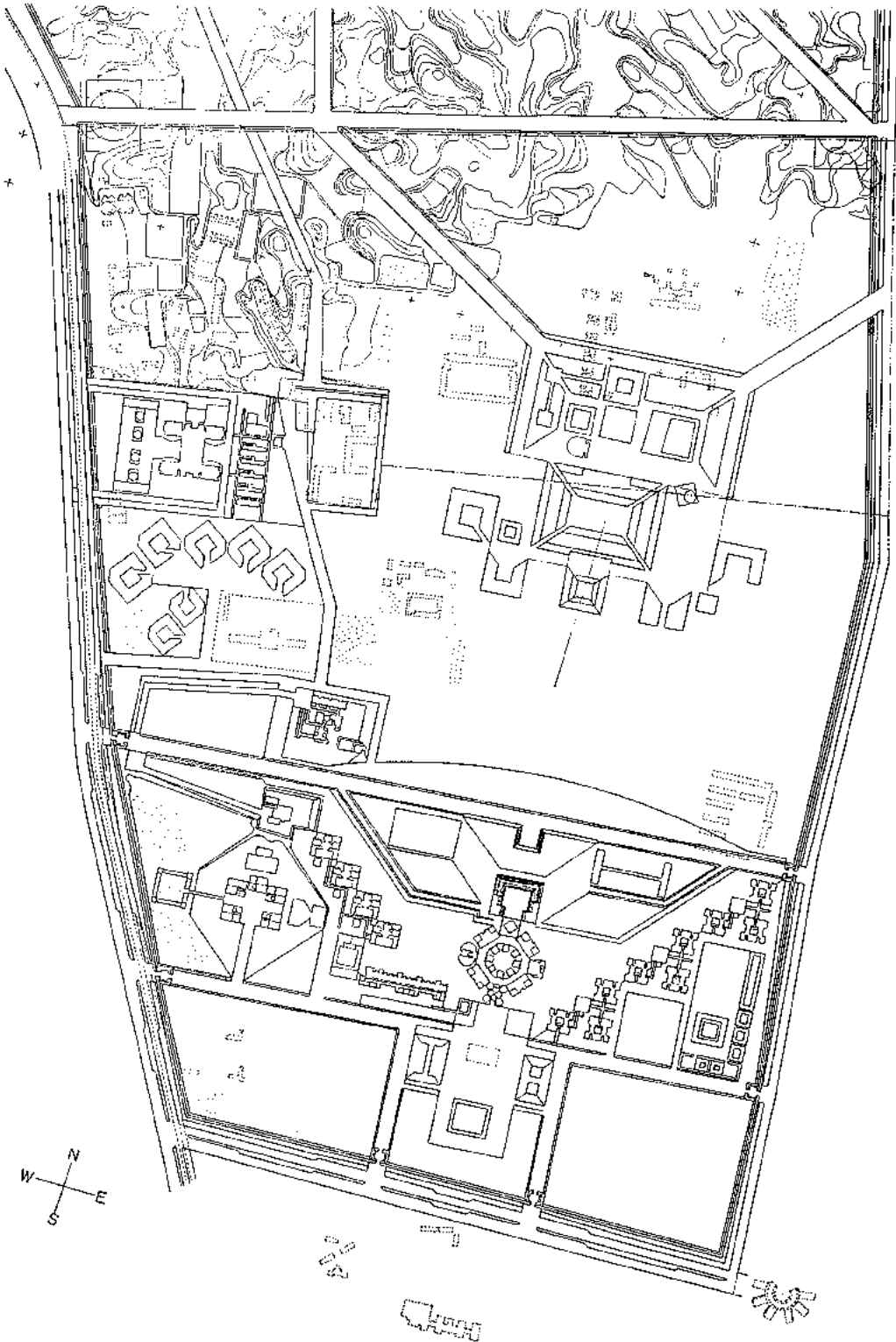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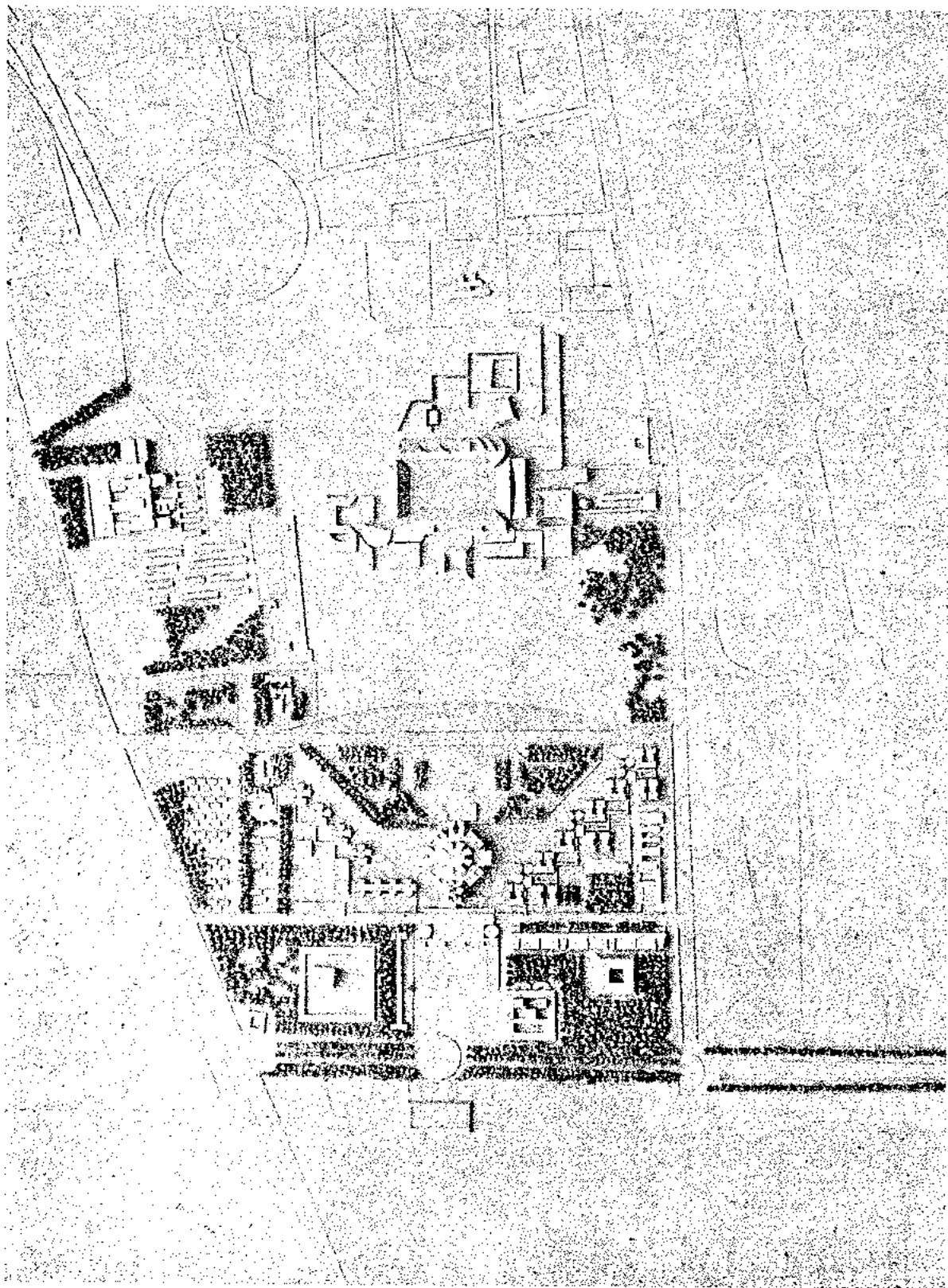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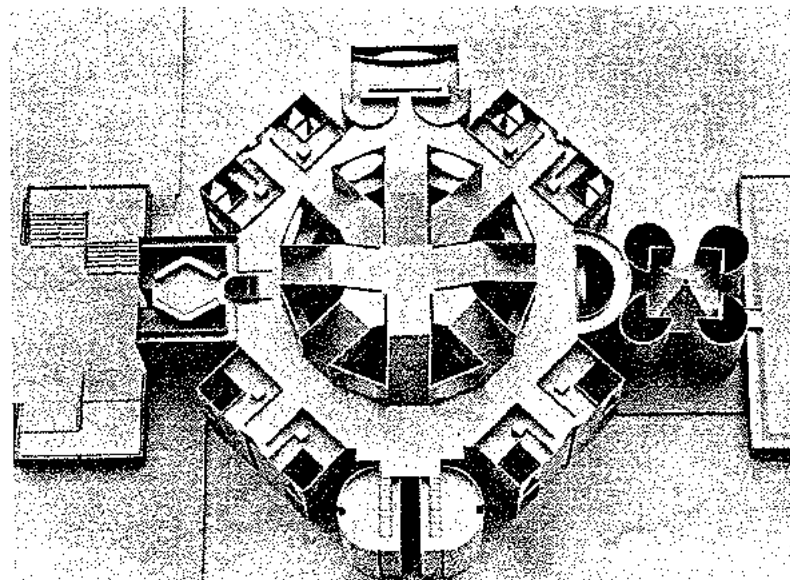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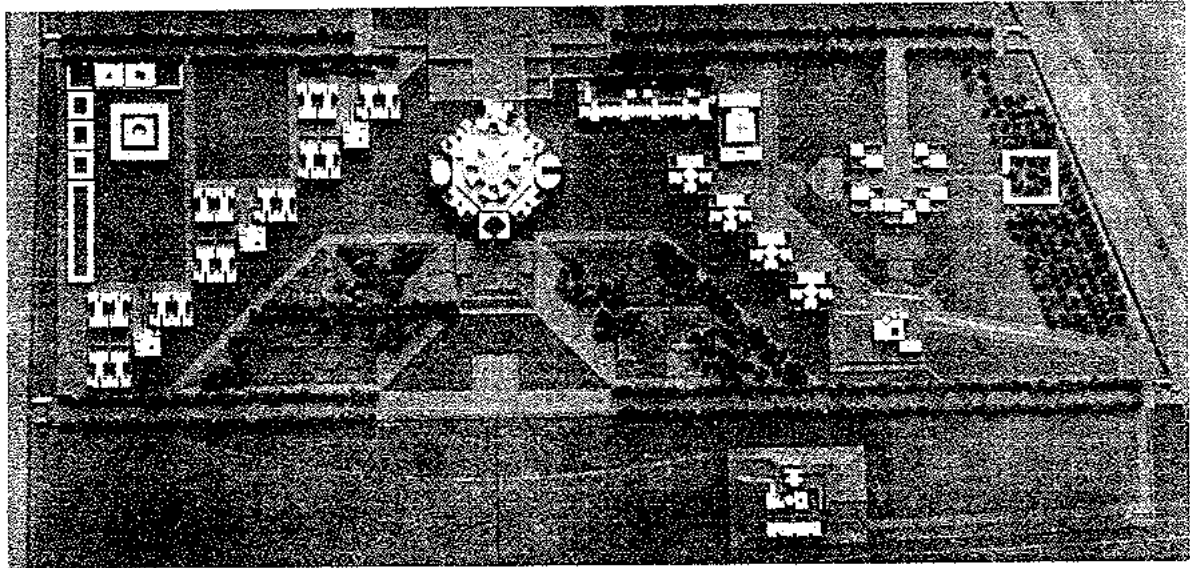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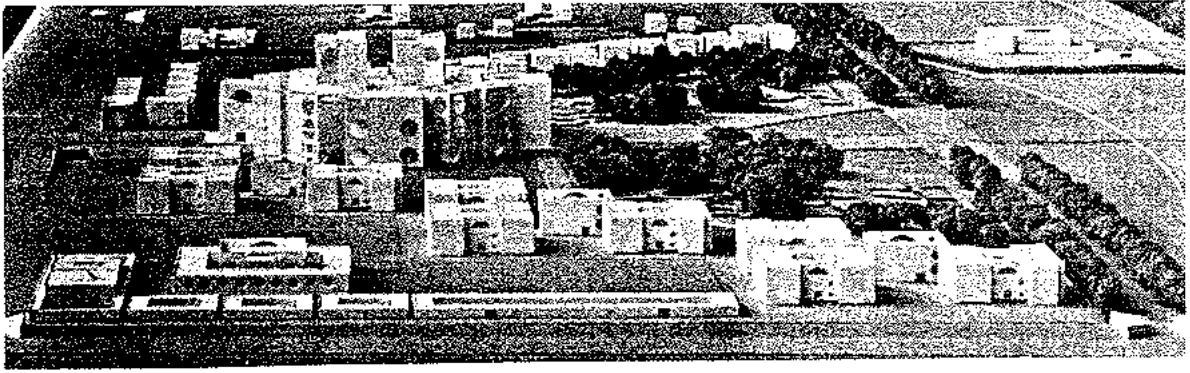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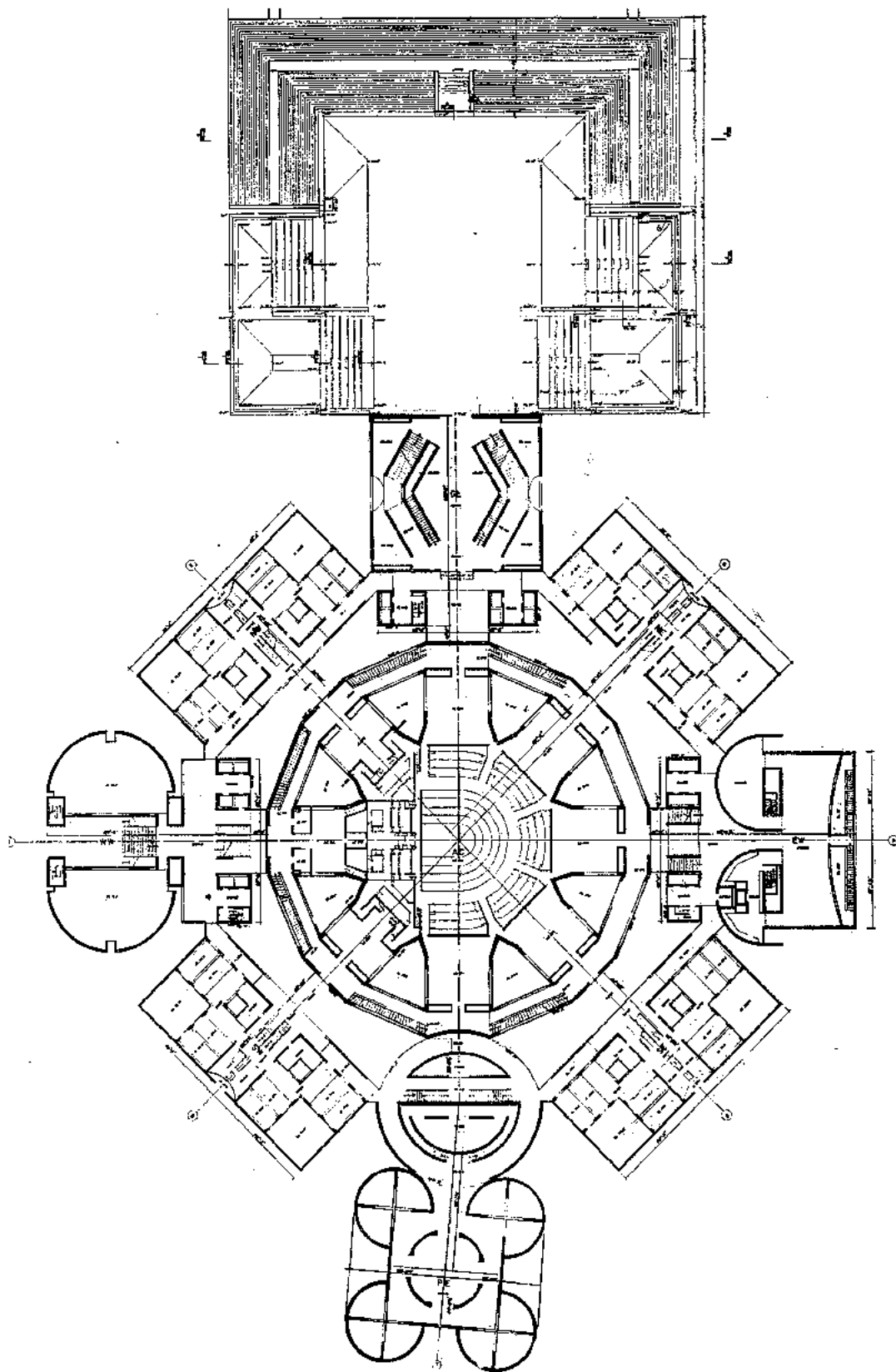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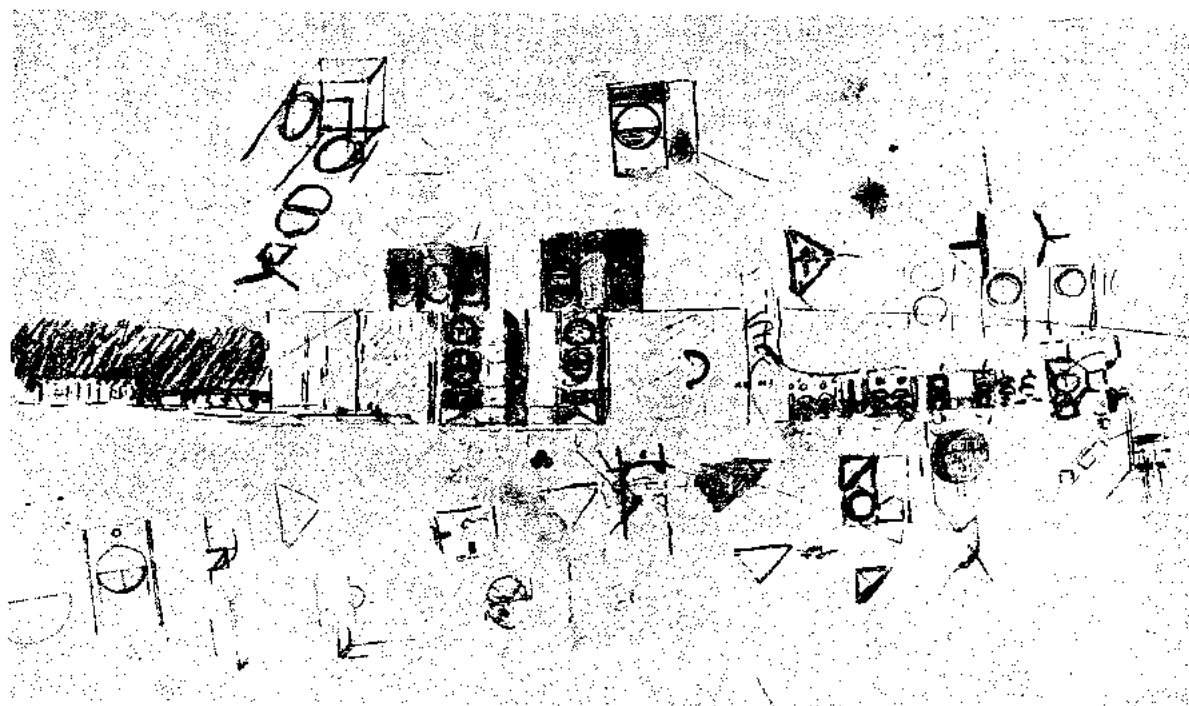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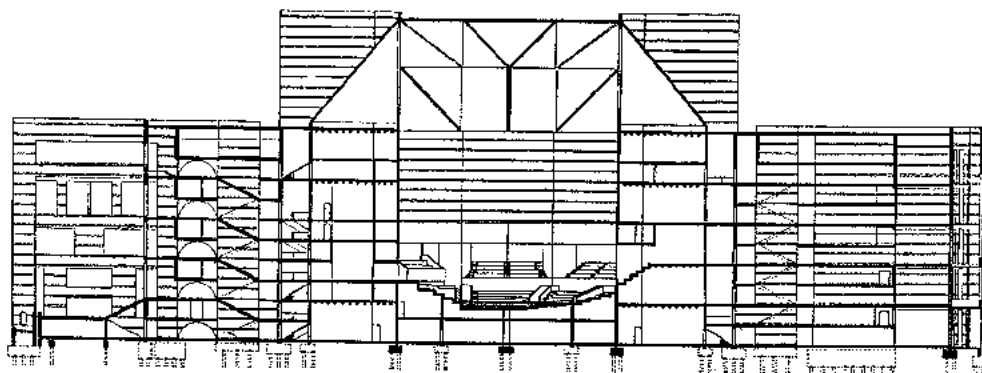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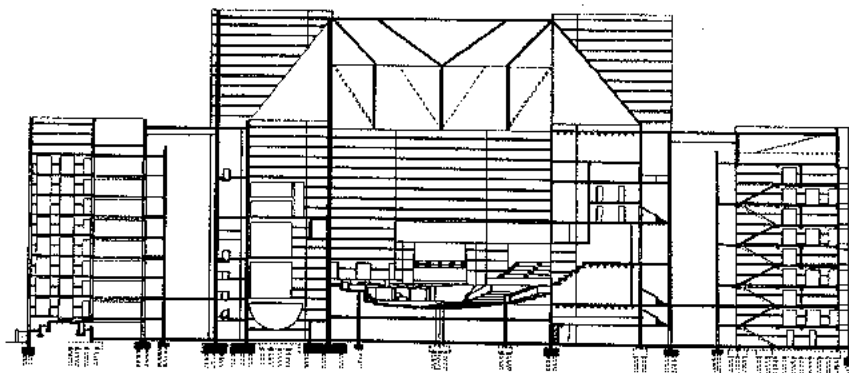
동파키스탄 제 2 수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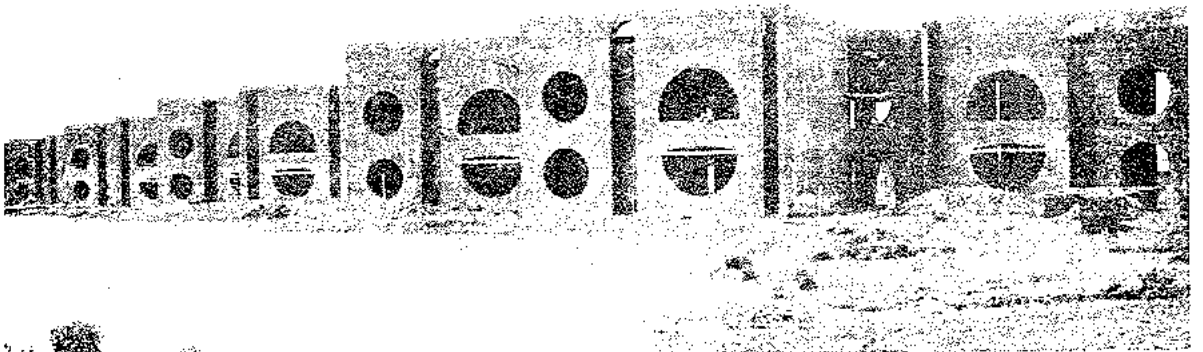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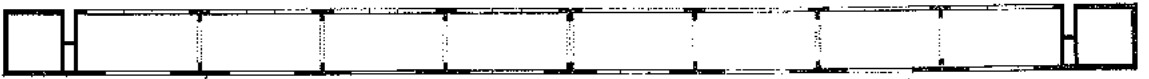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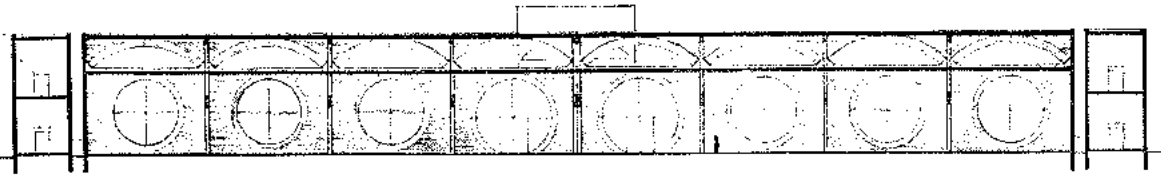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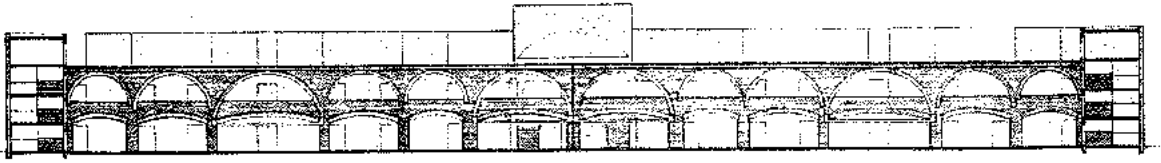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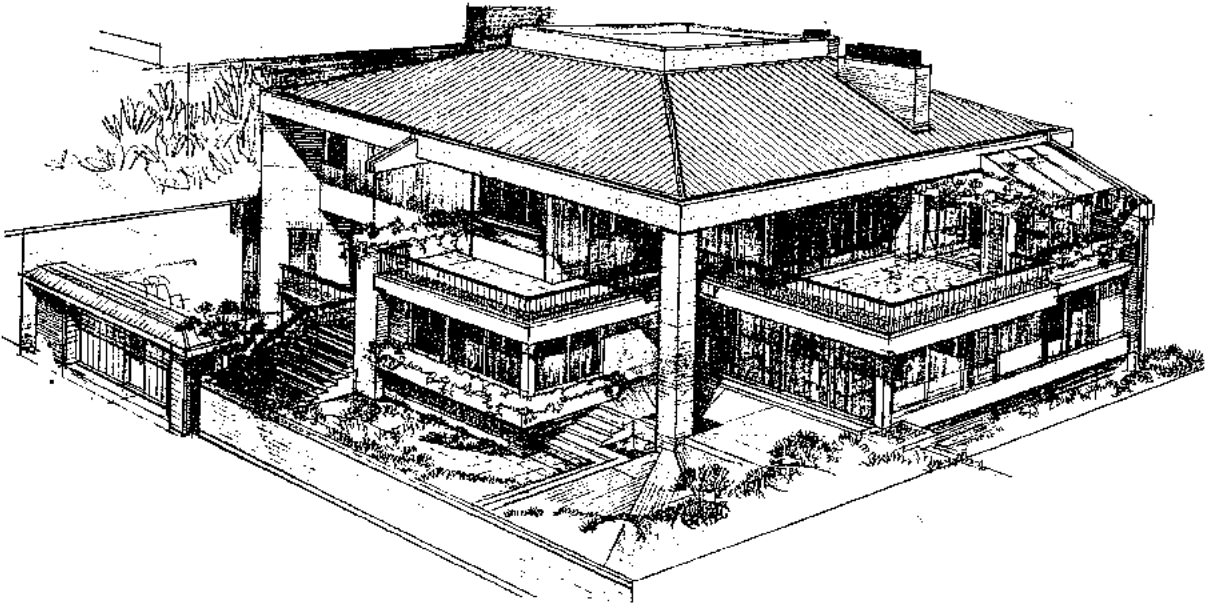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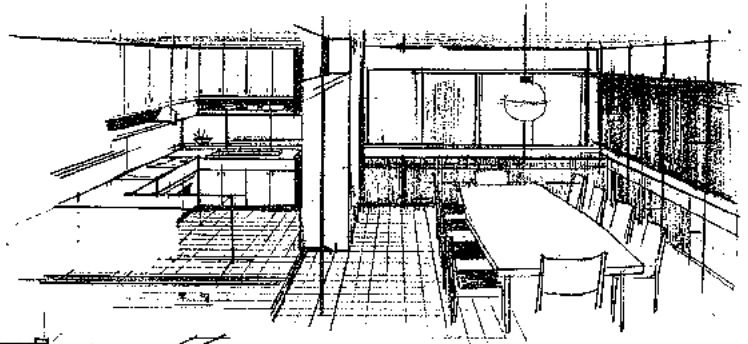
회원작품

C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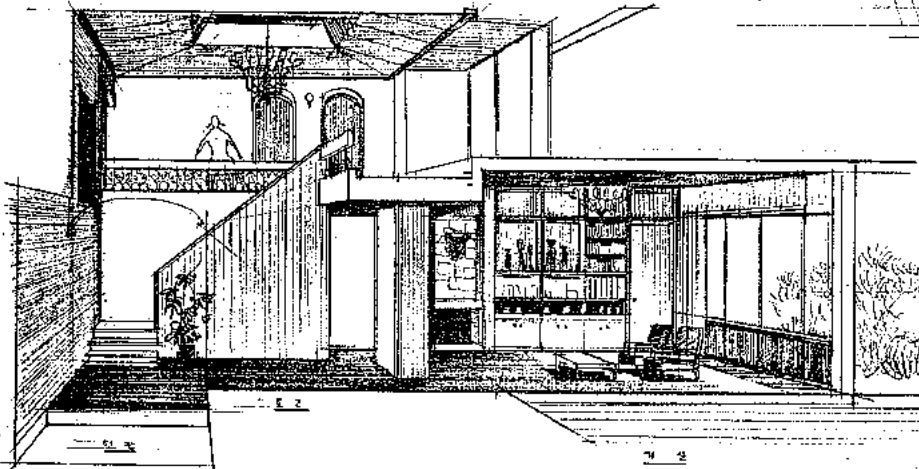
일양공방
원정수+지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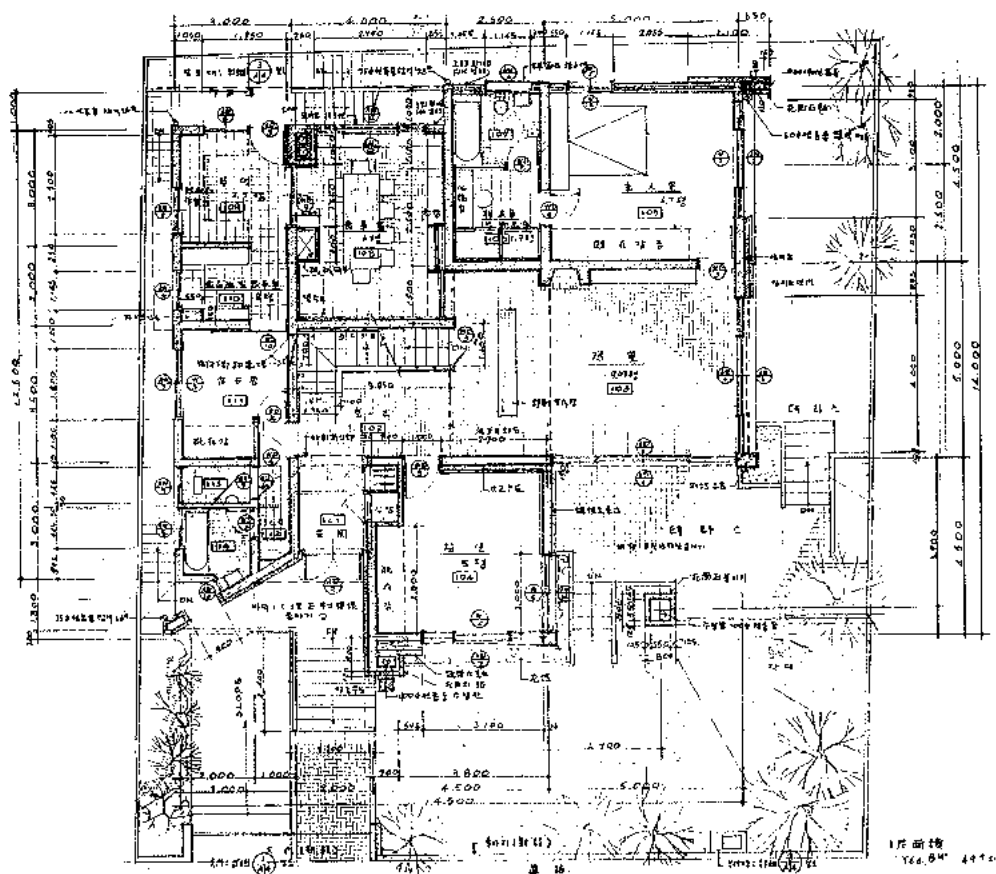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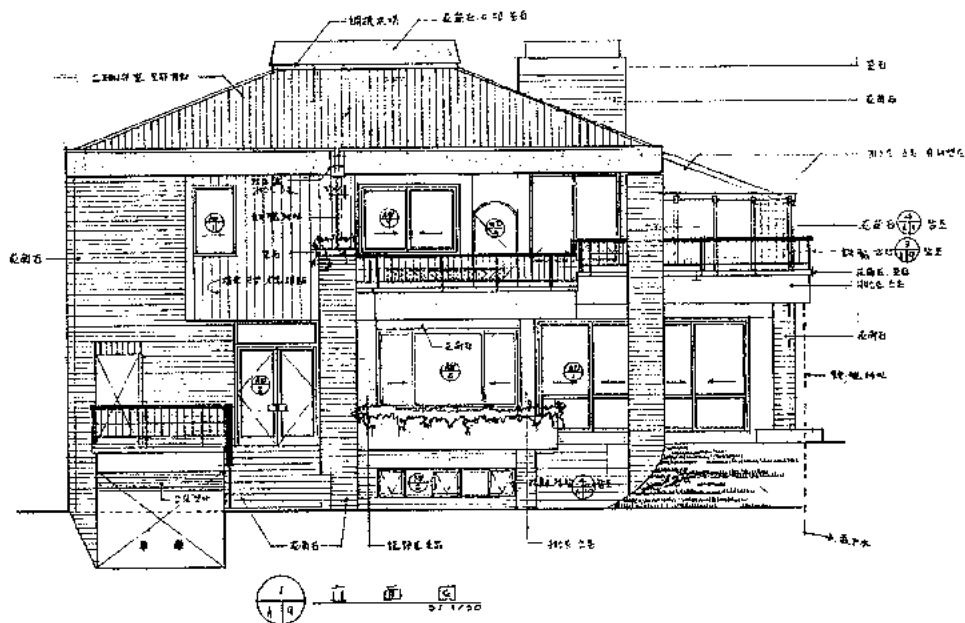
신문로 집
위치 : 서울 종로구 신문로
면적 : 1층 164M² 2층 127M²
기타 144M² 계 435M²
구조 : 벽돌, 내력벽조
스페니쉬 기와지붕
설계 : 일양건축공방



식.당



거.실



C.M.B.A. 빌딩

아도무건축연구소

장석웅

CHIMTOP EL.48.000

PENT.TOP EL.48.500
PENT.ROOF EL.48.030

PENT.2ND.F. EL.42.630

PENT.1ST.F. EL.37.950

SKY LOUNGE
10TH. F. EL.33.850

9TH. F. EL.30.500

8TH. F. EL.27.150

7TH. F. EL.23.750

6TH. F. EL.20.350

5TH. F. EL.16.950

4TH. F. EL.13.550

3RD. F. EL.10.150

2ND. F. EL.6.750

1ST. F. EL.1.200

G.L. EL.0.000

STAIR
TOP. EL.41.000
STAIRROOF EL.40.700

플로이드로바, 거점식
수직계단부 마감

프린트스톤 플로어
상세도면 참조

고층부스틸구조로 완성
시공준비중

기둥, 보, 부속 마감

일부 마감처분
상세도면 참조

한시공정수 12개 층에
프린트스톤 마감
상세도면 참조

16개 층의 부속 마감
상세도면 참조

24 x 145 x 45 유리문
상세도면 참조

기둥, 벽 마감

부속 마감, 유리문
상세도면 참조

프린트스톤 마감
상세도면 참조

16 x 145 x 45 유리문

12개 층 마감
상세도면 참조

대형 유리문
상세도면 참조

16 x 145 x 45 유리문

16개 층 마감

프린트스톤 마감

프린트스톤 마감
상세도면 참조

-1ST. F. EL.-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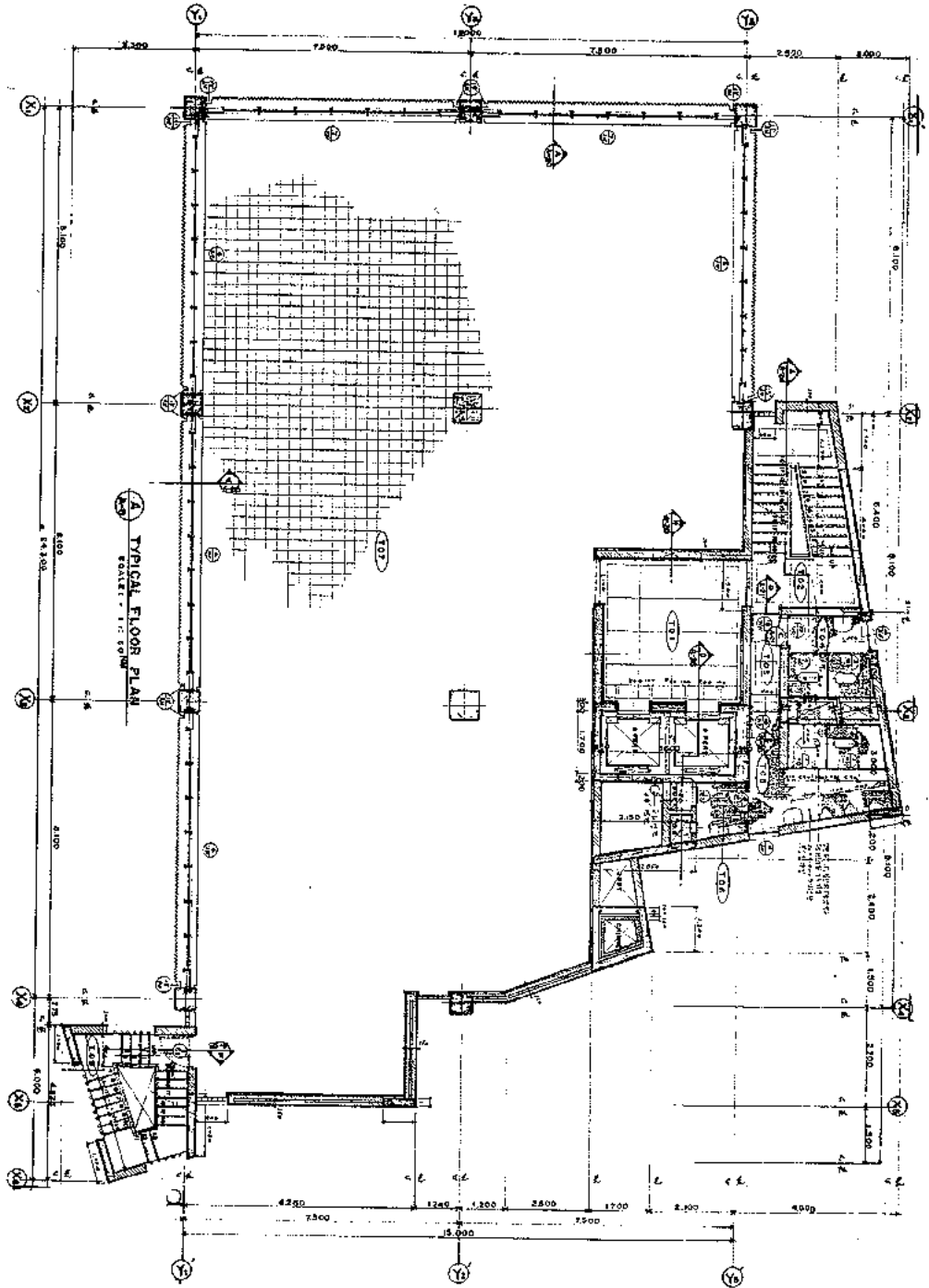
-2ND. F. EL.-5.700

FOOTING
BASE EL.-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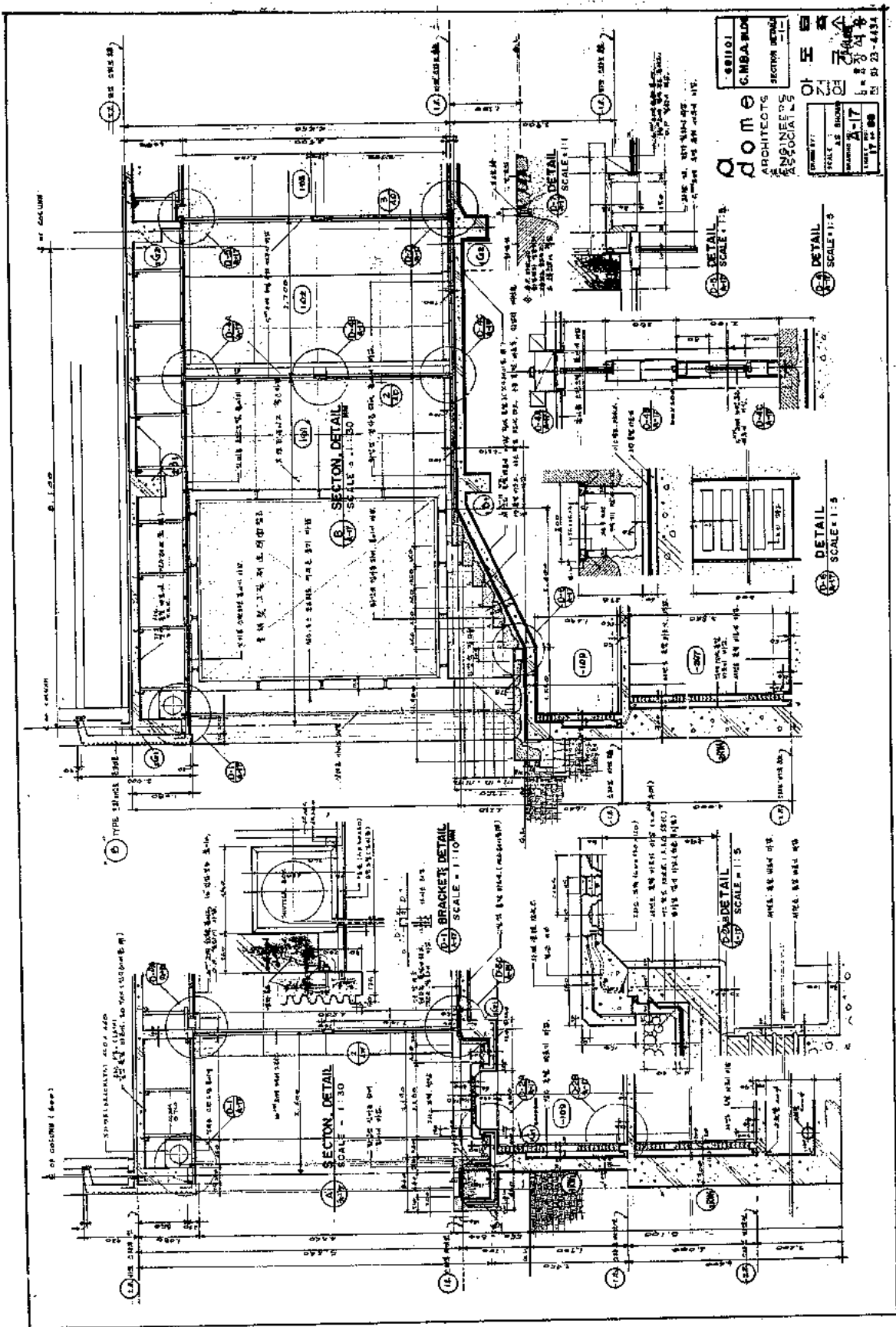
WEST ELEVATION

44412 * 1:100



설계 개요: 창호가 있는 외부벽은 PRE CAST CONCRETE로서, 시공시 조립하여 工期를 단축케 하였다. 외부는 콘크리트 기둥을 EXPOSED CONCRETE로 노출시켜, 외벽 PRECAST CONCRETE의 거친 외면 효과와 함께, 건설 공세 조합 외관으로서의 믿음성과 묵직한(重厚) 맛을 풍겨 준다.

건설 공세 조합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설계: 張 錫雄(아도-무 건축연구소 대표)
 구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주
 면적: 약 150평
 규모: 지하 2층, 지상 10층
 기준층: 133.6평 합계: 1,668평



K사장격

한남동 "K"사격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설계: 張錫維(아도-무건축연구소 대표)

구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일부 복조

기화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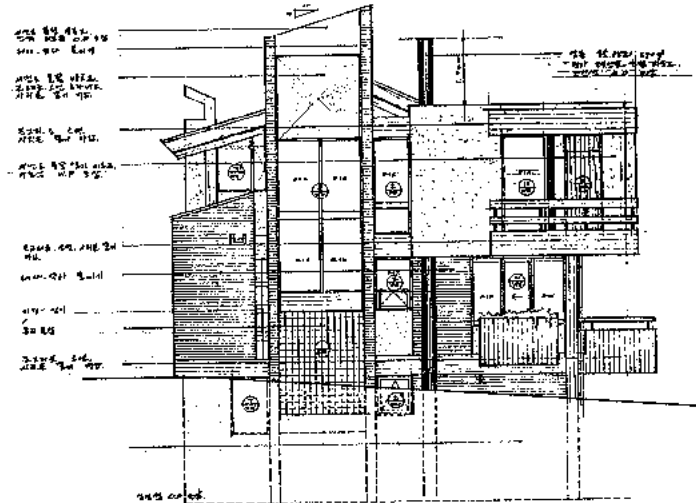
대지: 약 90평

규모: 지층 23.7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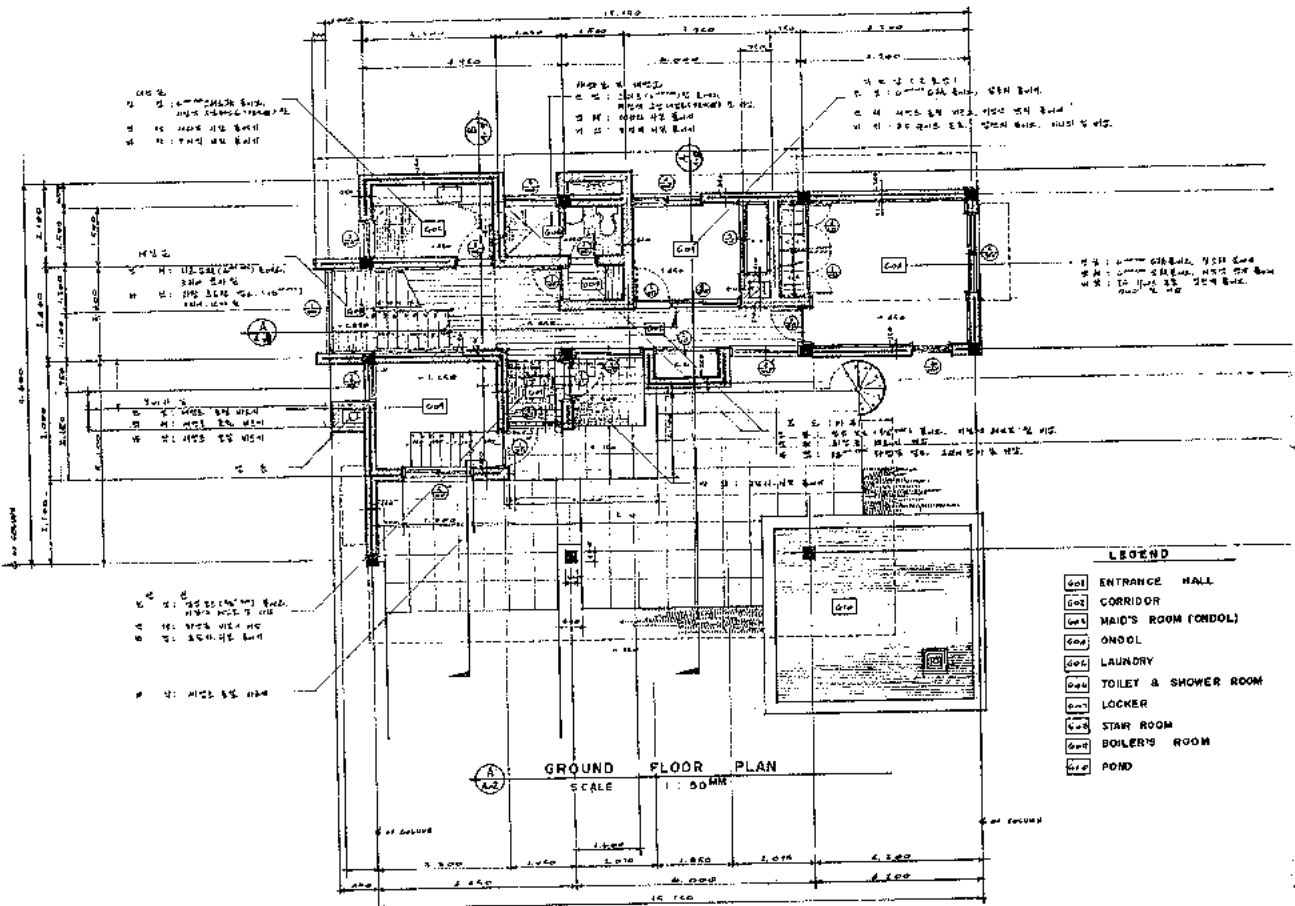
1층 35.4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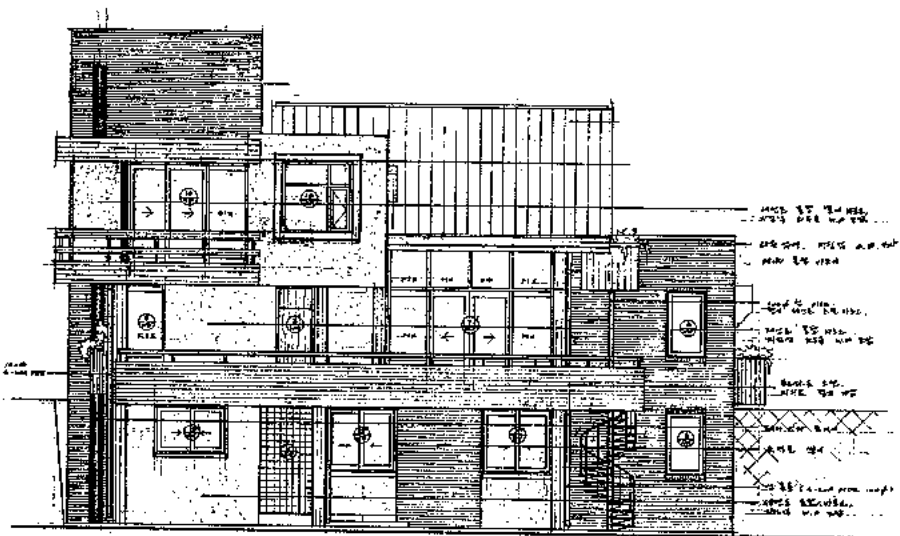
2층 24평

합계 83.1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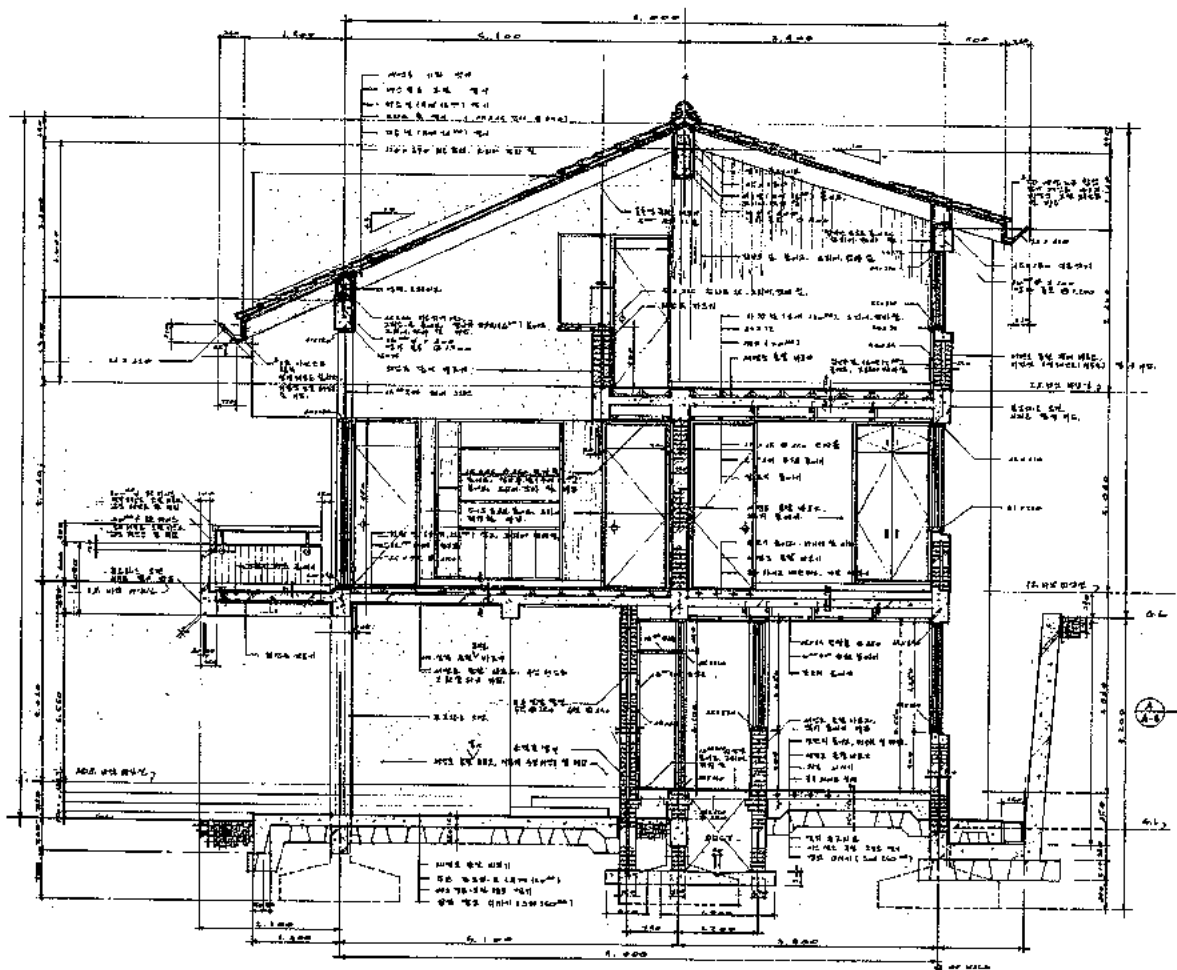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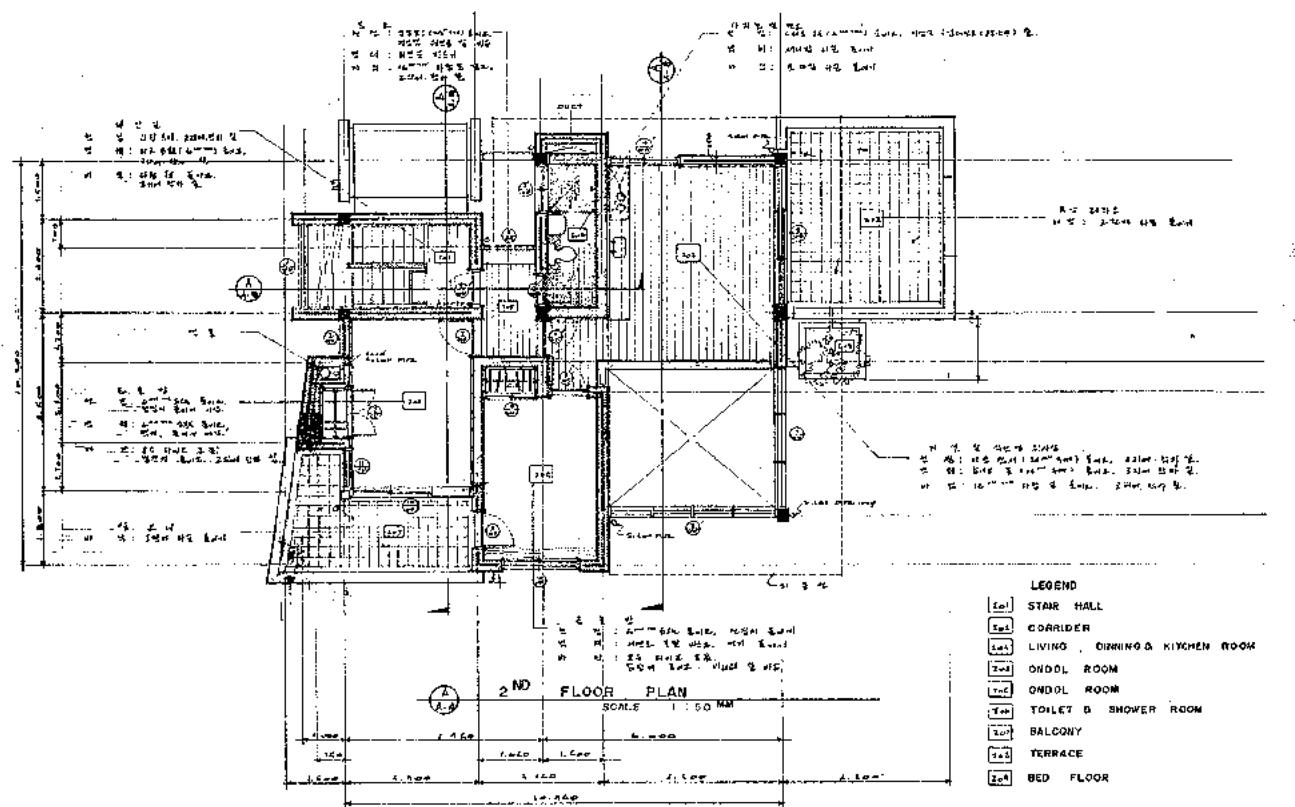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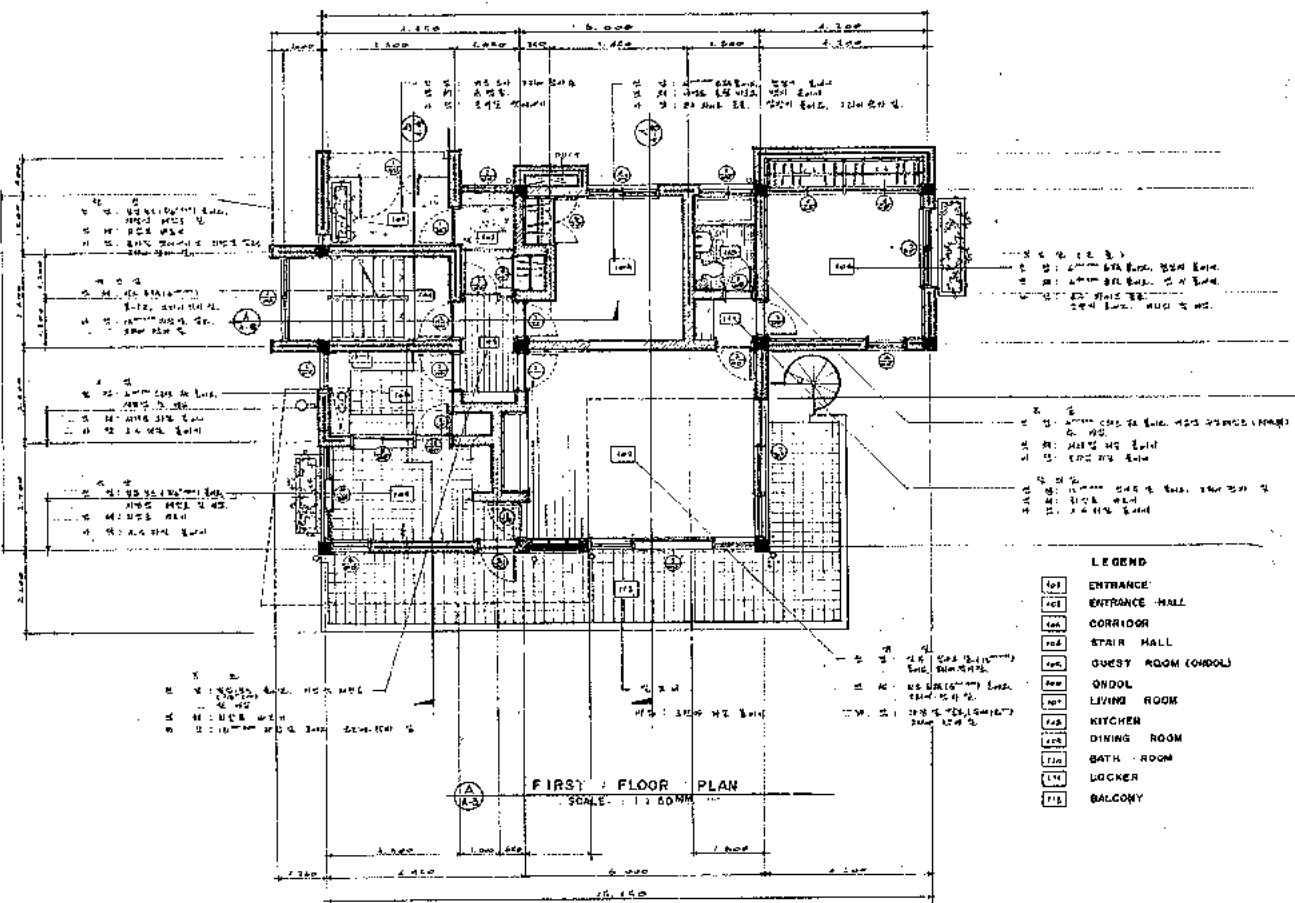
NORTH ELEVATION
SCALE: 1: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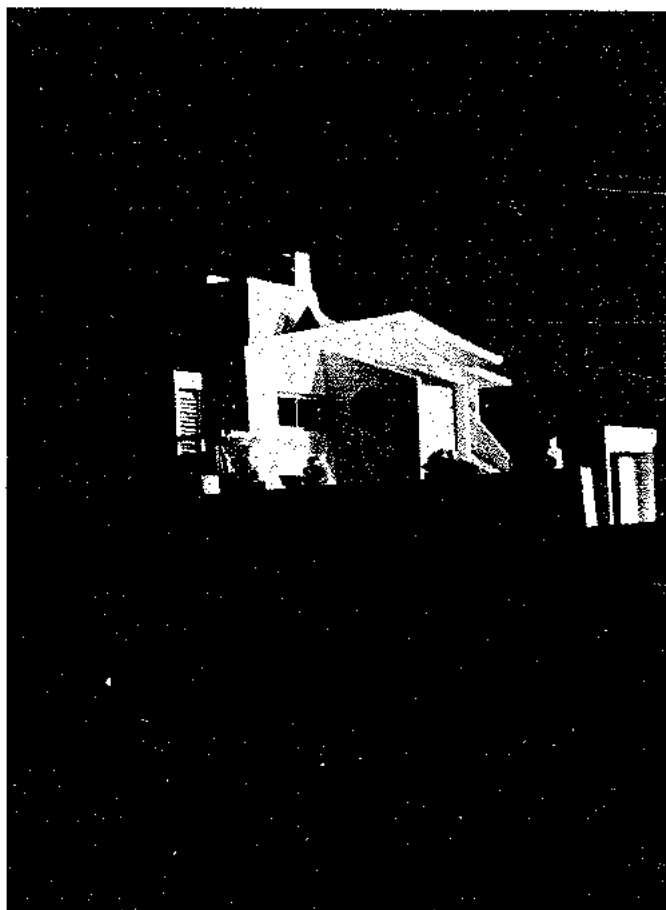
WEST ELEVATION
SCALE: 1: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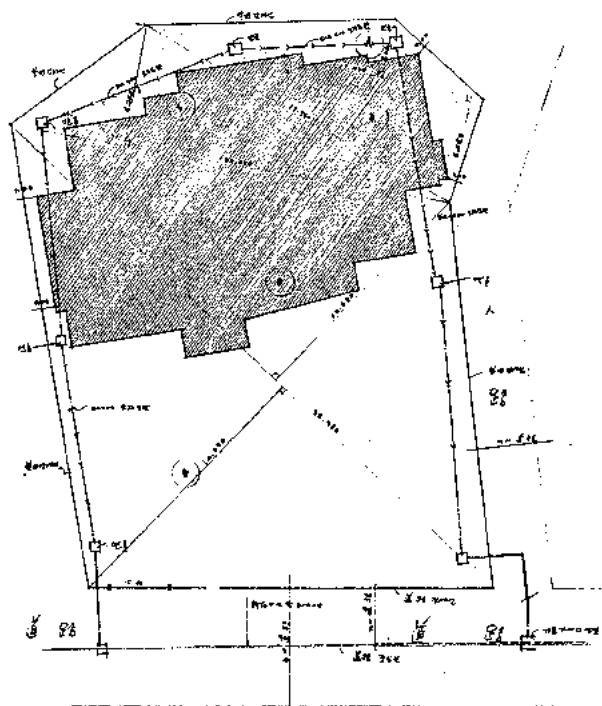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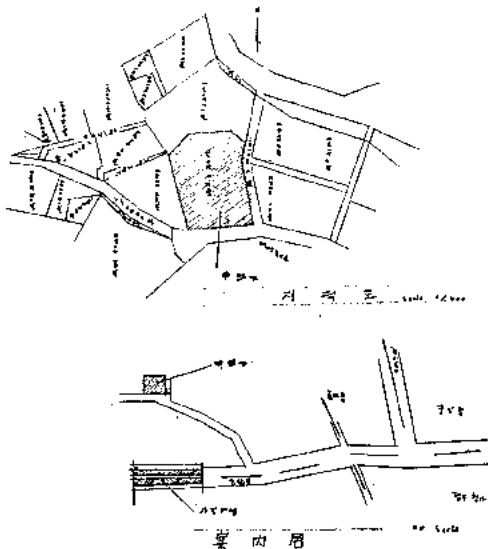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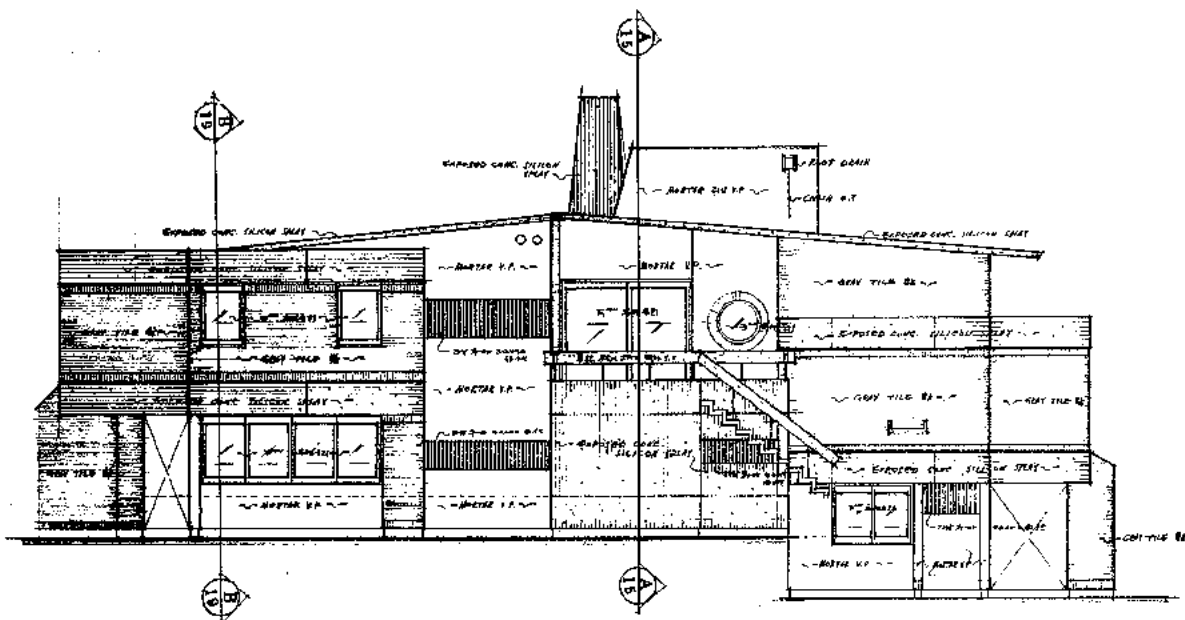
김씨집

최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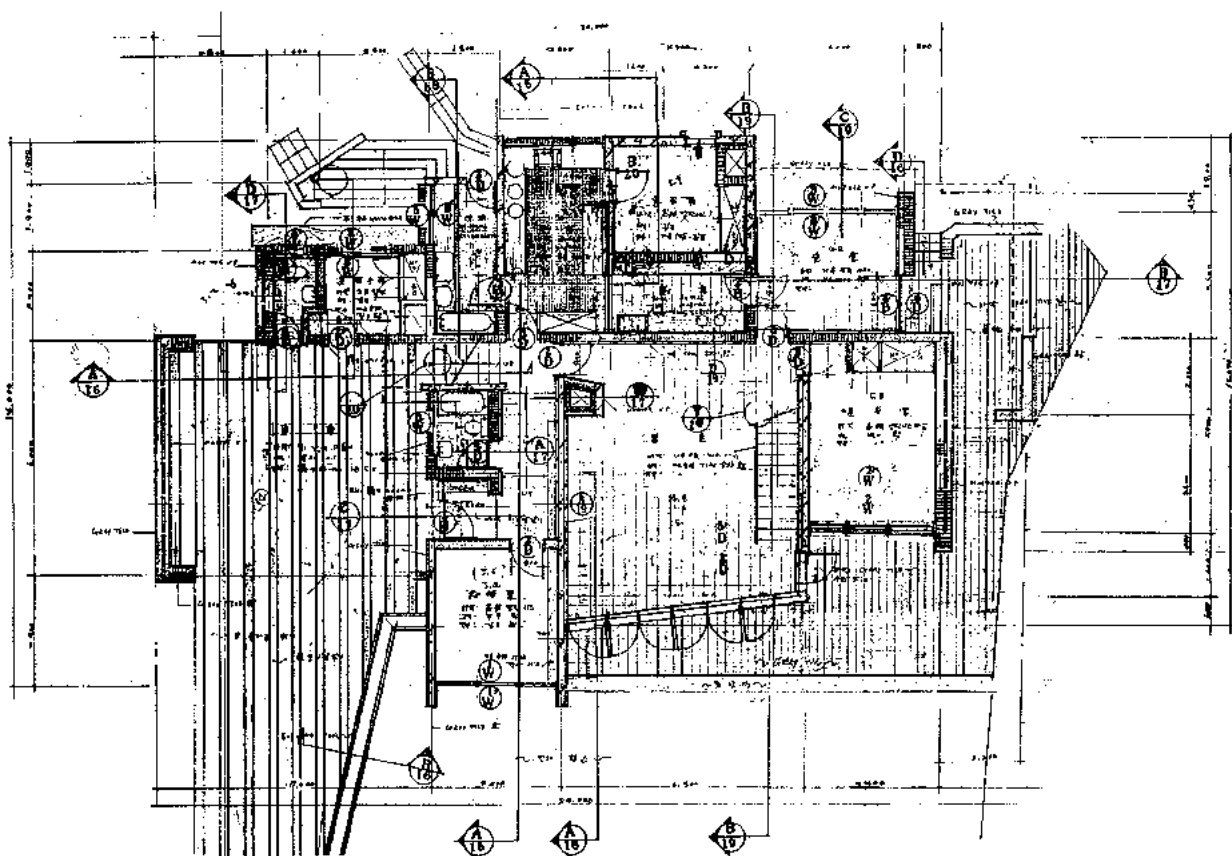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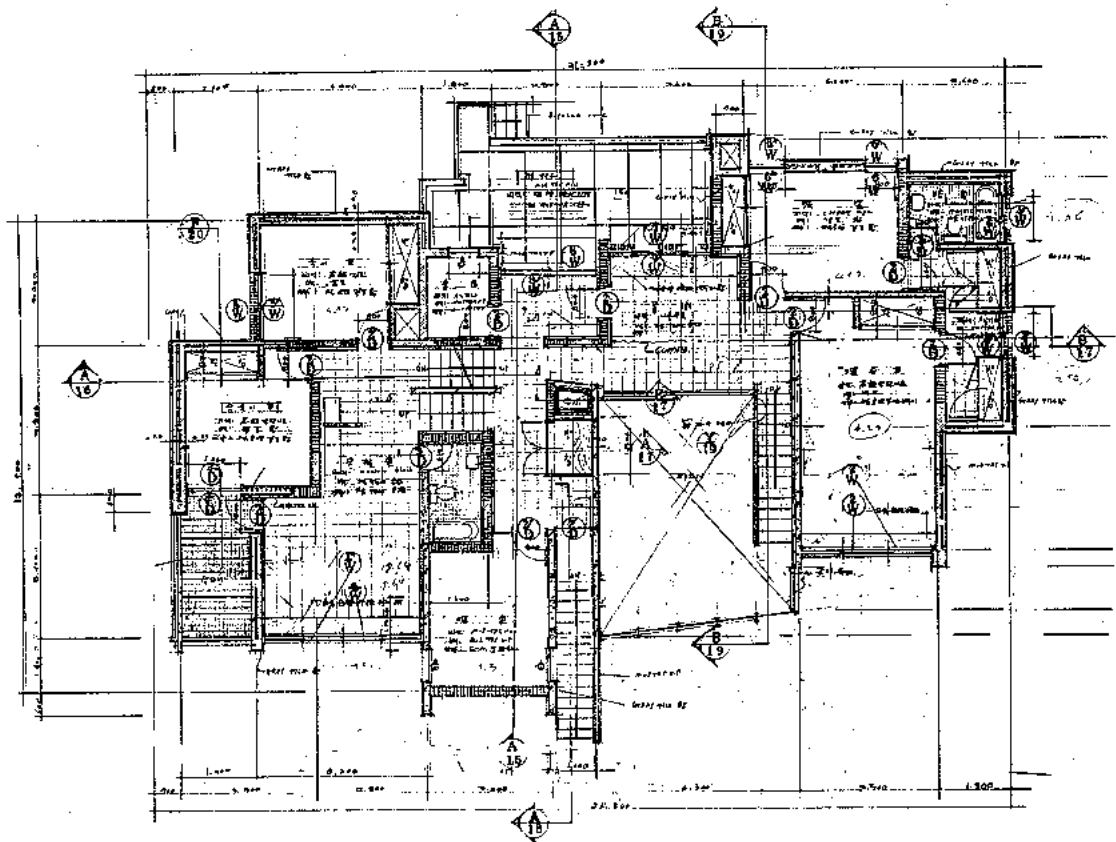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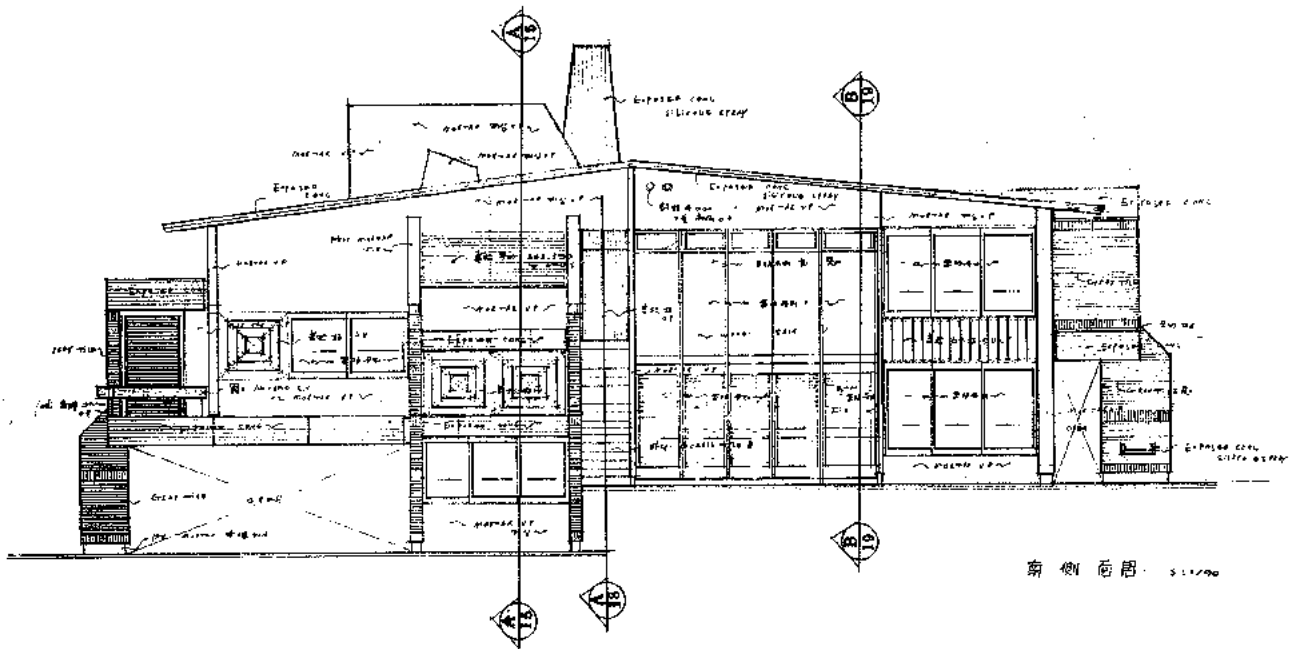
- 건축주 성명(김 동환)
- 건축주 직업(대신 한일 건설사장)
- 나 이(40才 정도)
- 가족 구성(부모 2녀)
- (식요 2名)
- (차고 2台用)
- 대 지 평 수 200평
- 전 평 140평
- 工事費 卽當
- 15~20万円(가구제외)
- 소재지-사작동
- 난방-온수난방
- Oil 보일러
- 지붕-청기와





北側 南區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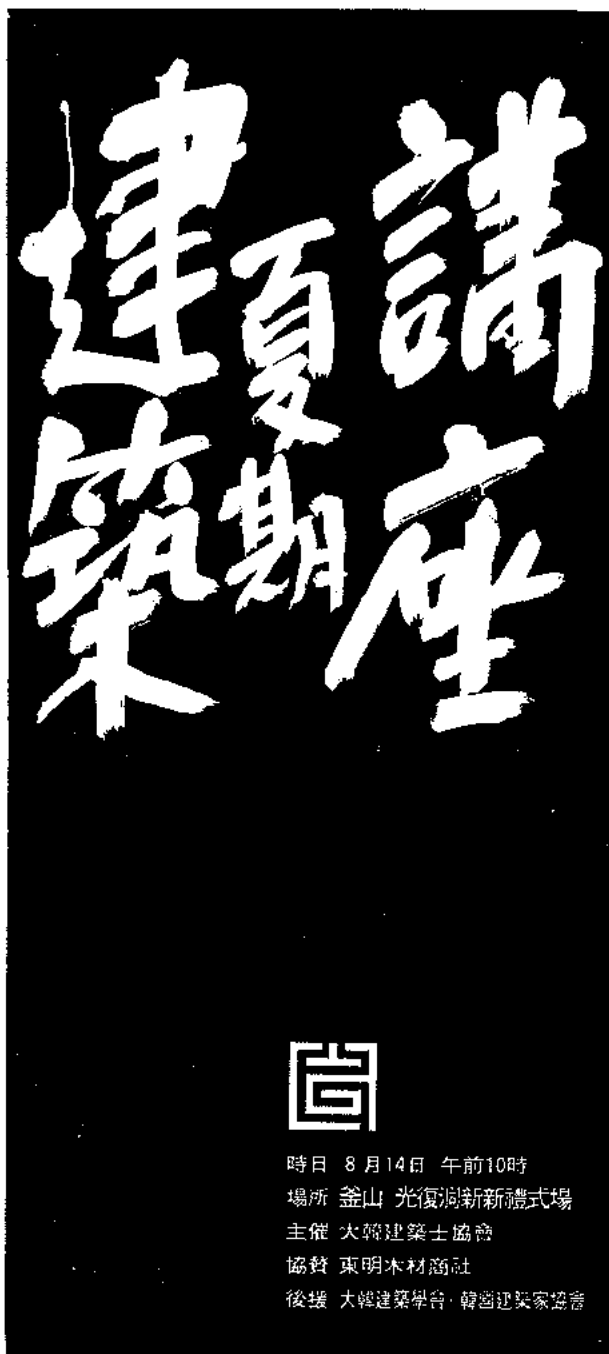


第 1 回 巡廻建築講座

오늘의 건축은 이미 개인적인 창조의 범위를 넘어서있다. 한나라의 문화는 지방문화의 배경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수준의 향상이다. 본 협회는 지방 건축의 발전을 위한 시도의 하나로 순회강연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4일 부산에서 하기건축강화를 가졌다. 부산지부회원과 그 보조원들이 약 200여명 모인 강연회가 끝난후 이어서 지부회원들과 서울서 내려간 연사와 김동규이사 등 서울 회원간에 건축전반에 관한 장시간의 토론이 있었다.

이하는 강연요지를 간추린 것이다.



建築講座

第一期

固

時日 8月14日 午前10時
場所 釜山 光復洞新新禮式場
主催 大韓建築士協會
協賛 東明木材商社
後援 大韓建築學會・韓國建築家協會

鄭 寅 國 (홍익대학 교수)

建築의 美란 그 建築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 우리의 감정을 억양시키는 힘,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建築自体가 질서표현으로 人間에 질서 의식을 주는 것이다. 즉 建築의 美란 두드러지게 표출되어 말할 수 없는 건축의 한 속성인데 이 건축의 美가 우리에게 대두되기는 19C 말~20C 초엽으로 그前에는 사람이 神에 바치는 정성의 표현, 數의 원리에 의하여 창안된 것이지 특별히 아름답게 만들려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속성이다. 近代建築家들의 建築史에의 공헌은 크나 동시에 이들은 뒤엎을 1970년에의 혼란은 생각하지 못했다.

오로·와그너의 근대건축의 四 重要요소는

- ㄱ. 목적의 정확한 파악
- ㄴ. 재료사용의 올바른 선택
- ㄷ. 간편하고도 합리적인 구조의 선택
- ㄹ. 간편하고도 합리적인 구조의 美

인데 이러한 이론에서 International style 이라는 이름의 建築양식이 56년까지 全世界를 지배했다. 이 원칙은 좀더 사회적인 전지에서 본다면 재료의 공통성으로 세계 공통의 건축으로 되었고, 정치적 선전국의 후진국 장악으로 자기를 건축문화의 원리 원칙을 밀고 나감으로서 세계건축으로 나아 갔으나 현재는 여러 후진국들이 독립국으로 나아감으로서 이 현대건축이 무너지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建築에서 絶對的인 美란 없는 것이며 美라고 분절하는 방법은 진부한 것이다.

建築構造에 對해서

金 熙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한 建築物이 有價值하다고 할 수 있을 때 그 建築은 自身의 文法-秩序를 가진다. 하나의 집, 建築이 가지는 文法-秩序 그것이 構造다.

우리는 建築材料를 가지고 機能을 表現해야한다. 어떻게 部材들이 모여 空間과 形態를 이루면서 機能을 成立시키는가 하는 것이 建築構造의 참다운 意味다. 대부분 우리는 構造를 너무 安易하게 생각하고 있다. 部材를 모아 構造物이 되게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建築物은 構造物과 다르

다. 建築物은 하나의 生活, 機能을 暗示하며 그것은 空間과 形態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그 空間과 形態의 骨格을 이루는 것이 構造다. 그러므로 建築構造란 단순한 工學이 아니라 生活의 意味와 연결된 人間工學의 立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建築構造는 建築의 文法이지 建築自体가 아니다. 그 文法の 理論이 構造力學이며 그 文法の 原理가 建築計劃이다.

그러므로 建築構造는 計劃-構造-力學의 關係에서 理解되어야하며 그러한 次元에서 研究되어야 한다.

建築計劃에 對해서

姜 明求 (本協會 會長)

建築計劃은 建築의 基本을 決定하는 것이다. 그러나 建築의 基本이란 全體의인 輪廓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計劃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한 建築物의 모든 部分이다.

實施設計와 施工을 통해서 計劃은 實地의 집이 된다. 實施設計와 施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의 基本이 되는 計劃이 소홀히 되어서는 合理的인 設計와 施工이 이루어지지 못한은 물론 좋은 建築이 될 수도 없다. 우리는 흔히 計劃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計劃이 設計와 施工의 基本이 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細部的이어야 한다. 하나의 집, 하나의 建物에서 모든 部分, 部分들간의 關係, 全體와 部分들과의 關係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결국 建築은 部分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計劃은 部分의 研究에서 시작되어 全體로, 全體에서 다시 部分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이때 部分에서 全體로, 全體에서 部分으로의 計劃을 一貫시키는 意志가 如-해야함은 물론이며 그 部分들은 모두 충분한 研究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 도어의 손잡이에서 번기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집의 모든 部分은 다함께 중요하며 우리가 주의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部分들에 대한 研究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部分간의 秩序에 대한 研究가 시작되어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設計와 施工의 基本이 될 뿐 아니라 實地의 必要에도 타당한 建築을 計劃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경제주택

경제주택의 개념

경제주택은 우선은 한정된 적은 예산으로 잘 설계되고 잘지어진 집을 말한다. 경제주택은 싼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빙고, 성락원, 신문로 등의 소위 저택들이 싼 집일지도 모르겠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그 과정이 싼 것이지만 그 결과가 싼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 건축가들은 돈 탔을 잘한다. 공사비만 많았으면 대결작을 막 만들 작정인 모양이었으나 그들이 예산의 제한이 없을 때 만든 것을 보면 다방같은 아랫층, 호텔같은 윗층—그것이 전부였다.

공사비와 건축의 질과는 전혀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경제주택은 보통방식의 집과는 좀 다르다.

어떠한 의도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경제라고 부른다. 경제주택은 합리적인 주택이라고 바꿔 불러도 될 것이다. 경제주택 중 가장 흥미있고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할 것은 싼 공사비의 적은 집들이다. 집의 규모가 작고 예산이 적어서 좋은 것을 못 만든다는 말썽들은 껴번치고는 한심한 축에 드는 것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작고 싼 집들은 좋은 건축이 될 수 없는 이유로 표현의 가짓수가 적고 스케일이 작고 상징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작고 싼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스케일, 비례, 상징, 도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오히려 재능있는 건축가와 재능없는 건축가를 구분하는 길은 소주택에서 크게 나타난다. 우리들은 그런 모든 이유 이외라도 우리 인구의 반 이상이 살게되는 소주택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 주의깊은 디테일과 재료의 적절한 선택 등을 통해서 우리는 적은 돈으로 합리적인 質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돈을 절약하는 外에 참답고 구체적인 주택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경제주택이다.

몇가지 單語의 定義

structural system or frame 構造体系 혹은 骨造

마감재가 더해지기 이전의 부재들이 이루는 골격. 수직부재에는 post(기둥)과 stud(사잇기둥)이 있고 수평부재에는 beam(보), joist(장선: 바닥을 받치는 부재) girder(보를 받치는 기둥과 기둥을 잇는 큰보, 도라)이 있으며 지붕을 받치는 부재에 rafter(지붕보)가 있다.

rigid frame 剛構造

여러부재가 접합되어 한 구조체계를 이룰때 그 접합부가 부재 자체보다 강할때 그 구조체를 강구조라한다.

module 모듈

기둥과 빔의 간격을 반복하여 규칙적으로 할때 사용하게 되는 dimension(치수)를 말한다. modular construction은 module을 기준으로한 말한다. modular construction은 부분의 표준화를 통해서 경계를 얻는다.

mill construction

바닥 벽 지붕을 모두 판자로 하는 공법

stud(사잇기둥)은 작은(2인치×4인치가 한계치수다) 수직梁構材며 보통 16인치 간격으로 세워진다.

beam과 joist(빔과 장선)은 기둥들사이, 기둥과 큰보사이, 혹은 큰보 사이를 받치는 수평부재다.

collar beam (칼라빔)은A字의 크로스바 같은 것이다. 조임보.

plank(판자) 보통두께가 2~6인치 넓이 9인치 이상되는 판자.

batten (좁은 판자) 길이 6피트, 넓이 7인치, 두께2.5인치, plank의 접합면에 비로 붙인다. 불규칙한 접합면을 가리고 접합면을 보호한다.

clearstory 는 서로 높이가 다른 두 지붕사이에 난 참을 말한다.

다음에 든 例들은 유난히 싼 집들이다. 공사비가 적었는데도 어떻게 좋은집의 합리적인 質이 이루어졌는가를 주의해보자. 유명한 건축가가 한 집들도 있고 안 유명한 건축가가 한 집들도 있으나 모두가 참담고 구체적인 주택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주의해서 보자.



공사비: \$ 17,360 in 1950. 1526 square feet
at \$ 11.36 per square f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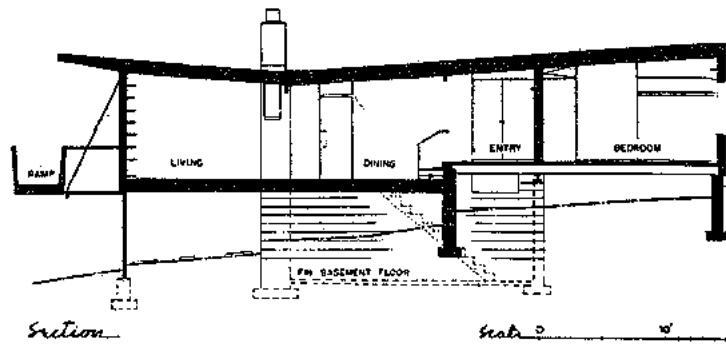
재 료: 시멘트블록거주, 스탠다드 후레임;
외부마감, 레드우드; 내부마감, 회반죽바르기.
부엌은 라노리움 나머지 모든 내부는 참나무
마루바닥.

평 면: 거실은 두 좋은 방향으로 열려있다.;
남측으로는 숲으로; 서측으로는 바다가 보인
다. 집의 서측 끝에 달린 선 테크 혹은 발코
니는 작은 램프에 의해서 평평한 바위에 닿는
다. 버터플라이 루프 (양측으로 치켜올라간 지
붕)은 멋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거실레벨의
두 방향을 표현한 것이며 동시에 땅에 대한
대각을 묘사한 것이다. 거실-식사실의 노출
된 빔은 단순한 구조의 논리적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조합된 문제들과 제한을 해결하면서
스터빈즈씨는 "이 집의 기본적인 생각은 최대
한의 시각적 공간감을 주면서 제한된 예산과
부지의 독특한 요구를 기본적인 생활요구와
결합시켜 단순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그
의 성공적인 설계는 다른 여러 건축가들로 부
터 경의를 받았다. 이 집은 드물게 보는 좋은
집이다. 평면구성의 유연한 처리라든지 작은
예산으로 대단한 건축적표현을 성공시킨 것이
라든지 구조적, 기능적 해석의 원천적인 스케
일 감각이 놀랍다. 이 집을 보면서 특히 생각
되는 것이 기꾸나제의 스카이하우스다. 스카
이하우스는 그 의미의 스케일이 빗나간 스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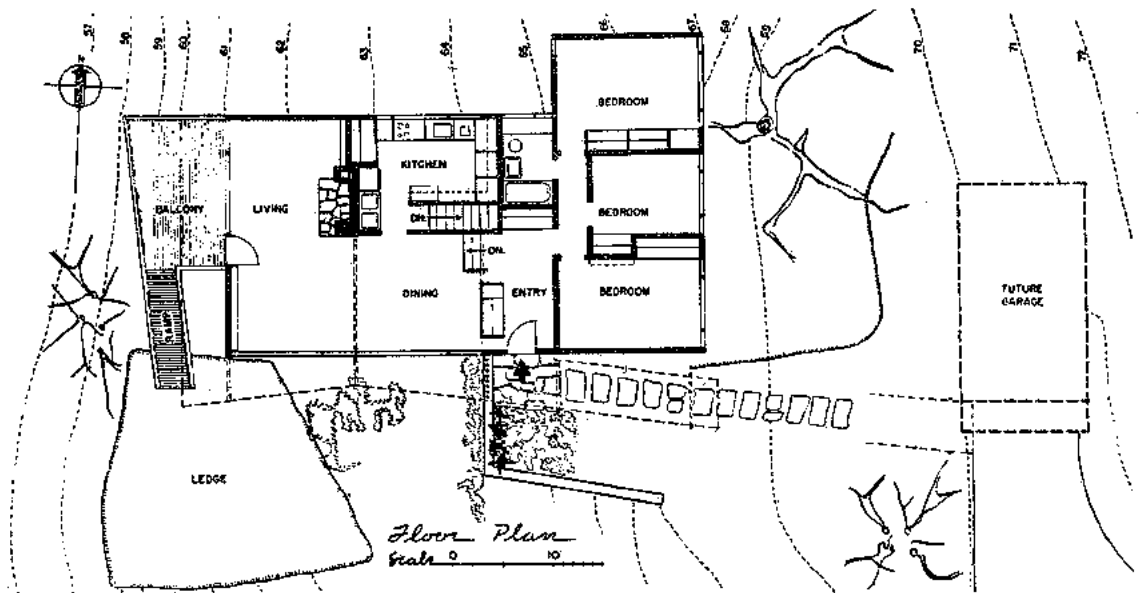
아이컨하우스

위 치: 링컨, 마사추세츠
건축가: 휴 스테빈즈 (미국건축가협회회장)
임 자: 아이컨

피드 하우스다. 이상하게도 그런 집은 추종한
국내거장도 많은데 이런 집은 주의를 끌지 못
했다. 집이 갖는 의미의 스케일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건축을 자신있는 얼굴로 하
려는지 모르겠다. 이 집은 그 경제성, 방법,
표현 모든 것에서 유쾌한 성공을 보인 집이지
만 그러한 소주택이 갖는 의미의 스케일을
표현한 점이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의 요인: 치밀하고 단순한 형태, 설비요
소의 집중. 모든 집의 요소들이 모든 가능한
관점에서 경제화 되어 있다.



남편, 부인, 두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할머니 한 분; 이런 가족은 아파트에 살 수도 없고 살 필요도 없다. 그들 자신의 집을 갖는 것이 아파트를 얻는 것 보다는 덜 비판적이다. 이것은 아이젠씨 가족의 경우다. 그들은 그들의 경계를 실현하였다. 비록 침실이 좀 작고 압축되기는 하였지만 이 집은 그들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고 싶어지는 그런 집이다. 물론 거기에는 그들의 요구를 건축적 언어로 표현해준 건축가가 있었다. 한국의 건축가들이 이런 소주택에 스티븐즈씨(미국건축가협회회장) 비슷한 만큼의 정열과 정성은 물론 꿈에도 기울지 않겠지만(설계비가 기껏해서 10만원 안팎일테니 소위 남는게 없을테니業으로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라 당연하기도 하겠으나 바로 이 점을 우리 모두가 크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아이젠씨가 구입한 땅은 물론 그 자체의 독특한 문제를 안고있었다. 숲이 치솟는 2에이커의 부지는 서쪽으로 경사지다가 급작히 높이가 나타나고 멀리 힘함항구가 보인다. 집이 꼭 설만한 땅 옆에는 위가 평평한 도움같이 생긴 큰 바위가 있다. 휴 스티븐즈씨는 이 모든 조건을 아이젠씨 가족의 고유한 요구와 필요와의 관련속에서 참으로 훌륭히 건축적언어로 표현했다. 참 좋은 집, 좋은 건축이다.





밀러하우스

위 치: 세인트 폴, 미네소타

건축가: 노먼씨 베이글

입 자: 스탠리 밀러

공사비: \$18,360 in 1950. 1700 square feet at \$11 per square foot.

공사비는 불박이 장, 윈도우 벤치, 복도의 정 부엌과 식사실의 패스-바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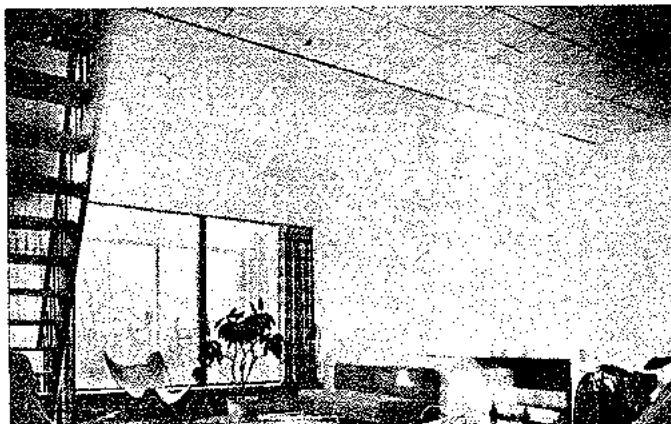
재 료: 콘크리트 불럭과 레드우드 후레임, 유 틸리티 윈도우는 고정 유닛과 조합되어 쓰 여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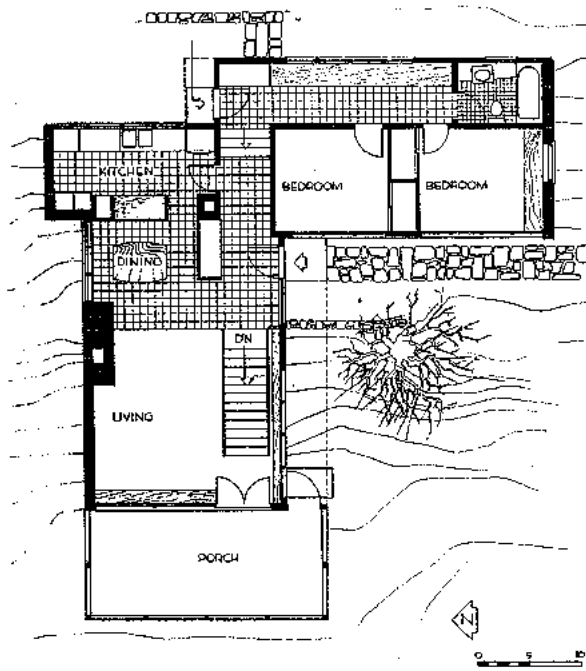
평 면: 경사 지붕 아래서 밀러씨의 다양한 모든 요구가 완벽히 추구되어 있다. 거실과 침실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침실은 독자의 영역을 갖는 개실로도 쓰여지도록 되어있으며 거실은 안락의 정원으로 가득차게 열리면서 호밍하다. 경사 천정에 의한 거실의 공간감과

걸어 올려진 식사실 중층의 위치와 침실로의 접속은 실지 크기 보다 집을 풍부히 한다. 식사실 아랫 부분인 거실의 알코브는 간혹 오게 되는 손님을 위한 여분의 침실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층 아랫 부분에 커튼을 달아 프라이버시를 주게 할 수도 있게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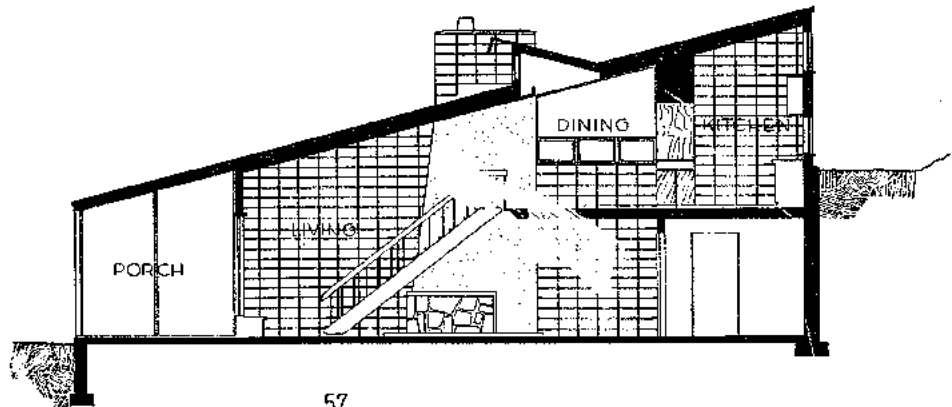
경 제: 식사실을 따로 두지 않고 어프로치의 연장선에서 분할시키면서 이중적 공간을 형성 해서 공간의 중부 사용을 기했다.

천정을 회백죽만으로 끝냈다. (천정은 달리 던 칠 할 필요가 원래 없다) 부엌과 식사실 사이에 패스-바를 두어 아침 식사를 감당하 게 했다. 복도의 벽을 별도로 두지 않고 복도 가 각 방등의 연속과 접속속에 이루어지게 되 어 평면의 항리가 추구되어 있다. 침실 앞 복 도는 철지난 일용품의 창고 역할을 겸하게 되 고 한 방처럼 쓰게도 된다. 거실의 알코브는 이중적 목적에 두루 쓰인다.





밀러하우스의 설계는 폭 69피트 경사방향으로의 깊이 150피트인 경사지의 언덕을 포함한다. 한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은 언덕의 경사를 따라있다. 집은 아래쪽으로 연장되는데 입구는 윗층에 있다. 그래서 내부공간의 배치는 수평적으로 전개되는 느낌이 크다. 경사지에 집을 세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지에서서 보다 돈이 많이 든다. 건축가가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이 집이 평지에 설 때 보다 3~5%가 더 비싼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정도는 대지 구입시의 싼 지가에 의해서 간단히 보상된다. 평지가 2,500\$인데 여기는 1,500\$이기 때문이다. 특히 윗층으로 어프로치된 배치 계획은 거실 부분과 침실 부분을 부엌 및 식사실을 분제로 단층지은 평면 계획과 조화되어 집의 규모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공간적임 표현, 나아가 우리가 그런 것은 가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바 정서의 표현을 성공시키고 있음은 높이 평가해야 할 점이다. 단면도에 표현된 것처럼 짧은 내부 어프로치를 토프라이트와 경사진 천정과 뒤로 빠지는 동선의 연계로 폭을 넓히고 거실을 양측으로 트면서 메이슨리얼과 포치의 접속으로 공간적 개폐를 유연하게 펼친 것, 그리고 두 침실로 향한 복도를 일단 꺾으면서 뒤로 산책을 접친 넓은 커랴를 두면서 침실을 아래 쪽으로 열어 나간 것 등은 건축적으로도 크게 평가해야 할 요소들이다.





힌즈하우스

위 치 로스앤젤러스, 캘리포니아

건축가 리처드 노이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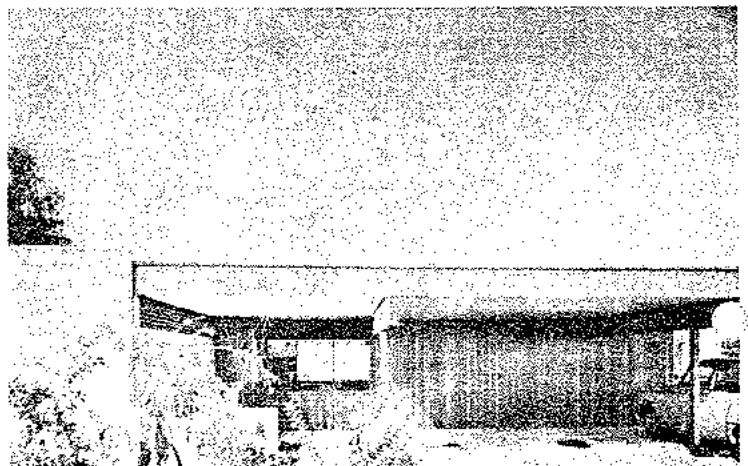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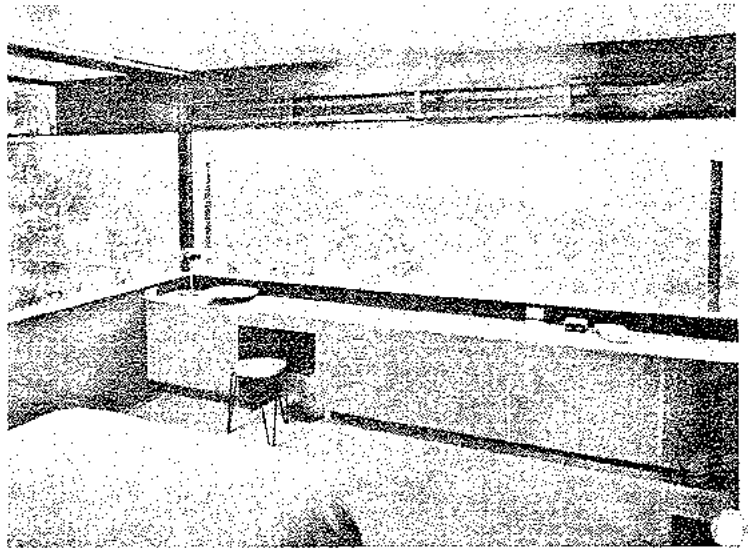
임 자 힌즈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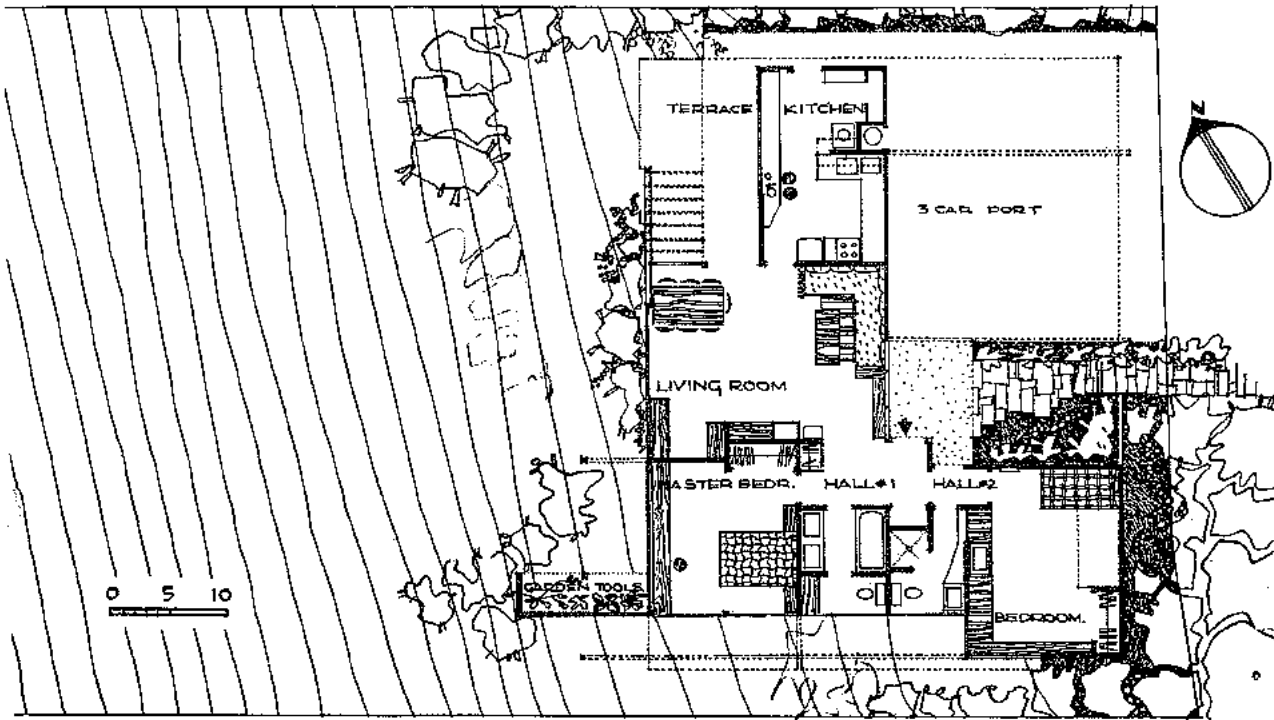
공사비 : under \$20,000 in 1950. 1,000 square feet at \$12.25 per square feet.

재 료 : 콘크리트 슬라브 바닥과 우드후레임, 평지붕, 레드우드 제척쪽매와 회박죽

평 면 : 아이 하나를 가진 부부를 위한 건축가의 노력은 주로 작은 면적 안에서 최대의 효율과 공간감을 얻고자 한 데 집중되었다. 외성탄산을 바라보는 장대한 전망은 해와 바람으로 부터 집을 보호하는 것도 큰 일이 되게 했다. 거실부분과 거실이 밀쳐나간 테라스는 부엌에서 서비스된다. 거실과 부부침실은 서쪽쪽 산 풍경으로 열려진다. 옆으로 좁고 길게 연속된 전망을 향한 기분좋은 높이와 폭이 고려된 것이며 동시에 필요이상의 햇빛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런 의도는 또 공간이 가득한 환상을 야기한다. 이 연속창 아래 위 천정 근처와 바닥에는 환기구멍이 따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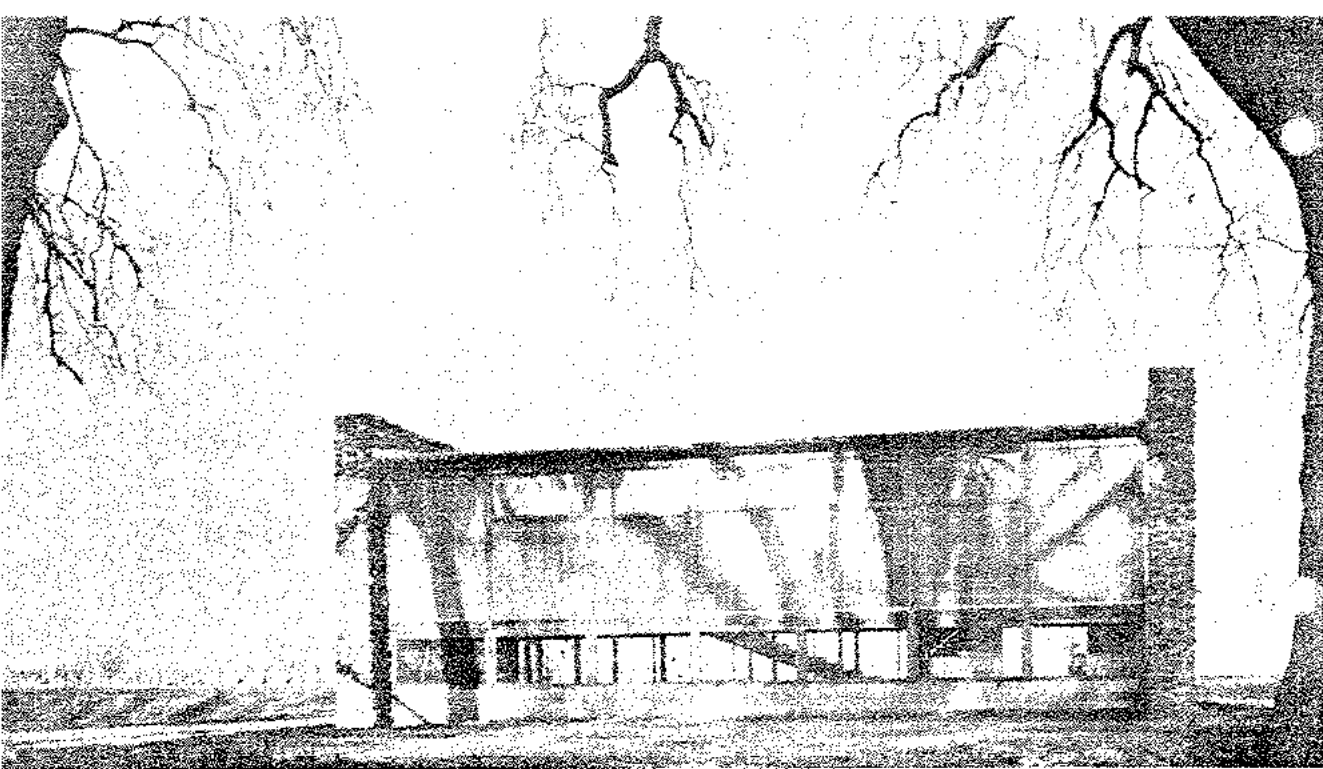
경 제 : 동선의 주의깊은 연구와 화사한 복도와 홀웨이는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있다. 부엌과 욕실아외에는 베트·셋위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 벽부장과 웨인스코트 등은 나중에 하도록 연기했다.





소주택을 설계하는 모든 건축가들은 가능한 복도와 홀웨이를 줄이려고 애쓴다. 그것들은 소주택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입구에서 직접 집의 세 부분 — 거실, 침실, 부엌 — 으로 이어지는 평면의 전환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일은 매지조건때문에 거실을 가로지르게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 일은 오히려 불편을 감수했기 때문에 얻은 경제(라기보다는 용색)다. 그럴때 그 집은 앉은 자리조차 마땅하지 않은 집이 될 것이다. 동선의 단축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러한 시도는 부지조건의 연구에서 부터 이르게져야하고 평면계획에서도 생활의 여건과 창들이 열려지는 향을 함께 고려하여 성립되어야 한다.

리처드 노이트라가 설계한 이 집이 쓰여진 재료가 화려한 것인데도 싸고 동선이 삭제 되었으면서도 풍부한 것은 그러한 평면해결의 묘를 얻었기 때문이다. 침실은 입구에서 직접 이어지고 부엌은 다른 입구에서 열려져 안에서의 서비스가 직접적이어서 거실은 모든 면에서 보호된 채 사방으로 펼쳐진다. 이럴 때 그 펼쳐진 시각을 뒷받치는 프라이버시가 없어서는 안된다. 이집에서 열려지는 것과 닫혀지는 것,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고 부딪치는 모든 건축적 조화가 평면의 상쾌하고 분명한 처리에 의해서 탁월한 경제로써 이루어져있다.



톰슨 하우스

위 치: 비나, 캘리포니아

건축가: 마리아 코버트

일 자: 모리츠 톰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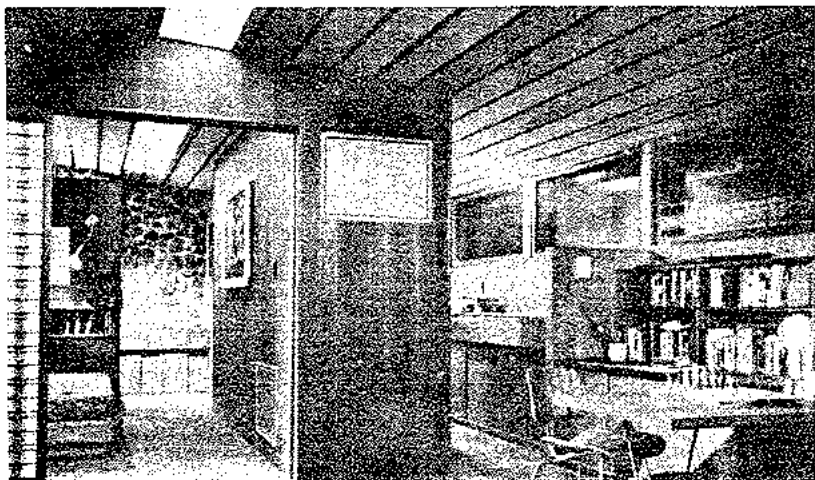
공사비: \$ 16,500 in 1950. 1344 square feet at approximately \$ 12 per square f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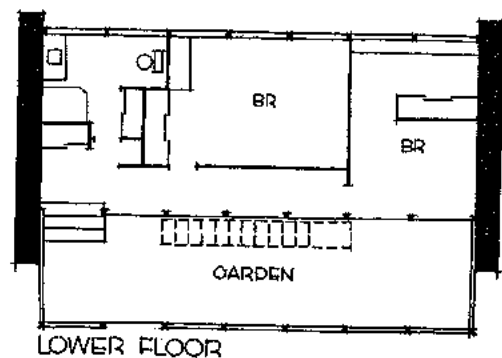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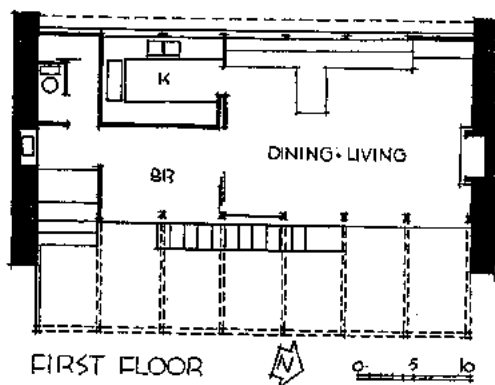
재 료: 부지 근처에서 쪼은 자연석. 레드우드 마감. 안락이 모두 철해지지 않은 대신 스테인 되어있다.

평 면: 새크라멘 제국의 대농장 경영주인 총각 톰슨씨의 이 집에서 건축가 마리오 코버트씨는 가장 이해적인 공법을 사용했다. 기본 구조의 이미지는 두 육중한 양 끝의 막돌로

쌓은 벽 사이에 시원히 걸린 내부 공간의 산개다. 벽동측은 실지의 내부 거실 공간 밖으로 밀쳐나와 두 층을 가로지른 플라스틱 스크린 벽으로 가려진 가든 룸을 형성한다. 두더운 여름 두 층에 걸친 "galleria" 역할을 하는 가든 룸이 쓰여진다. 레드우드와 유리가 집의 서측을 막는다. 거실의 노은 배치는 윗층에 집중되고 지금 주인의 작업실로 쓰여지는 방은 장차 침실 두개와 욕실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랫층의 이 '찬' 방들은 더울 때 피난처로 쓰일 것이다.

경 제: 아랫층 방 공간은 구조체로 막아져 있으나 후기에 완성되면 실지 공사비에서 \$ 20,000은 절약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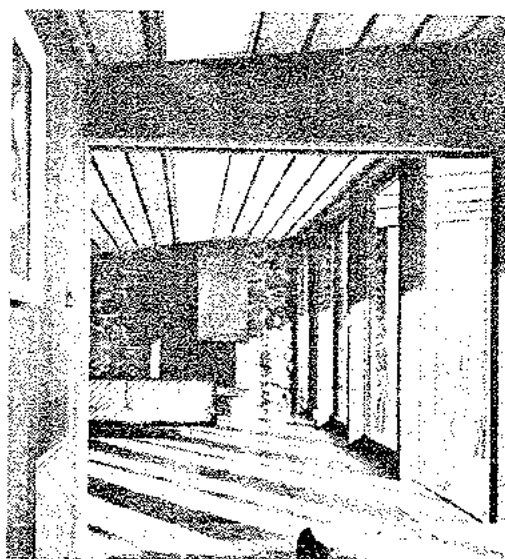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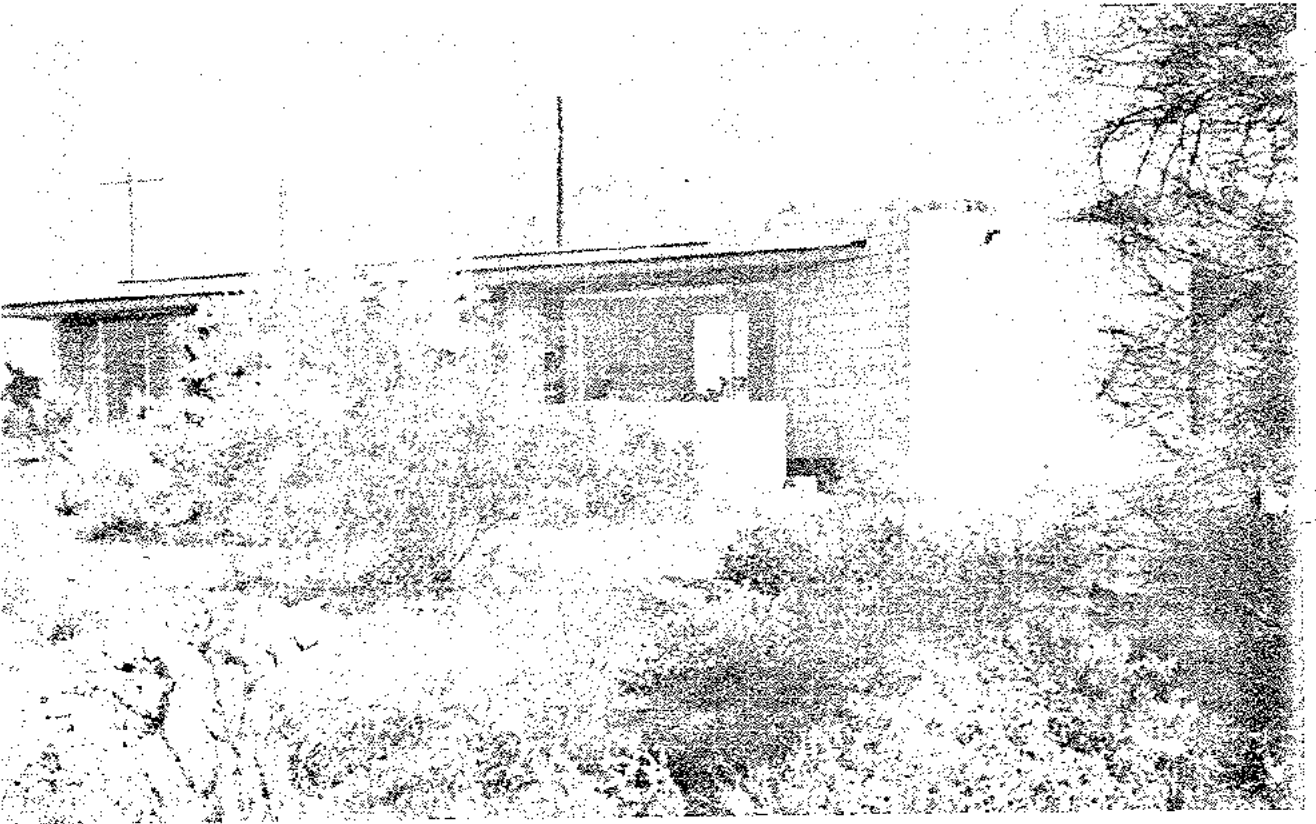


이집은 상을 여러가지 받았다. 꼭 막아져 있는 듯이 보이지만 건축가 마리오 코버트씨는 필요한 공간의 개요와 전체적인 이미지의 윤곽만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장차의 전환을 위해서 모두 가변적인 것으로 남겨져있다. 아랫층은 지금 전부 열려져 있으나 장차는 두 침실과 다른 욕실이 첨가될 것이다.

경제주택은 일의 여러 부분을 연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장차의 덧붙임, 새로운 방의 첨가, 완벽한 구조 내에서의 성장(이것은 증축이라기 보다는 성장이다. 접목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나고 가지가 뻗는 그러한 방식의 늘어남이다).

아랫층을 짓고 나중에 윗층을 짓는다는 지극히 통속적인 증축 계획에 예외없이 실패하는 것은 이중적인 일을 거듭해야 하는 공정들이 거기에는 포함 되어야 하고 한 집을 두 토막내서 짓는 모든 애로를 더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동슨씨의 이집은 경제와 필요의 제한에 따른 장차의 확장과 증축을 생활의 확장과 방의 증가를 통해서 이루되 예산의 한계와 방식의 전환을 이루는 내적인 성장의 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검토할 많은 문제를 시사한다.





커너하우스

위 치: 페닉스, 아리조나

건축가: 블랜인 드레이크

임 자: 존 에프 커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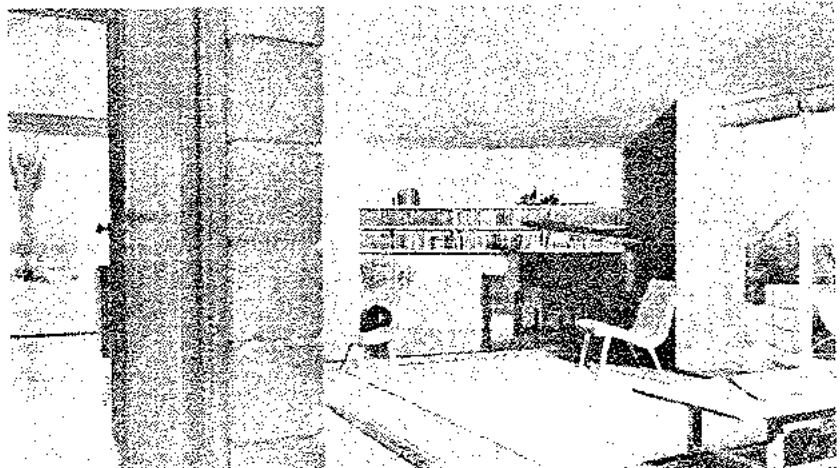
공사비: \$14,000 in 1952. 400 square feet
at \$10 per square f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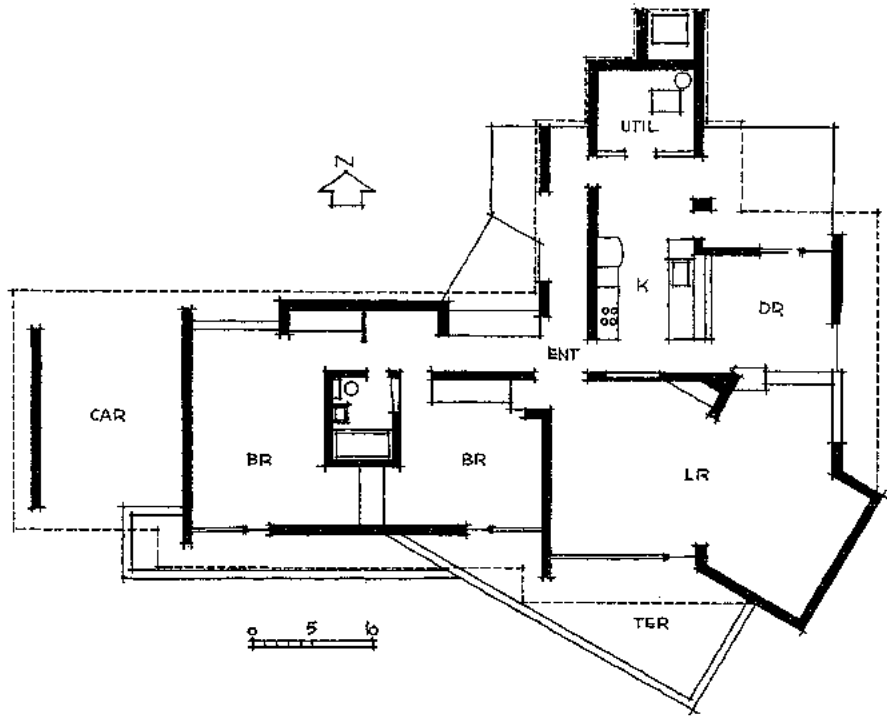
재 료: 경량블럭 (8×8×16인치) 구조 제는
블럭 사이즈에 맞춰있다.

평 면: 경제적인 이유로 커너씨와 건축가 블랜인 드레이크씨는 제한된 FHA 법규로 모는 것을 처리했다. 그들의 주 문제는 값싼 재료

로 최대의 공간을 얻는 것이었다. 커너씨 부부를 위한 침실 두개와 여기에 부속된 욕실, 그리고 피아노를 들여 놓을 수 있을 큰 거실, 분리된 식사실, 부엌과 창고—이 모든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량 블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내부의 칸막이를 포함한 모든 벽을 경량 블럭으로 쌓고 이것이 구조체가 되게 하였다. 경량블럭의 색감과 질감은 모두 본래 대로 노출되고 안팎이 모두 드러낼 없이 처리되었다.

경 제: 경량블럭이 구조체와 마감재를 겸하게 한것.





지방적 재료는 오늘날 같이 수송이 대량화한 시대에서는 크게 의미를 갖지 않는다. 오히려 보편적인 재료로 어떻게 풍토적 정서를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있다.

물론 지방적 재료가 다른데서 보다 싸기는 하나 지금은 보편적재료화 되고있다. 커너 하우스에 사용된 경량블록은 블럭이라는 보편적인 재료가 콜로라도와 아조나에 널리 퍼져있는 경석으로 재생되어 지방 고유의 경량블럭화한 것이다. 드레이크씨는 보편적인 재료를 가지고 다른 마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방 고유의 어떤 풍토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사방으로 펼쳐진 거친 부지를 고려해서 방들은 약간씩 불규칙하게 이어진다. 입구는 침실, 거실, 부엌의 세 기본 요소의 접속점에서 이어진다. 평면의 명석한 처리와(불필요한 모든 부분이 제거되어 있다) 구조와 표현의 일체물 통한 공사의 단축은 팔목할 경제와 건축 효과를 동시에 이루고 있다.

거장들의 이야기

②

르 끌뷔제



“Creation is a patient search”의 표지에는 Corbusier의 자화상이라는 부제가 있고 광고의 첫 구절에 “이책은 단순히 Corbusier에 의한 Corbusier에 대한 책이 아니라 이것이 곧 Corbusier다”라고 써어 있다.

Corbusier가 대중앞에서 그의 개성을 멋대로 휘두르는 것은 타당한 일은 아니다.

한 생애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은 그의 자유로운 도전적 태도로서 각 개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의 친구인 Maurice Jardot는 서문에서 쉽게 동정심을 발휘하는 온화한 미소와 개방된 표현을 함으로서 생기는 은후함이 결여된 쾡한 눈초리와 단조롭고 고르지못한 목소리에서 Corbusier를 알고있는 사람들은 그의 까다로운 성격, 호전성, 이기성, 자기만족 그리고 특히 의견의 불투명함과 외구점을 인정하지 않는 날카로운 태도를 인식했다.

전세계의 의견에 대항해서 고립된 투쟁을 고수해온 혁명가에 있어서 이러한 인내가 특이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투기간을 버티기에 필요한 정신적인 양식이어서 때에 따라서는 흔들리는 자아에 대한 생명의 자극제이며 개념적 창조를 위한 강력한 최음제이다. 온화한 성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평범한 것이며 필요한 것도 아니며 화나게 하는 요소이다.

Corbusier를 만날 기회를 가졌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로 인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Jardot 까지도 후에 “Corbusier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소인과 그 자신을 비교하고 또 그에 결여되어 있는 성품과 재능을 마음속에 명기하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이에 덧붙여 “그 것들은 그가 말하는 것보다 더 희소함은 의심할 여지

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Corbusier에 결여되어 있는 성품은, 아마 그럴 수는 없었겠지만 매일 아침 스스로 자신의 신격화에 대한 확신을 적게하는 것과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사악하지 않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편협한 경향이었던 그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이 책을 통해서 명백해진다.

Corbusier는 스스로 제삼자의 입장에서 항상 집필했을뿐 아니라, 백치 같은 무리들로 둘러싸인 과오없는 조인으로서의 개인적 비교로 매사를 소홀히 처리하였고 빈정대는 혐오를 책의 매단마다 특히 제목에 나타내고 있다.

그는 the League of Nations Competition을 india ink story라고 고쳐 불렀고 1928년식 자동차 디자인을, 또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침략적 영향에 의해 밀려났고, the plan for Algiers는 친구들에 의해 단절되었으며 the Antwerp plan은 심사위원들로 부터 짧은 관계적 관심이상은 받지 못했고,

the Buenos Aires plan은 심사위원들이 조용하고 무감각하게 민주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을때 숙련된 연사들의 변덕으로 결정되었고, the proposal for the Paris International Exhibition of 1937은 구성의 인식조차 얻지 못했고, the project for the Vaillant Couturier는 명백히 서둘러 배척되었고, the La Rochelle plan에 대해서 그는 1947년 이래 계속 인정을 받지 못한채 13년간 지 불되지도 않았고, 피레네 산맥을 위한 전시계획 제안은 1946년 이래 Good-bye, Mr. Corbu! 이었고 the plan for La Rochelle-Pallée는 Saint-Die를 위한 것과 같이 the one for Saint-Die와 같은 조건으로 거부되었으며 l'affaire United Nations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충격이어서 Corbusier는 동정과 도의심도 없이 그의 모든 정의를 벗어버렸다.”

그리고 베르린의 Unité의 경우 “독일 건축가들은 L-C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장막뒤에서 수정하였고 드디어는 막 만들어냈다. 모든 것은 메스가 가해져야 했다.”

미국인 역시 마찬가지다. When the Cathedral were white는 “미국인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었지만” 미국의 출판업자들의 코멘트는 “잘 안팔린다”는 것이었다. 사보이하우스는 “독일과 미국군대에 의해서 짓혔다” 소비에트공전의 모델은 현대미술관으로 옮겨져 미국전역에 순회전시 되었으나…… 결코 돌아오지 않았고” Corbusier가 UNESCO 빌딩의 설계자로 지명받았을때 “그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Saint-Dié는 “지척의 거리에 있는 미국인들 앞에서” 퇴각하는 독일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그의 프로젝트들이 그의 계획과 감독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을 때도 그는 불만이 가득한 채 이불 위대한 건축적성과에 대해서 어린애같은 논쟁을 한다.

그래서 에스프리누보 페빌리언은 “가장효과적으로 숨겨진” 것이었고; 사보이 별장은 “L-C에 대한 지식없이” 불탄서 정부에 의해서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땅 누보관의 개막에 대해서는 “아무도 바꾸워놓지 못했으며,” “은행가들이 뒤통을 찌르며 숨통을 막아버렸고” 라크르망에 대한 유일한 커멘트는 “이집은 자연에 대한 죄악이며 그것은 결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않된다.”였으며 페사크단지에 대한 유일한 커멘트는 공사자와 대중의 보이코트. 이 도시는 물이 없고 따라서 사람도 없이 수년동안 버려졌다”

1937년의 파리국제전의 그의 페빌리언에 대한 그의 주요 쫓점은 “거물들은 오지않았다”는 것이었다. 그가 마르세이유의 유네스코 다비다사용의 건설을 착수하도록 되었을때 “비열하고 추악한 악의와 으르렁범이 따른 5년”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입장이 허락되었을때 그는 스튜디오의 소원들에게 “한푼의 보너스도 없이” 공정이 착취당했다고 화를냈다. 스위스관의 개관에서 “개막식은 장례식 같았다” 그리고 이집이 가장 훌륭한 현대건축이라는 연설 뒤에는 “침묵이 따랐다.” 스위스관의 벽화에 대

해서 충분치 않은 찬사가 따랐다. 왜냐하면 “침묵이 그것을 막았고 아직도 막고 있기때문이다” 그 자신의 작은 해변별장에 대한 마지막 커멘트는 “주의해서 보라 이와같은 집을 짓는 것은 지난 법에 의해서 금지된다.”

그의 벽을단을 짜는 사람까지도 그의 일을 방해해서 미안하다는 얼굴로 일을 했어야 했다.” 이러한 모든 커멘트 몇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몇줄밖에 안되는 제목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제목들이 끝까지 그가 그의 작품에 대해서 한 유일한 표시라는 것이 강조되어야겠다.

대부분의 얘기는 단 한문장으로 된다. “어떤 사람들은 본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뒤에서 아프게 발길질 당한다.”

끝까지 그가 롱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놀란것은 무리가 아니다. 이상한 만장일치가 세계의 의견에 영감을 준다. 로마의 교회까지를 포함해서 끝까지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한 서적에서는 초기 유아시절의 연필 스캐치로부터 최근 벽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후 입체주의 작가의 작품 “Machines”로부터 최근의 감각주의 작가의 건축구조작품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열열히 광적으로 편집되어 있다. 도해의 선택, 크기, 그리고 배열은 훌륭했고 도해는 힘있게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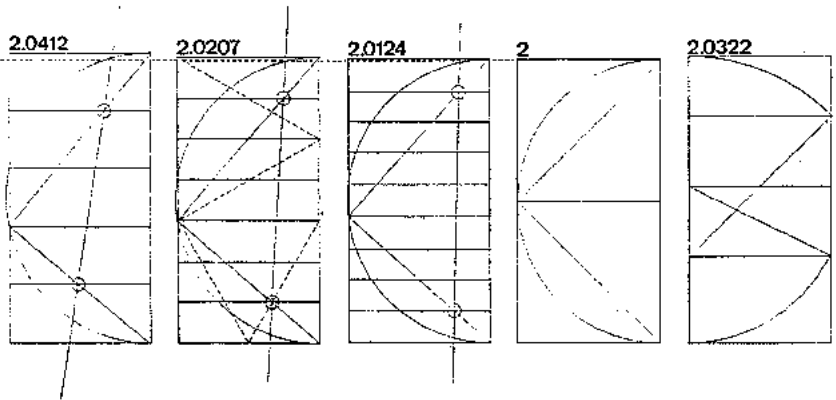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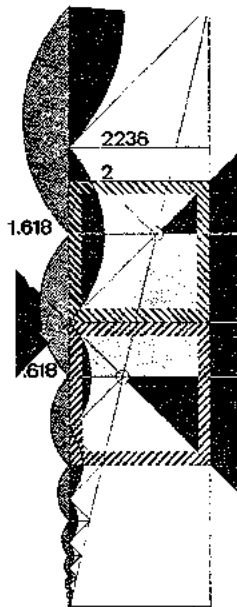
시각적으로, 그책은 책중에 나타난 Le corbusier의 예술적 작품처럼 흥미를 주는 것이다.

“Cratation is a patient Search”란 책자가 독일에서 출판되었지만 두 서너개의 오석이 있었다. 아마도 (Much of what L-C has created has been……public statements) 중의 단어 하나는 L-C 자신의 분석에 대한 역자의 서투른 주해를 가했더라면 오자는 더 나왔을 것이다.

“Le Corbuier 1910~1960”이란 두번째 책은 더욱 사실적이다.

“the old Oeuvre Complète” 시리즈에서 Le Corbusi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책의 내용을 점검해 보았더니 군말이나 과장된 점이 없으며 결코 흠잡을 곳이 없는 책이었다.” 이 책에서 willy Boesier (지금은 공동 편집인이지만)는 대가인 L-C가 말한 교훈에 대하여 계속해서 쓰고 있다.



“L-C 1910~1960”에서 L-C는 훌륭하게 책에 표현된 것처럼 미화되거나 “Creation is a patient search”의 책에 나타난 것처럼 극적인 흥미를 주는 일없이 그러나 어느면으로는 50년의 기간을 풍미하던 L-C 작품이 딱딱한 기록에 불과하지만 어느 것보다 더 사실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다.

1929년 이래 단독적으로 출판된 우배한 6 권의 책에 포함한 모든 자료가 이 한권에 포함되었다.

이책의 편집과 The old oeuvre Complète와의 주요 차이점은 내용 배열이 연대순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의 개요는 주요 특질에 의하여 나뉘어져있고 단일 건물형의 발전 과정을 더 확실히 알아볼 수 있다. 인습적인 입체주의로부터 의욕적인 감각주의에 이르기까지 L-C의 설계의 변형·경향은 연대순서를 무시함으로서 어느정도 알 수 없게 되었다. 건물형태는 4개 항목 즉 주택, 큰 빌딩, 박물관, 전신관, 종교적 건물 그리고 chandigarch의 독립장으로 묶여있다.

나머지 항목에는 그림, 조각, 벽과 그외장식 그리고 도시계획이 실려있다.

세번째 책인 L-C talks with student는 1943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출판된 도해가 없는 조그만 신간서적이다.

이 책에는 1942년 파리의 The Ecole des Beaux Arts에서 L-C가 학생들에게 행한 연설문을 수록하고 있다.

L-C는 생각컨대 나이먹은 성인들보다는 젊은 이들과 더 친밀했다.

그 연설은 학생들에게 L-C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친밀한 이야기였으며 학생들이 나이먹은 작가들의 진부한 세상에 대항하여야 한다고 고무시키는 것이다.

Progressive Architecture의 건축의 양상에 대한 최근의 심포지움과 무질서한 현재의 추세에 대한 토론을 살펴보고 아레와 같은 L-C의 20년 전 연설의 첫 귀절을 인용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오늘날의 건축 양상은 어떤가? 과거에도 우리가 살고있던 어느 시대도 오늘의 사회와 같이 방향이 없진 않았다. 혼란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프랑스는 혼란의 중심이다.”

그는 비누방울을 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지만 세권의 모든 책에서 L-C는 분명히 한 위대한 예술가며 시인으로 나타나 있다.

새로운 건축의 이야기

르 꼬뷔제

엔지니어의 미학과 건축

엔지니어의 미학과 건축은 함께 전진하며 서로 휘따르는 두가지 사건이다. 전자는 지금 한창 개화중이나 후자는 전혀 불행한 역행의 길을 가고 있다. 경제 법칙에서 영감을 받고 수학적 계산으로 통제되는 엔지니어는 우리를 우주적인 법칙으로 인도한다. 그는 조화를 성취한다. 건축가는 형태의 정돈으로 정신의 순수한 창조인 질서를 실현한다. 형태와 형상으로 우리의 감각을 날카롭게 자극하며 조형적인 감정을 도발한다. 그가 창조하는 상호관계로써 건축가는 우리가 세계의 질서에 의해서 느끼는 질서의 척도를 준다.

그는 우리의 감정과 정신의 다양한 움직임을 결정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도덕의 문제 진리의 결핍은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허위일 때 멸망한다. 건축은 사람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은 인간이 혼자서는 있어버리던 불가결한 첫째가는 도구였다. 인간의 도구들은 석기시대, 청동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문명을 규정 짓는다. 도구들은 성공적인 개선의 결과이다.

모든 세대의 노력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 도구는 진보의 직접적이며 조속한 표현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본질적인 조력을 주었으며 동시에 본질적인 자유를 주었다. 우리는 카빈총, 17-8세기의 대포, 사륜마차, 구식자동차 등의 시대에 뒤진 도구를 쓰레기더미에 버린다. 이러한 행위는 건강의 도덕적 건강 그리고 그 자체의 표명이다. 우리가 나쁜 도구때문에 나쁜 물건을 생산한다거나 정력과 건강과 용기를 낭비한다면 좋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당연히 버려지고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옛날집에서 살면서 아직까지 그들에게 적합한 집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있다. 그 짐승굴 같은 것이 오래동안 그들의 마음에 친숙해져왔다. 그렇게해서 이미 굳어져버린 집에 대한 예찬을 그들은 구축해 온 것이다. 지붕 그리고 가정필수품, 종교는 도그마를 전제로하며 그 도그마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명은 변화하고 종교는 쓰레기통으로 당군다. 집은 변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집에 대한 예찬은 수세기동안 같은 것으로 내려왔다. 집도 역시 쓰레기통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종교를 믿으며 그것이 불쌍한 철면피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가련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 집에서 삶으로써 동정받게 됐다.

그것들은 우리의 건강과 도덕을 파괴한다. 정확해야만하는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들의 집은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우리를 소비하듯이 우리를 물어 뜯는다. 아마도 곧 우리는 너무 많은 요양원을 필요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동정받을 만하다. 우리들의 집은 우리를 구역질나게 한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 자주 레스토랑으로 나이트 클럽으로 간다. 혹은 우리는 풀이 죽어서 천대받은 동물처럼 조심스레 집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사기저상 될 것이다. 엔지니어는 그들 시대의 도구들을 만든다. 모든 것, 말하자면 집과 좀먹은 귀부인의 내실 외의 모든 것.

불란서에는 위대한 국립건축학교가 있으며 기타 모든 나라에도 여러 종류의 건축학교가 있다. 그들은 젊은 정신을 얼떨떨하게 하며 그들에게 허위와 오늘날의 아침을 가르친다. 국립학교 엔지니어들은 건강하고 남성적이며 활동적이고 유용하다.

그리고 그들의 일에 균형되며 행복하다. 우리들 건축가들은 환멸을 느끼고 실적이며 뽐내거나 불평투성이거나 하다. 이것은 조그만 그들이 한 일이 더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이상 역사적 기념물을 세울만한 돈을 갖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들은 잊어버리고 있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준비하며 그들이 건설자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건축이라고 부르는 것은 경탄할 만한 것이며 모든 것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존재한다. 행복한 사람들이 만든 산물,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만든

복한 사람들, 행복한 마을은 건축을 갖고있다. 건축은 전환에서도 파르테논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가정이나 집에 있어서는 얼마나 쉽사리 발견될 것인가. 집이 길을 만들고 길은 마을을 만든다. 마을은 스스로 영혼을 가지고 느끼고 괴로워하고 놀랄줄 아는 개성을 갖는다. 길이나 마을에 있는 가정에서 건축은 어떤가. 그 진단은 명확하다.

엔지니어들은 건축을 만들어 낸다. 그들은 자연법칙에서 이끌어낸 수학제산으로 말하므로 그들의 작품은 우리에게 조화의 느낌을 준다. 엔지니어는 그 자신의 미학을 가지며 계산할 때 방정식의 한계를 제한해야 한다. 여기서 중재가 경험되는 것이다. 지금 수학적 문제를 다룰 때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하게 추상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며 그러한 단계에서 그의 기호는 확실하고 정확한 길을 밝게하는 것이다.

푸른 호르테시아와 녹색국화가 자라며 불결한 난초가 재배되는 온실같은 학교에서 나온 건축가들은 말하자면 황산염이나 독이든 밀크를 팔아야만 하는 우유장사의 가분으로 세상에 나온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이 맹목적으로 의사를 믿듯이 건축가를 믿는다. 물론 집들이 함께 모여져야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예술가에게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라브로쉬에 의하면 예술이란 개념의 실현에의 지식의 적용이다. 오늘날 집을 짓고 난방을 하고 환기장치를 하며 조명을 할 줄 하는 것은 엔지니어이다. 사실이 아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식으로 전보하는 엔지니어는 길을 보여주며 진리를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진단이다. 조형감정의 문제인 건축도 역시 그의 영역에서 처음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고 눈의 요구에 보상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사용하여야하며 그러한 요소들을 그들의 현실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그들의 미묘함이나 야만, 격렬이나 엄격이나 관심에 의해서 자주 알 수 있는 질서로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의 눈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정신이 측정할 수 있는 조형적인 요소이며 형태이다.

이들 형태는 단순하거나 교묘하거나 혹은 다루기 쉽거나 어렵거나간에 우리의 감각에 심리학적으로 작용하여 구, 입방체, 원통, 수평, 수직, 사선등등 그것을 흥분시킨다. 감동되면 우리는 단순한 감각을 넘어설 수 있다.

건축가에게의 세가지 연상대상

맛스

우리들의 눈은 광선속에서 형태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원시적인 형태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형태이다. 오늘날 건축가들은 이를 단순한 형태를 더이상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계산에 의해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기하학적 형태를 취하므로써 기하학으로 우리의 눈을 만족시키고 수학으로 이해를 가능하도록 한다. 그들의 일은 훌륭한 예술의 정도에 들어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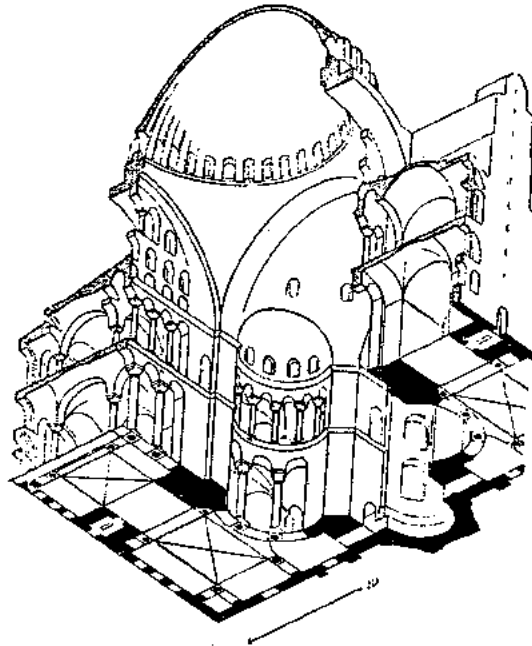
면

맛스는 면에 쌓여 있으며 면은 맛스를 방향지우고 형성하는 선에 따라 분할된다. 오늘날 건축가들은 면의 기하학적 구성요인을 두려워하고 있다. 현대전설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기하학적인 해결을 가져야한다.

곧바로 결정되는 조건들의 직선적인 해결에 의해야하는 엔지니어들은 형태에 관련하여 선을 형성하고 조절한다. 그들은 맑고 투명하며 생동하는 조형적 현실을 창조한다.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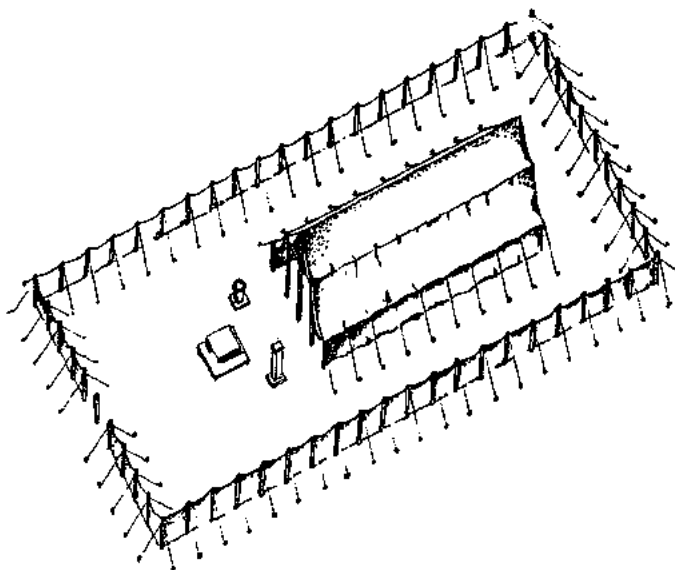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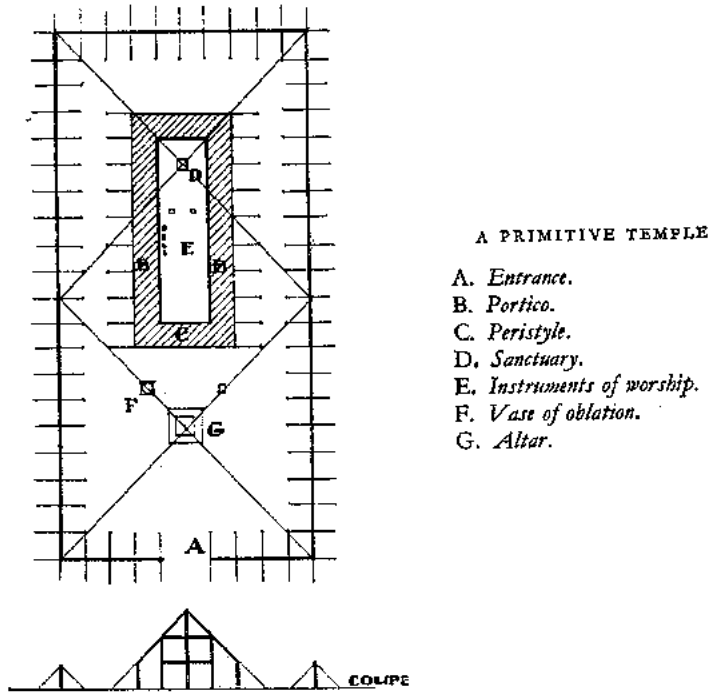
평면은 형성체이다. 평면이 없다면 질서의 결핍을 가져오며 멋대로 왜버린다. 평면은 그 자신속에 감각의 본질을 갖는다. 종합적인 필연에 따라야 하는 오늘 의 부분문제들은 새로운 형태에 평면의 의문을 제기한다. 현대사회는 주택과 도시에 있어서 새로운 평면을 요구하며 기대한다



규칙선

건축의 불가결한 요소

질서에의 필연적인 것. 규칙선은 멋대로에 대한 보증인이다. 그것은 이해력에 단락을 준다. 규칙은 수단이다. 그것은 비법은 아니다. 그것의 선택과 주어진 표현양상은 건축창조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보지 않는 눈

정기선

위대한 신기원은 시작되었다. 거기에는 새로운 정신이 있다. 새로운 정신으로 되어진 거대한 작품들이 있다. 그것은 특별히 산업생산에서 부딪혀지고 있다. 건축은 풍속 때문에 질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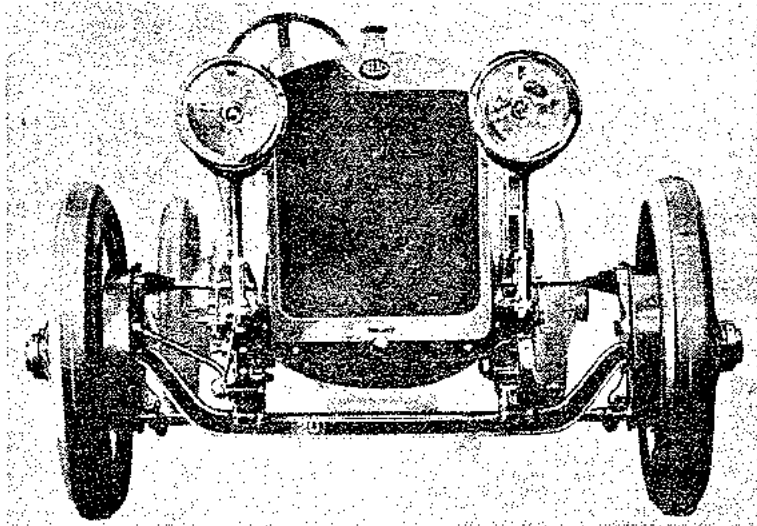
양식이란 거짓말이다. 양식은 한 시대의 모든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조화있는 원리와 그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정신상태의 결과 되어진 것이다. 우리 자신의 신기원은 매일매일 그자신의 양식을 결정해 가고 있다. 우리들의 눈은 분해해도 아직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비행기

비행기는 정밀한 선택의 산물이다. 비행기가 말해주는 것은 문제를 다루어나가는 것과 실현하는 논리에 있다. 주택의 문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아왔다. 그렇지만 주택의 표준은 존재한다. 기제는 그속에 선택을 요구하는 경제적인 요소를 갖고있다. 주택은 살기위한 기제이다.

자동차

우리들은 완전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표준을 고정시켜야만 한다. 파르테논은 표준에 맞춰진 선택의 산물이다. 건축은 표준에 준거해서 결정된다. 표준은 논리, 분석, 그리고 정밀한 문제의 연구이며 그것은 잘 결정되어진 문제에 근거하고 있다. 표준은 경험에 의해서 명확히 수립되어진다.



로마의 교훈

건축이 하는 일은 소박한 재료를 감동적인 상호관계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건축은 실용적 필요성을 초월한다. 건축은 조형물이다. 질서의 정신·의지의 통일·상호관계의 감각. 건축은 양을 취급한다. 정열은 불활성인 바위에서 드라마를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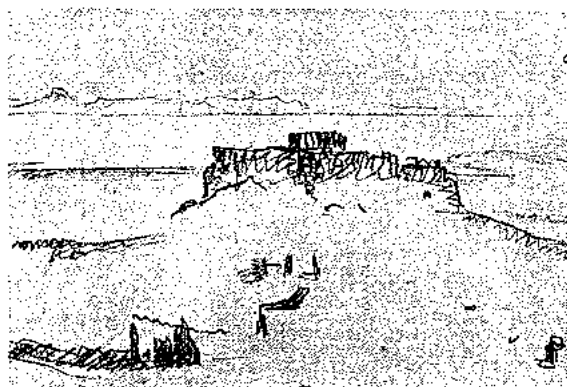
평면의 환상

평면은 안에서 바깥으로 진전한다. 외부는 내부의 결과되어진 것이다. 건축의 요소는 빛과 그늘 그리고 벽과 공간이다. 정리는 목적을 제공해주는 것이며 의도를 분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건축물을 지상 5휘트 6인치 높이에 있는 눈으로 본다. 사람들에게겐 눈이 미치는 대상과 건축요소인 의도만이 문제된다. 건축용어로 말해지지 않은 의도가 노중된다면 그것은 평면의 환각이며 개념의 착오로 평면의 규칙을 범하는 것이며 공허한 쇼 모의 전략이다.

정신의 순수한 창조

등고선과 윤곽은 건축의 시금석이다. 여기서 예술가인가 아니면 단순한 엔지니어인가를 노중한다.

등고선은 모든 구축으로부터 자유스럽다. 더 이상 여기에는 습관도 전통도 구조도 또 실용적 필요의 채용도 문제되지 않는다. 등고선과 윤곽은 정신의 순수한 산물이다. 그것들은 조형예술가를 자극한다.



대량 생산 주택

위대한 신기원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정신이 존재한다. 산업은 그 신성한 목적에로 밀어닥치는 홍수와 같이 압도하며 신기원에 적응하며 새로운 정신으로 활기 띤 새로운 기구들을 제공한다. 경제법칙은 불가피하게 행동과 생각을 통제한다. 주택의 문제는 신기원의 문제이다. 오늘날 사회의 안정은 여기에 달려 있다. 건축은 이 재생의 시대에 첫째 외문인 가치의 재조정과 주택의 구성요소를 수정할 의무를 갖는다. 대량생산은 분석과 실험에 근거한다. 거대한 규모의 산업은 그자신 큰전통을 가져야하며 주택의 요소들을 대량생산의 기준에서 수립해야 한다. 우리들은 대량생산의 정신을 창조해야 한다.

대량생산주택을 건설하는 정신. 대량생산 주택에서 생활하는 정신. 대량생산 주택을 인식하는 정신. 만약 우리가 주택에 관련한 죽은 관념을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출어나가고 비판적이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물체를 검토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도덕적으로도 역시 생활에 수반하는 작업도구와 기구들처럼 아름다운 주택기계 즉 대량생산 주택에 도달할 것이다.

건축이나 혁명이나

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며 그들을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만약 이 새로운 사실이 과거와 견주어진다면 혁명이 가능한 건축과 토목에서 대량생산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적 유연성에 직면해서 대량생산 단위는 대량으로 세부에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만약 이 사실을 과거에 대결시키면 이것이 수행되는 방법과 진행되는 바 거대한 규모로 혁명이 초래될 것이다. 건축의 역사는 여러 세기를 통해서 구조와 장식의 수식으로써 서서히 노증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50년동안 철과 콘크리트는 새로운 정복을 가져왔으며 그것은 굉장한 구조의 능력과 과거의 양식이 전복되는 건축의 표지이다. 과거에 도전할 때 우리는 양식이 더이상 우리들에게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과 우리 자신의 시대에 속하는 양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그리고 이미 혁명은 도래했다.

우리의 정신은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사태를 인식하고 있으며 부지불식간에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라는 기계는 역사적 사건인 개혁과 대변동 사이에서 심히 연결장치가 떨어진채 우왕 좌왕하고 있다.

모든 인간의 본원적 본능은 주거에의 확신이다. 오늘날 사회의 가지각색의 직업인들은 이미 필요성에 따라 주거가 정해질 필요가 없다. 예술가건 지성인 이건 오늘날 사회의 근저에 있는 불안은 바로 건축의 문제이다. 건축이나 혁명이나.

現代建築

THE KOREA ARCHITECT

이 책은 건축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고 있으며, 건축의 역사와 이론, 그리고 건축의 실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건축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고 있으며, 건축의 역사와 이론, 그리고 건축의 실제를 다루고 있다.



現代建築

THE KOREA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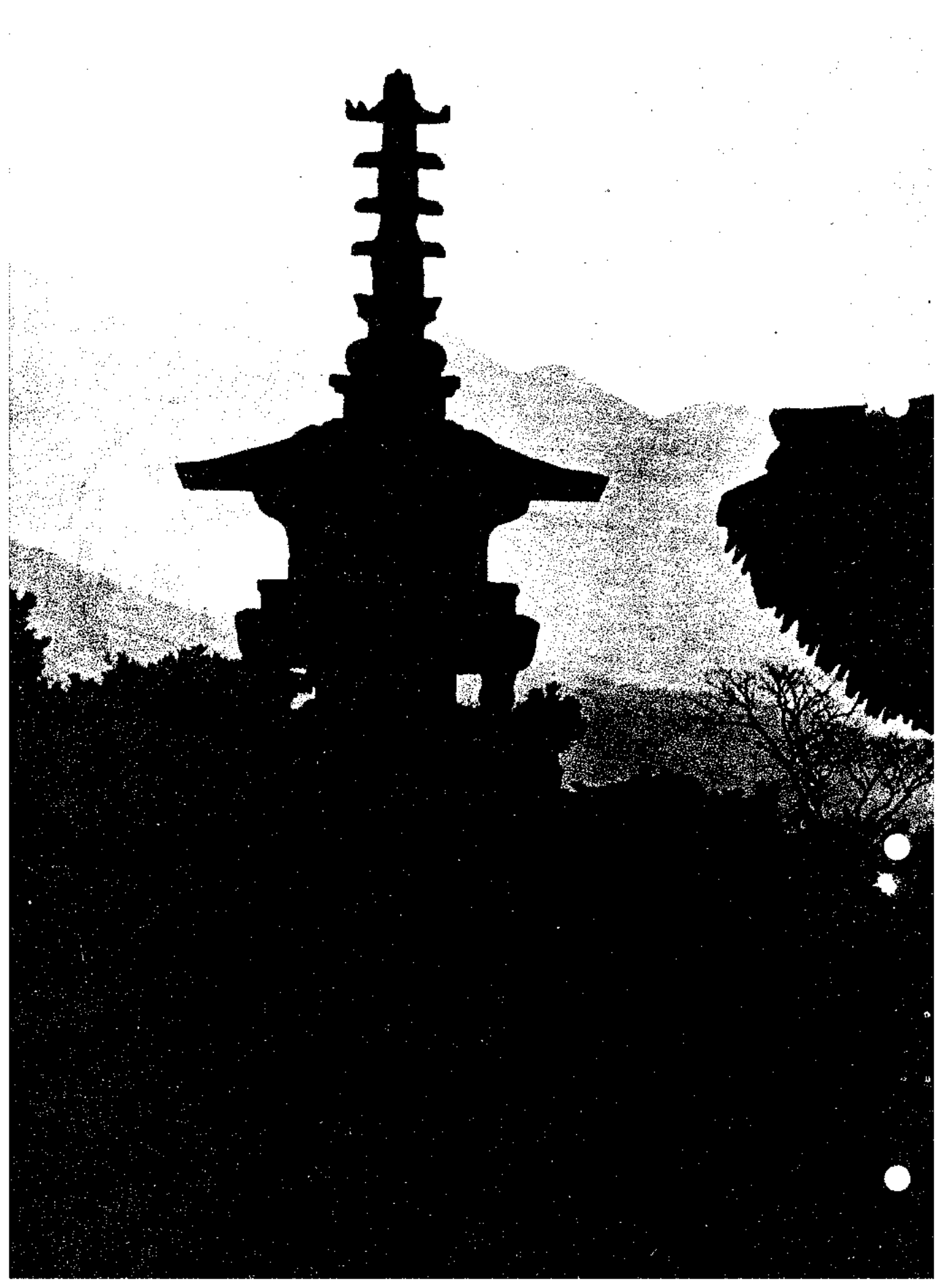
aug 8 / 1970

- 建築家の責任 4 金 熙存
住居空間의 意味 5 李 奎浩
西歐의 建築 6 趙 子龍
中國의 都市 14 梁 寅
새로운 場 - 鄧亞歷代 20 趙만도 서울광라
평생의 커뮤니티 38 世界建築家協會
신세진 47 金 熙榮
서울관주의 물집하우즈 53 羅 相熙
최정철의 57 嚴 德教
朝鮮大學
평지동화 58 趙 子龍 62 제이드보요러
建築理論의 起源 66 韓 聖武
임스텔담市庁舎 81
스텐다드 경크 78 덴드리퍼, 페드루크
에이전
가베스만 빌딩 83 파울슈나이데르, 에스페인
슬라온 요일 루트락스 84 라지스
제임즈버드 89 과 엘 시
타이리아일린드 93 카이츠, 레프포링거, 천민
이원학영관 96 앙드레콜록
바리의 새 地下鉄

購讀仲請 서울特別市龜山区龜洞洞

8 - 109 ② 1225

定期購讀 6個月 2,000 원



『韓國建築의 特色에 對하여』

日本大阪府建築士會會員一同 本協會來訪 懇談會

席上 講演 要旨 (30分)

理事 姜 奉辰

오늘 우리 협회를 찾아 주신 여러분은 우리와 다같은 건축사로서 한국을 관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오셨고 특히 경주, 부산, 대구등지에 산재하고 있는 신라문화의 고적을 순례하셨다. 하므로 이자리를 빌려 잠시동안 여러분에게 한국 건축의 특색에 대해서 말씀 드리므로써 여러분의 한국관광에 다소라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print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한국건축발달의 연대적 구분을 말씀드리면 한국의 기원은 태고에 단군이 백두산에 강림하여 개국한 이래 4303년이란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시대의 건축은 분명치는 않으나 문화사적인 면에서 볼 때 동굴주거나 토막집 정도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후 인지의 발달에 따라 건축도 점점 발달되었는데 그 상황은 print를 잠깐 봐 주시길 바랍니다.

1. 韓國建築史의 年代的 區分

太古 檀君(4303년).....B. C2333

└ 樂浪郡.....B. C108~A. D313

上代└ 帶方郡.....後漢末~A. D313

└ 三 韓(馬韓, 辰韓, 卞韓)

└ 高句麗...B. C37~A. D668

百 濟...B. C18~A. D663

三國時代(發生時代)└ 古新羅...B. C57~A. D653

└ (伽耶)...後漢初~A. D562

新羅統一時代(極盛時代).....A. D654~A. D935

高麗時代(餘盛時代).....A. D918~A. D1392

李朝時代(衰退時代).....A. D1392~A. D1910

prin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낙랑, 대방의 문화는 당시 고도로 발달된 중국의 “한”나라 문화가 우리 북방 땅에 처음 들어왔던 것으로서 당시의 건축은 우리의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건축에 속할 성질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한국의 남방에는 마한, 진한, 변한의 3한이 있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한국문화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 시대의 건축은 문헌에 의하면 벌써 가구식주거로서 온돌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후 고구려, 백제, 고신라의 삼국시대는 한국 건축의 발생시대로서 고구려의 고분내에는 당시의 목조건축(가구식)이나 풍속, 인물등을 그린 벽화

가 있는데 그 색채가 1,300여년을 지난 오늘날까지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신라 통일시대는 한국 건축의 비약적 발전시대이며 오늘날까지 전해 온 당시의 훌륭한 석조건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고려시대는 건축은 물론 미술 공예품이 상당히 발달한 시대로서 고려청자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예술품입니다.

이조시대는 초기에는 상당히 활발하였으나 말기에 국운이 쇠퇴함에 따라 건축도 점점 쇠퇴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신라 이후 각시대별 건축의 특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프린트에 요약 기재하였으므로 Print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2. 各時代의 建築特色

初期…新羅固有藝術時代

新羅時代 中期…新羅固有藝術에 中國의 六朝藝術을 加味한 時代

末期…中期藝術에 唐의 藝術을 加味한 時代

高麗時代 初期…新羅藝術을 繼承하고 高麗固有의 藝術을 加味한 時代

末期…初期藝術에 元의 影響을 加味한 時代

初期…高麗藝術에 李朝固有藝術(儒敎藝術) 加味한 時代로서 堅實한 建築樣式이다.

李朝時代 中期…文藝復興時代로서 華麗한 建築樣式이다.

末期…衰退時代로서 複雜하고 纖弱한 建築樣式이다.

각시대의 한국 건축의 특색은 Print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나, 대체적인 윤곽은 중국양식에 비슷 하지만 세부적인 수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한국 고유한 양식을 형성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백제시대에는 박사 왕인(王仁)이 일본에 경문을 전하였고 백제공장 아비지(阿非知)가 공장 200여명을 인솔하여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나라 법룡사(法隆寺金堂) 금당을 건축 했다고 하며

법룡사의 다마무시즈시(玉穗厨子)는 백제건축양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문헌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엔 한국 건축의 현존 유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rint에 나와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을 하나, 둘 적은 것에 불과하며 이외에 3국시대부터 이조시대까지의 한국 건축의 유물은 전국 각처에 대단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3. 現存遺構

高句麗…古墳壁畫

三國時代 百濟…扶餘塔, 古墳, 其他
古新羅…瞻星臺(東洋最古 天文臺)

芬皇寺塔 其他

新羅統一時代…佛國寺石窟庵, 外 多數

高麗時代…榮州浮石寺無量壽殿(1277)

“ “ 祖師堂(1377)

外 6 棟이 現存 (13世紀…2 棟
14世紀…6 棟)

李朝時代…城廓, 宮闕, 文廟, 關王廟, 書院, 客舍, 佛寺, 塔婆, 浮屠, 石碑, 王陵其他 多數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로서 석조원형건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들게 하여 안정감을 나타내고 정상부에 十字型의 정형(井桁)을 놓고 방위를 측정 하였던 것입니다.

석굴암은 중국 운강의 대동석굴이나 인도의 아난타석굴 등이 자연 암석에 굴을 파서 만든것에 반하여 경주 석굴암은 순전히 인공적으로 굴을 축조하고 중앙에 본존불을 안치하고 주위의 둥근 벽

면에는 11면 관세음보살상을 비롯하여 여러 보살상을 정밀하게 조각하여 그 정교함은 세계에 자랑할만한 훌륭한 예술품입니다.

고려시대의 현존 건물은 Print에 적어 있는 바와 같이 8동이 남아있고 내부의 벽화나 외부의 단청도 아주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으며 그 수법양식은 완전히 한국 고유한 것입니다.

이조시대의 건축은 그 종류가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고 현존한 건축물의 수(數)도 다른시대 것보다 월등하게 많이 남아 있으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개 임진왜란 이후의 것이 많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의 건축이 대부분 불교 건축인데 반하여 이조시대의 건축은 유교 건축이 많습니다.

이것은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고 이조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건축 양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 건축의 외관은 중국과 일본과의 중간적인 양식을 갖었다고 생각 됩니다. 즉 중국 건축은 용마루나 처마곡선이 하늘로 치솟은 듯한 급곡선으로 되고 일본은 대개 직선으로 된데 반하여 한국 건축은 급곡선과 직선의 중간쯤 되는 아주 완만한 곡선으로 된 것입니다.

한국 건축의 양식상 특징을 Print에 의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판에 그림을 그려 가면서 설명했음)

4. 韓國建築樣式의 特徵

1. 垂直檐遮式…檐遮垂直
曲面皁, (斗捺), 굽받
침(皿斗)無(和樣) 下
端反節曲線
(肘木)

[I] 柱心包樣式

(疎組, 亞麻組)
(宋에서傳來)

2. 斜切檐遮式…檐遮斜切
曲面皁, 굽받침有(大
師樣, 天竺樣)
3. 円孤檐遮式…檐遮円孤
又は反節曲線, 平面皁
굽받침無(禪宗樣)
4. 変則式…柱頭に단굽받
침有, 小果(小斗)에는
굽받침無, 平面皁.

[II] 多包系樣式

(註 組)
(禪宗樣)
(元에서傳來)

1. 平面皁, 굽받침無, 円孤
檐遮(和樣)
2. 인홀림(下張)기둥, 又
는 円筒柱
3. 平防(臺輪)上에 貢包
(斗組) 配置
4. 우물天井(格天井)

[III] 折衷樣式

1. 建物各部에 柱心包, 多
包 樣式을 混用한것
2. 架構는 多包系 樣式으
로 되고 柱心包를잔것
3. 桁間과檼間을 2形式
으로 잔것
(桁間…多包, 檼間…柱心
包)

5. 柱心包系樣式과 多包系樣式과의 差異點

1. 貢包…柱頭上에 配置
2. 出目數…2出目(2先
手)以下
3. 檼斷面위가 넓고 아래
가 좁고 네모를 접은
것 偏平

[I] 柱心包

4. 退檼…虹樣式
5. 天井…연등천장(化粧
天井)

1. 貢包…平防上에 配置
2. 出目數…2出目以上
3. 檼斷面…위는 직각, 아
래는 모를접음

[II] 多 包

4. 退檼…直梁
5. 天井…우물天井(格天
井)

이상으로 한국 건축의 특색에 대하여 간단 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나머지 일정을 유쾌하게 관광 하시고 귀국 하시길 바라오며 귀국 후에도 계속 양국간의 건축 문화 교류에 협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협회기사 · 회원동정

제 23회 이사회

(1970. 7. 22. 본회 회의실)

결의사항

- 제 규정 개정안은 각 이사가 내용을 검토하기로 함.
- 서울지부에서 세입예산 찬조비 항목 증설 신청건은 7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찬조회비는 정관 제 8조 4 항의 해당 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항목 신설은 총회사항임으로 이사회에서 는 부결함.
- 정기 이사회는 8월부터 매월 1회 제3수요일에 소집하기로 함.
- 예비비 사용승인(예비에산으로)
- 경남지부 사무감사를 김동규이사 수재아래 시행하기로 함.

제24회 이사회

(1970. 8. 19. 본회회의실)

결의사항

- 정부기관 관계의 발주공사에 대한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등록대행을 하지말고 원칙대로 건축사 지부에서 도서등록토록 할것.
- 경남지부 경리사무에 있어
 1. 지부감사는 지부의 경리사무를 감사케하며
 2. 회비 채납액 납부는 물론 소홀히 처리되어 있는 경리를 완전히 시정하여 원상복귀토록하고,
 3. 서울지부 타자기 견도 해결토록하고
 4. 이상을 8월31일까지 완결하고 감사는 9월 1일 출납 세출, 장부롤 지참 협회로 출두할것.
 5. 이상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 도서등록을 부산지부로 이관한다.
- 출판비 예산 목간유용 승인.
- 8월호 회지는 특집으로 페이지수를 늘이고 반면 부수는 줄여 가정 예산 범위내에서 발행키로 함.
- 강원도지부 회원 2명 윤리위원회 회부위하.
- 등록취소된 회원이 등록복귀시는 신입 회원의 경우와 같이 입회비를 납부 받을것.

회원전출

여옥동(경일건축사무소)

경북지부로전출

제 3회 윤리위원회

(70. 7. 29. 본회 회의실)

- 경남지부회원 2명 출두하여 의견 진술
- 강원도지부 회원 2명중 1명 출두하여 의견 진술
- 경기도지부 사무장에게 2중등록 행위 전말을 조사 보고토록 지시.
- ☆ 8월17일 대만건축사 24명 본협회 예방하여 선불교환과 다과회가 있었음.

신입회원

- | | |
|----------------|---------|
| 손동익(법진건축연구소) | |
| 서대문구응암동61 | 38-6551 |
| 탁광호(신흥건축연구소) | |
| 동대문구보문동 1가 9-1 | 93-9271 |
| 송형진(정미건축설계사무소) | |
| 영등포구영등포동 1가92 | 68-0536 |
| 주영백(동산건축연구소) | |
| 중구율지로 1가 102 | 23-4214 |
| 이종관(한국건축기술연구소) | |
| 성동구천호동421 | 천호 737 |
| 위형복(연희건축연구소) | |
| 마포구동교동173-13 | 32-1474 |

사무소 이전

- | | |
|---------------------|-----------------|
| 한창진(제내합건축연구소) | |
| 중구저동 2가78 | 26-1161~5, 구내 8 |
| 박훈명(주식회사박훈명건축설계사무소) | |
| 중구필동 2가 7-3 | 28-2783 |
| 민영준(동덕건축연구소) | |
| 중구태평로 2가266 | 28-4909 |
| 홍관우(홍관우건축연구소) | |
| 중구회현동 3가11-3 세대빌딩 | 23-4342 |
| 임영년(신흥건축설계사무소) | |
| 영등포구시흥동539-35 | 8-4105 |
| 허남근(후레임건축연구소) | |
| 중구무교동33-1 | 23-8438 |
| 전필주(여미도시건축설계실) | |
| 중구무교동40 | 28-5558 |
| 박종구(합진건축연구소) | |
| 동대문구전농 3동55-36 | 96-3974 |
| 안병윤(정진건축연구소) | |
| 성동구무학동 4 | 54-9028 |

협회기사 · 회원동정

배한구

대전시선화동18

강우석

대전시대동479-9

갑중구

대전시대동479-9

이원우

대전시대동479-9

정옥진 (정옥진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유동50

김호근 (문화건축연구소)

광주시대인동312

구친모 (구친모건축설계사무소)

여수시교동339

조동회 (현대건축사무소)

광주시중흥동642

전생규 (광주건축공사)

광주시계림동505

장상희 (양지건축설계사)

부산시동래구광안동612-7

황복영 (동영건축설계사)

부산시부산진구대연동1742-9

이종현 (동일설계사)

부산시동래구북천동374-4

안일성 (극동건축설계사무소)

부산시동래구북천동374-3

이승관 (화신설계사)

부산시중구부평동2가41

구기용 (미성건축설계사)

부산시동래구북천동374-4

상호변경

허남근 (후레이건축연구소) 前 실미건축공사

박중구 (합진건축연구소) 前 교과기술연구소

박준휘 (여도건축설계사) 前 남도건축사무소

울산시성남동3-1

성훈섭 (도성건축연구소) 前 나라건축설계사

부산시중구대교동2가20

경기지부 인천분소 사무소 이전

인천시 중구 신포동23-2-4566

☆ 지부소식

전남지부

70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7월 30일 개최

의결사항

○69년도 결산 승인

○7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건축사법 제22조 삭제 반대 결의

☆광주회원 30명 8월 4일~6일까지 부산 동명목재 초청으로 본사 및 공장시찰

서울지부

☆영등포 분소가 8월 10일부터 업무개시함.

주소,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구청앞)

회원수, 1급 21명 2급 44명

분소장, 윤용창

일본 대판시 건축사 9명 8월24일 오후 본협회를 예방하고 강봉진 이사로부터 한국건축의 특색에 대하여 강연을 들었다.

☆본 협회 회원 21명 Expo70참관 및 일본 산업시찰하러 8월 15일 김포공항 출발 24일 귀국예정
회원명은

서울: 김만성

부산: 김영권, 허하구, 강우석, 박규식

충북: 강정원.

충남: 양 세환 남해현

전북: 김사육, 김용훈.

전남: 임재근, 김호환, 채규당, 신정채

경북: 이성원, 김중규, 이성해, 윤영도

경남: 박영대.

제주: 이광선, 김맹남

이며, 윤봉원, 주현중, 정병화, 정경현, 윤동수, 이상도, 박오균, 김성근, 회원은 8월 25일 출발 예정이다.

☆본부와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 20여명은 부산 동명목재 초청으로 8월 13일 동명목재 공장을 시찰하고 좌담회를 연후 14일은 부산 시내 광복동 신신에식장에서 건축 하기 강좌를 가졌는데 강사와 연세는 정인국 (홍익대학교수) 건축문화와 美觀 김희훈 (서울공대교수) 건축구조의 역할 강명구 (본협회회장) 건축제회의 중요성으로 2시간 30분에 걸쳐 성황리에 끝났다.

■ 발행소 /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서울지로 1가25번지 정양빌딩601호실 / 전화 28-9802 · 22-2617
■ 발행인정경집인 / 강명구 ■ 인쇄처 / 대한공론사 ■ 등록일자1967년 3월23일 ■ 등록변경/1970년1월 8일 ■ 등록번호 / (제라-1251) ■ 인쇄 / 1970년 8월24일 ■ 발행 / 1970년 8월25일 ■ 월간
■ 인쇄구좌 / 한은무교지점1955호

부산에 있는 東明木材商社에서 8月5日 傾에 협회로 약 60명의 회원을 1박2일의 예정으로 초대한다는 초청장이 왔다. 13일의 출발일자가 너무 촉박한 탓이었던지, 초대받은 회원들이 너무 바빴던 탓인지, 오전 9시 출발시간에 나온 사람은 20여명 뿐이었다. 약 30분을 지체한후 9시30분에 전세편 대한여행사 배스편으로 협회 앞을 출발하였다. 지난 7월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부산 용당동 바닷가에 자리잡은 동명목재에 도착한 시간은 15시 20분경 이었다. 미리 준비되었던 시원한 커피로 숨을 돌리자 곧 동명 박상무의 “동명합판 공장과 제품을 보고 건축설계에 도움이 있기를 바란다”는 인사말 後에 교육과정의 공장현황과 생산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東明木材는 1925年 제지공장으로 出發하여 47년부터 합판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61년 처음으로 輸出한후 63년에는 공장시설확장하고 65년부터는 단일품목 수출수위의 업적을 이룩하여 68년 금탑산업훈장을 받고 올해의 수출 목표액은 3200만불로 더 많은 수출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一翼을 담당하고 있다. 합판은 종이 합판과 나무합판의 두종류로 라미나, 압프 합판 포리에스합판, 프린트합판, 이 있으며 내수성은 나무합판이 더 좋으나 별차가없고 종이합판은 습기, 열에 강한 특수도료를 칠한 싼값이 장점으로 합판은 좋은 기계도 필요하나 5000명 종업원의 노력으로 더 좋은 품질이 나온다는 요지의 안내말이 있는 후 본협회 강명구회장의 “초청에 감사한다”는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서 東明 공장과 실험실을 본후 東明木材가 자랑하는 부산의 명소 신선대를 옆에 두고 조도, 태종대를 마주보는 용당동 바닷가에 자리잡은 동명합판에서 파담회를 가졌다.

동명의 빈틈없는 안내와 접대에 감사한다.

동명합판의 대화(발제)

질문 : 공장을 잘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너무 균일하며 색이 밝은것 같습니다. 좀더 자연스러운 합판이 좋지 않을까요? 자연이 갖고 있는 불규칙의 법칙같이 합판 하나하나의 同一性 보다는 방을 꾸밀때 방 전체

가 하나로서의 조화가 되는 합판이 좋을것 같습니다. 또 동명합판이 他합판보다 가격이 좀 비싼데 이유는? 그리고 공장內的 환기가 좀 나쁘지 않을까?

동명 : 박상무 : 우선 회사가 大量生産에 大量판매 체제이므로 자연히 균일한 규격과 수요가 많은 종류의 제품에 치중하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부부동반하여 내장용이나 가구용 합판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중 90%가 부인의 의사에 따라 제품의 선택이 결정되는데 부인들이 대부분 밝은 색조와 同一한 무늬의 합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수준높은 원목의 느낌이 드는 합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문제는 저희 제품은 국내용과 수출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값이 좀 비싸고 동시에 질이 좋습니다. 즉 동명합판은 内部판의 목질은 가로결이고 外部판의 목질은 세로결이므로 온도나 습도의 변화에 신축이 없고 수출품과 같은 도료를 사용하므로 비쌀수 밖에 없습니다. 합판의 내부결과 외부결을 가로와 세로로 하는 것이 쉬운것 같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他 합판은 대개 내부판과 외부판이 같은 결이고 값싼 도료를 사용하므로 질이 떨어지니 쌀수밖에 없습니다. 또 공장內的 환기가 나빠 눈물이 나고 코가 메운것은 主 화학약품이 포르마린인데 이것이 비중이 무겁기때문에 천정과 벽에 무수한 환기장치를 해 놓았는데도 그명입니다. 공장 바닥면을 올리면 되지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무거운 기계시설의 설비때문에 좀 힘이 드는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 동명에서는 종업원의 위생과 건강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건축사 협회 회장님과 여러건축사님들이 동명을 방문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조언을 하여주신데 감사합니다.

유신岩棉텍스

(広物質, 不燃性, 吸音, 天井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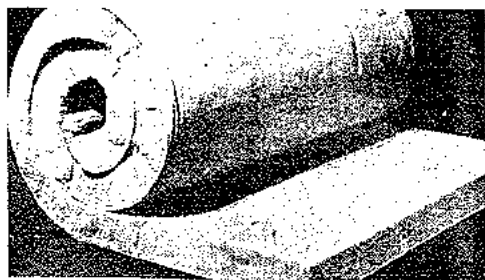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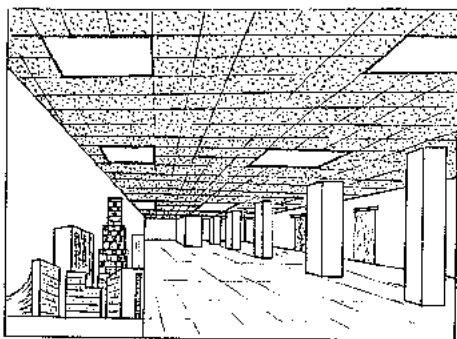
岩棉인슈레이손

(輕量断熱材), 防音, 防暑, 防寒,
鉄筋콘크리트, 스라부建物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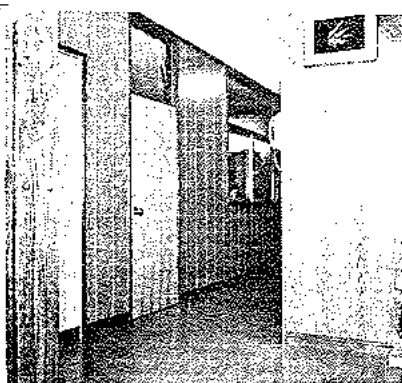
最高の 歴史! 最大の 生産!

唯信텍스

優秀한 吸音效果



原板은 콘크리트 絶縁材로 많이利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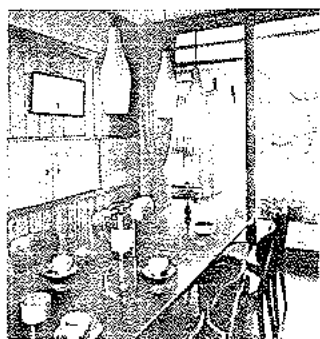


라미날化粧合板 (内装材)

世界的인 原木무늬 그대로의 高級 銘木 化粧合板

포리톤化粧合板 (建築材, 家具材)

아름다운 Pattern紙를 合板에 高压接着하여
強力 樹脂처리한 新製品.



하이톤 (테블, 카운터, 家具材)

耐熱性 耐磨耗性 耐藥品性에 最強인 메라민 積層板

模樣紙

原木感覺의 安価 品位있는 Pattern紙로 化粧合板
高压樹脂板과 室内裝飾에 多角利用

본드 (各種建材用 接着劑)



近代建築에 貢獻하는

唯信化学

本社・工場 TEL. 62-1081・1086・1096・1681

서울연락소 TEL. 22-9330・28-5562・22-3319

防水專門



都市工業株式會社

TOSI INDUSTRIAL CO., LTD.

代表理事 崔 昶 壽

事業內容

◎都市式(A A G)防水(發特)工事
(TRADE MARK) (P A T. No 2968)

◎特殊床工事 (스파라이트(TRADE MARK)
(아트리움(TRADE MARK))

◎一般液体防水工事

◎一般아스팔트防水工事

◎防水材(劑)製造販売 및 施工

◎特殊耐酸工事 (아스팔트 耐酸)
(P V C “)

◎諸般防水工事設計施工監理

◎ A A G防水施工法

建設部長官 優秀賞 受賞

◎ 防 水

文敎部長官 優秀賞 受賞

◎ 防 水 劑

大韓建築士協會長 優秀賞 受賞

都市式(A A G)防水의 特徵 (發明特許 2968号)

過去 數拾年間に 걸쳐 弊社에서는 各種 防水工事 만을 專門施工하여온바 其間 오랜 經驗을 通하여 防水資材 및 施工課程에 있어 諸般欠陷을 除去하고 防水效果의 優秀性을 最大限으로 살려 半永久化하는에 成功하였읍니다.

本 防水層은 弊社製品인 防水劑(A A G)와 發明特許品인 耐熱性防水紙(特製)로 構成된 것 으로서 冷熱에 對하여 Insulation 作用을 잘함으로서 Asp. 係列 防水層 構成方法中 가장 優秀한 것으로서 그 壽命을 長期間(半永久的) 保存하게 되는데 特徵이 있는 것입니다.

※ A A G는 弊社 製品인 防水劑로서 特許局에 登録된 Trade Mark 입니다.

※ 防水 關係 問議는 本社 ☎ 22-5204・28-0011로 하여 주시면 항상 응하여 드립니다.

本 社：서울特別市 中区 太平路 2街 68番地

TEL 22-5204・28-0011・夜間直通 54-6807

出張所：釜	山	TEL	3-8243
大	邱	TEL	4-0193
光	州	TEL	2-0468
大	田	TEL	2-6036

韓國發明 특허 (第2792호)

미 국발명 특허 (U. S PAT No. 3410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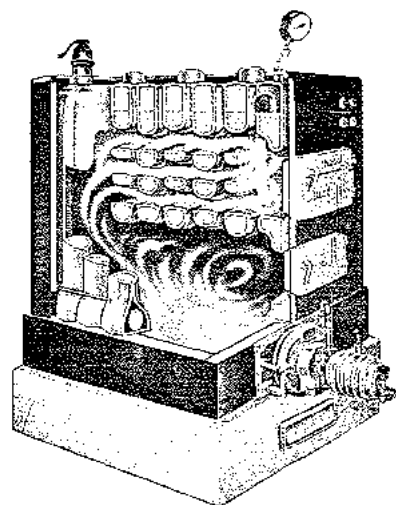
캐나다발명 특허 (캐나다 No. 811463)

— * — 동진의 D Z 보이라는 섹손을
지꾸자꾸로 조립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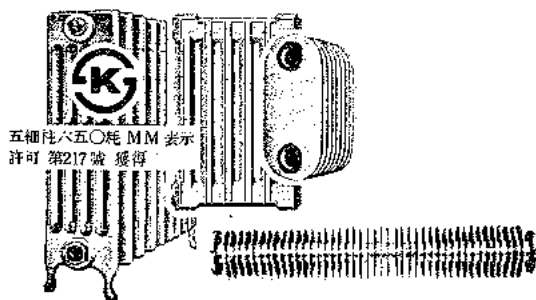
화상면적을 20%로 증가 시켰읍니다 따라서 전열면적이
30% 증가되어 연료가 절약되며 열공급이 빠르므로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대통령상 수상품)

東震ZZ型보이라



東震의 製品은 完全한
品質管理로 安心하고
使用할 수 있습니다.



◆ 製品案内 ◆

- ⊕ 低壓 섹쇼날 보이라
- ⊕ 高壓 보이라
- ⊕ 各種 放熱器
- ⊕ 콘덴세이션 펌프
- ⊕ 回轉式 蒸汽釜
- ⊕ 眞空暖房 펌프
- ⊕ 콘벡타
- ⊕ 電氣호이스트 크레인
- ⊕ 住宅用 溫水보이라
- ⊕ 로-타리 오일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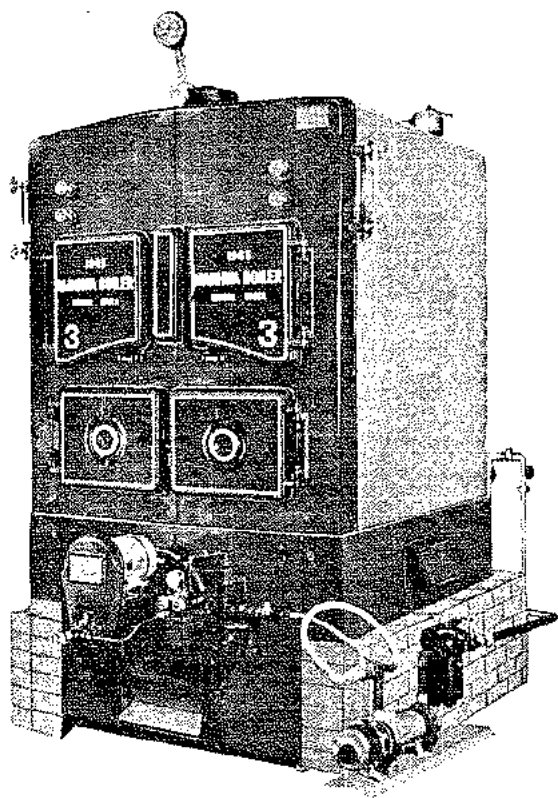
東震鑄物製作所

본사: 서울特別市 龍山区 元曉路 1 街 43 TEL. (交) 42-2221~5 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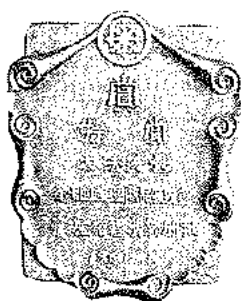
부산지사: 釜山直轄市 中区 東光洞 1 街 1 番地 電話: 4-8284



오일바-나 사용 보일러 OIL BURNING BO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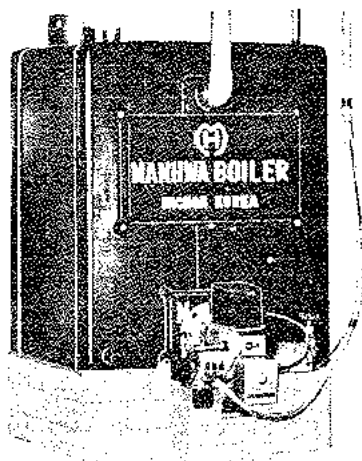


실용신안 등록특허 제 3579 호



특상 우수상에 빛나는 만화보일러

가정용 온수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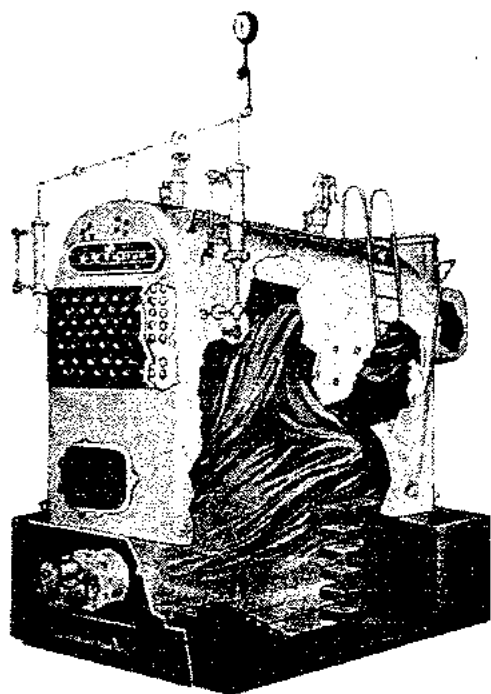
만화주물공업주식회사

본 사 : 인천시 남구 송의동 349
 인천 (2) 0930, 3491 (3) 1156, 1157
 서울연락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48의 3
 (22) 3716 (24) 1316 (28) 7716

便利하고 合理的인!

一實用新案 特許 第2845號 一

東光 DW 型 水管式 보일러



用途

政府廳舍、빌딩、호텔、病院、食品工場、
化學工場、製藥工場、纖維工場、沐浴湯、
機械工場、洗濯所 等 其他。

〈受賞種別〉

- 第一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서울 特別市長 優秀賞
- 第二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大韓建築士協會長 優秀賞
- 1967年度優良工產品生産獎勵會에서 優秀賞
- 第七回全國商品會에서 內務部長官의 優秀賞
- 第八回發明品展示會에서 國會議長의 最優秀賞
- 第九回發明品展示會에서 大法院長의 最優秀賞
- 上記展示會에서 商工部特許局長의 優秀賞
- 科學의 날 優秀한 機械 工產品의 發明으로 科學技術 振興한 功勞로 韓國 科學技術總聯合會長으로 부터 表彰狀을 받음.
- 原動機 技術賞審査委員會의 審査에서 特殊水管式보일러部門의 技術 開發과 振興에 寄與한 功勞로 國立工業研究所長 으로 부터 技術開發賞을 받음

主要納入處

大韓住宅公社
시온제과 Co.
自由선 타
産業銀行
大田皮革 Co.
서울여자學院
韓一染色 Co.
世宗亞細亞
中央産業 Co.
金山鐵道廳

三岡産業 Co.
仁川團藝組合
國防部建設本部
春川聖心大學
美八軍洗濯所
大韓體育會
大韓重石 Co.
宇盛化學 Co.
東洋紡織 Co.
首都醫附屬病院

大韓染織 Co.
同和藥品 Co.
柳韓洋行 Co.
韓國유리 Co.
韓國나일론 Co.
大韓콜크 Co.
清溪商街아파트
大韓造船公社
올림포스호텔
웅당산호텔

호수호텔
韓獨商社 Co.
聖바오루病院
大興심유 Co.
聖心綜合病院
大韓生命保險
公務院訓練院
林業試驗場
南大門警察署
大韓産業

京畿農産 Co.
廣日빌딩
韓國洋灰
麗水觀光호텔
第一病院
自動車保險
새한빌딩
江原道庁
韓獨産業
韓國산토리

東光보일러製作所

東光工營株式會社

代表理事 朴 鍾 泰

本社：서울特別市龍山區交培洞14의 1

電話 (42) 1673 (42) 9775-6

工場：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2番地

미국특허 #505-863 ! [미국특허] [미국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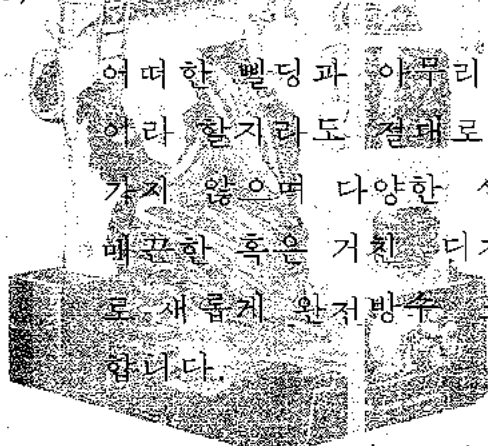
새로운 건축자재의 혁신!
 투박한 각곡에서 건축광종인 光東 光東
 표벽재료 드디어 한국에 出現!

DECOR-CEM

(덱콜-셈)을 소개합니다



덱콜셈시공 광경



어떠한 벨딩과 아무리 古屋
 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금이
 가지 않으며 다양한 색채로
 배관한 혹은 거친 디자인으
 로 새롭게 완전방수 표벽화
 합니다.

※ 防水, 방화, 방음, 凍結, 結
 氷, 恒久性を 보장하며 쉽게
 청소됩니다.

미국에서 建築業으로 전통과 기술을
 자랑하는 ILLINOIS Rockford에 있
 는 U. S. DECOR-Cem Inc.와 동남
 아 특약과 기술 제휴

木 社: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20의 3
 (성산빌딩 203호)

光東 光東 光東

工 場: 서울 용산구 한남동 504의 1
 전 會 社 光東 光東 光東

TEL: (54) 711-5 (16) 711

